

# 뭉쳐야푼다!

## 전근대사

(주제 1 ~ 주제 38)

## 문제 해설



## 주제1 한국사 입문

### 세부 주제 1 역사 연구의 관점

문제	정답	해설
1	①	<p>제시문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p> <p>&lt;오답정리&gt;</p> <p>① 사실로서의 역사의 입장에 해당한다.</p>
2	②	<p>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우리’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세계사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면 특수성으로 생각하면 된다.</p> <p>㉠ 세계사적 보편성에 해당한다.</p> <p>㉡ 현세구복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불교의 대표적인 특징이다.</p> <p>㉢ 성리학의 교조화는 조선 후기의 특수성에 해당한다.</p> <p>㉣ 전 근대 대부분의 사회에서 신분제도가 존재하였다.</p>

### 세부 주제 2 역사서술의 방식

문제	정답	해설
1	②	<p>중국의 역사서 중, 서술의 방식까지 알아야하는 것은 사마천의 &lt;사기&gt;이다.</p> <p>&lt;사기&gt;는 동양 기전체 역사서의 시조이다.</p>
2	①	<p>제시된 사료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부여는 긍정적으로, 고구려는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p> <p>ㄱ &lt;삼국사기&gt;는 유교적 입장에서 서술된 역사서로, 불교관련 기사가 별로 없다.</p> <p>ㄴ 고려사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고려 말기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p> <p>ㄷ 역사의 객관성을 말한다.</p> <p>ㄹ 역사서술의 방식에 해당한다.</p>
3	①	<p>ㄱ 기사본말체에 가깝다.</p> <p>ㄴ 기전체이다.</p> <p>ㄷ 편년체이다.</p> <p>ㄹ 기사본말체이다.</p> <p>ㅁ 편년체이다.</p> <p>ㅂ 기전체이다.</p>

## 주제 2 선사시대

### 세부 주제 1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문제	정답	해설
1	②	<p>A층은 신석기시대, B층은 청동기시대, C층은 철기시대이다.</p> <p>① 가까운 시대일수록 지표면에 가깝다.</p> <p>② 신석기시대의 유적지는 큰 강가나 바닷가에 분포한다.</p> <p>③ 청동기시대에는 정착생활이 확대되었다.</p> <p>④ 세형동검과 잔무늬거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기 철기시대의 청동기이다.</p>
2	②	<p>제시문에는 농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구석기시대로 오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수렵과 채집이 중요한 생업이었다. 게다가 보기에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정답을 신석기시대로 풀어야한다.</p> <p>ㄱ 신석기시대부터이다.</p> <p>ㄴ 청동시대에 전쟁이 많아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p> <p>ㄷ 토테미즘은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p> <p>ㄹ 청동기시대의 유적지이다.</p>
3	③	<p>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이다.</p> <p>ㄱ 청동기시대이다.</p> <p>ㄴ 신석기시대부터 이다.</p> <p>ㄷ 신석기시대이다.</p> <p>ㄹ 신석기시대이다.</p> <p>ㅁ 반달돌칼은 청동기시대의 수확도구이다.</p>
4	③	<p>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 유적은 대표적인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다.</p> <p>① 청동기시대이다.</p> <p>② 청동기시대이다.</p> <p>③ 흑요석은 화산지대에서만 나오는 암석으로 구석기 시대(양구 상무룡리), 신석기 시대(부산 동삼동)의 유적지에서 출토되었다. 양구나 부산은 화산지대가 아니므로, 원거리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p> <p>④ 청동기시대이다.</p>
5	①	<p>① 주먹도끼는 구석기 전기, 스킨피르개는 구석기 후기에 사용되었다.</p>
6	③	<p>(가)는 미송리식토기, (나)는 빗살무늬토기이다.</p> <p>①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시대에 제작되었다.</p> <p>④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청동기시대의 무덤이다.</p>
7	①	<p>① 샤먼이 부족장인 것은 맞으나, 불평등한 신분을 상징하는 '지배자'의 개념은 아니고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로 이해해야 한다.</p> <p>② 방추차는 가락바퀴를 말한다.</p>

8	③	그림은 구석기시대에 제작된 뿔석기를 만드는 모습이다. ① 구석기시대는 빙하기라 지금보다 해수면이 낮았다. ② 신석기시대이다. ③ 구석기 전기의 특징이다. ④ 구석기 후기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하였다. 기온이 낮았던 구석기 전기에는 큰 동물들을 주로 사냥하였다.
9	④	④ 청원 두루봉 동굴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10	②	사진에 보이는 움집의 집자리는 원형이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의 집자리 유적이다. ① 연질(부드러운)의 토기를 제작하다가, 굽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청동기 시대 이후 경질의 토기가 제작되었다. ② 청동기 시대이다. ④ 부산 동삼동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 세부 주제 2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문제	정답	해설
1	⑤	그림에 가락바퀴와 반달돌칼이 보인다. 가락바퀴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으나, 청동기 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그에 비해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였다. 이러 문제가 나오면, 가장 나중에 등장한 유물을 시대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① 신석기시대이다. ② 철기시대이다. ③ 구석기시대이다. ④ 신석기시대이다.
2	①	① 사천 늑도와 같은 남해안은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한국, 중국, 일본간의 무역 경로였다. ② 부산 동삼동은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지상가옥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흥수아이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나왔다. ④ 울주 반구대에서는 동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사각형과 방패 모양, 동심원등의 기하학적인 그림은 고령 장기리(양전동)에 그려져 있다.
3	④	그림의 왼편은 비파형동검, 오른편은 세형동검이다. ④ 신석기시대의 모습이다.
4	①	초기 철기 시대는 철기와 함께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인 세형동검과 잔무늬거울등이 제작되었다. ① 청동기시대이다.
5	③	①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 ② 창원 다호리는 철기 시대의 유적이다. ④ 서울 암사동은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다.

6	①	② 지상가옥은 청동기시대부터 등장하였다. ③ 흥수아이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나왔다. ④ 고령 장기리 바위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7	①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고 제정일치의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다. ②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보편적인 농업은 아니었다. ③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중국의 청동기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④ 청동기시대에도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와 목기를 사용하였다.
8	③	(가)유적은 울주 반구대(대곡리) 바위그림이다. 반구대 바위그림은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와 철기 시대에는 북방에서 한반도 남부로 꾸준히 인구가 이동하였다. ①, ②, ④는 구석기시대이다.
9	②	사진은 철기시대에 사용된 중국 화폐인 명도전이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돈은 철기 시대에 중국과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10	②	(가) 토기의 모습이다. (나) 청동기시대에는 석기나 목기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다) 견종법은 조선 후기에 보편화되었다. (라) 농기구이다.

### 주제 3 고조선

#### 세부주제 1 단군 이야기, 8조법

문제	정답	해설
1	①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한 사료이다. ① <삼국사기>에는 단군이야기가 없다.
2	②	중국 연나라의 제후가 왕을 칭하자, 고조선의 군주도 왕을 칭하였다고 한다.
3	③	㉠ 고대법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 전근대의 법은 지배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 근대 이후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 유교적 율령체계가 들어온 것은 4세기 이후의 일이다.

#### 세부 주제 2 고조선 역사의 흐름

문제	정답	해설
1	④	(가)시기는 위만조선시대에 해당한다. 위만조선은 중국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계무역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오답정리> ① 위만이 왕이 되기 이전의 일이다. ② 고구려 유리왕 때의 일이다. ③ 위만이 왕이 되기 이전의 일이다.
2	①	준왕은 위만에게 고조선의 왕위를 찬탈당하고 난 이후,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여 한(韓)왕이 되었다고 한다.
3	①	(가)는 위만조선 이전, (나)는 위만조선 시기에 해당한다. ㄴ (나)에 해당한다. ㄷ (가)에 해당한다.
4	②	고조선의 역사는 순서가 중요하다. 인과관계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5	④	왼편 그림은 비파형동검, 오른편 그림은 미송리식 토기이다. 미송리식토기와 비파형동검은 북방식(탁자식)고인돌과 함께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주로 분포하는 유물이다.
6	③	한군현의 설치 이후 토착세력의 반발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8조법이 60조로 확대되었다. <오답정리> ① 한군현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지 못하였다. ② 불교문화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었다. ④ 고구려이다.
7	④	위만은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지만, 제시문의 여러 사례들을 볼 때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 주제 4 초기국가

### 세부주제 1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문제	정답	해설
1	②	평지가 부족하고,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고 있는 국가는 고구려이다. ② 동예의 풍습인 책화이다.
2	④	옥저의 민며느리 풍습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정리> ① 삼한이다. ② 고구려이다. ③ 동예이다.
3	③	동예의 제천행사인 무천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정리> ① 부여이다. ② 삼한이다. ④ 옥저이다.
4	③	ㄱ 옥저의 풍습인 민며느리제도이다. ㄴ 동예의 풍습인 책화이다. ㄷ 부여의 부족장들과 순장의 풍습을 소개하고 있다. ㄹ 삼한은 기후가 온난하여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① 고구려이다. ② 삼한이다. ④ 옥저, 동예, 부여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마한과 진한은 각각 백제와 신라를 중심으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였다.
5	①	부여의 제천행사인 영고를 설명하고 있다. ㄱ 부여의 우제점법이다. ㄴ 옥저의 가족공동무덤이다. ㄷ 부여이다. ㄹ 고구려이다. ㅁ 삼한이다.
6	③	(가)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나)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① 고구려이다. ② 동예의 책화이다. ④ 고구려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였다.
7	③	(가) 부여 (나) 고구려 ① 삼한, ② 부여 ④ 동예이다.



8	③	(가) 부여 (나) 고구려 ① 옥저, ② 삼한, ④ 동예이다.
9	①	옥저를 소개하는 사료이다. '대군장이 없다'는 구절과 '큰 나무 꺾을 만든다' 등의 내용을 통해 옥저임을 알 수 있다. ② 고조선이다. ③ 삼한이다. ④ 부여이다.
10	①	영동지방인 강릉 지역에는 동예가 있었다. 한반도에 있었던 초기국가들은 지금의 지역을 기준으로 물어 볼 수도 있다. 옥저는 함흥평야(함경도) 일대, 동예는 원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영동지방(강원도 동해안), 마한은 경기·충청·전라도 일대, 변한은 낙동강 서쪽(경상남도), 진한은 낙동강 동쪽(경상북도)에 있었다.
11	③	(가) 부여의 건국설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 고구려의 건국설화에 대한 사료이다. ① 부여는 3세기 경 선비족의 침공으로 몰락하였다. ② 부여는 기후가 한랭하여 오곡은 잘 익었지만 오과(과일)는 수확이 안 되었다. ③ 초기 고구려의 풍속이다. ④ 서옥제와 형사취수제는 지배층의 풍속이다.
12	③	지안 고구려비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비석은 광개토대왕릉비,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지안 고구려비가 있다. 따라서 '이 나라'는 고구려이다.

세부 주제 2 삼한(마한, 진한, 변한)

문제	정답	해설
1	⑤	광주광역시에 나온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임을 파악하면, 마한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동예의 제천행사이다. ② 고구려이다. ③ 부여이다. ④ 옥저의 풍습이다.
2	③	소도는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삼한의 신성구역이다. ①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이다. ② 동예의 책화이다. ③ 삼한 중에서도 변한이 철 수출로 번영하였다. ④ 옥저의 풍습이다.

3	④	<p>(가) 고구려의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다.  (나) 삼한의 천군(제사장)에 대한 설명이다.  ② 무천은 동예의 제천행사이다  ③ 고조선이다.  ④ 다른 초기국가들도 제정분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상으로 제정분리가 확실히 확인되는 나라는 삼한이다.</p>
4	③	<p>(가) 동예의 여(毋)자형, 철(凸)자형 집자리이다.  (나) 마한의 토실이다.  ① 변한이다.  ② 부여이다.  ③ 삼한은 제정이 분리되었다.  ④ 고구려이다.</p>
5	④	<p>(가) 부여  (나) 고구려  (다) 동예  (라) 마한  (마) 변한  ④ 변한은 가야연맹으로 발전하였다.</p>
6	③	<p>(가) 마한의 주구묘이다.  (나) 마한의 토실이다.  ① 옥저와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② 옥저이다.  ④ 고구려이다.</p>
7	②	<p>사진은 삼한의 신성구역인 소도의 입구에 만든 솟대이다.</p>
8	③	<p>사진은 마한에서 만들어진 독무덤이다. 독무덤은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영산강(전라남도) 유역에서는 5세기 초까지 나타난다. 이는, 전남지역이 5세기 초까지는 백제의 직접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당시 백제의 무덤양식은 돌무지무덤이었다.</p>

## 주제 5 삼국시대

### 세부 주제 1 삼국의 형성

문제	정답	해설
1	③	<p>이 시는 고구려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이다. 유리왕은 도읍을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p> <p>① 고국천왕이다.                  ② 미천왕이다.                  ④ 소수림왕이다.</p>
2	④	<p>ㄱ 유리왕이다.                  ㄴ 동천왕이다.                  ㄷ 태조왕이다.                  ㄹ 미천왕이다. 미천왕은 낙랑군과 중국의 연결고리인 압록강 하구의 서안평을 점령하여 낙랑군을 고립시키고, 이후에 이를 흡수하였다.                  ㅁ 고국천왕이다.</p>
3	①	<p>사료는 좌평제도를 확립하여 집권체제를 정비한 백제의 고이왕에 대한 설명이다. 고이왕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북쪽의 한군현과 대립하였다.</p> <p>② 근초고왕이다.                  ③ 성왕이다.                  ④ 고구려의 미천왕이다.</p>
4	④	<p>그림은 연맹왕국의 부족장들이 중앙귀족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왕위의 독점, 율령의 반포, 불교의 수용, 관등과 공복의 제정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연맹왕국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p> <p>④ 율령의 반포는 유교 윤리의 보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유교 윤리가 일상생활까지 지배하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다.</p>
5	③	<p>(가) 고국천왕이다.                  (나) 동천왕이다.                  (다) 태조왕이다.                  (라) 유리왕이다.</p>
6	②	<p>사료는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국천왕은 5부족을 행정적 5부로 개편하였다.</p> <p>① 소수림왕이다.                  ③ 동천왕이다.                  ④ 문자명왕이다.</p>
7	③	<p>(가)는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주도한 국상 을파소이다. 을파소는 비 귀족 출신으로 재상(국상)의 역할을 맡았다.</p>

8	③	<p>지도를 살펴보면, 고구려가 아직 낙랑군과 요동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세기 이전의 삼국시대의 형세이다.</p> <p>① 2세기 고국천왕 때의 일이다.          ② 3세기 동천왕 때의 일이다.          ③ 4세기 근초고왕때의 일이다.          ④ 마한은 4세기 이후 서서히 백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p>
9	③	<p>제시문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p> <p>① 왕위의 부자상속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③ 삼국의 지방통치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지배였다.</p>

세부 주제 2 4세기

문제	정답	해설
1	③	<p>(가)는 백제의 공격으로 전사한 고구려 고국원왕 관련 내용이다.            (나)는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고구려 광개토왕 관련 내용이다.</p> <p>① 장수왕 때의 일이다.            ② 미천왕 때의 일이다.            ③ 소수림왕 때의 일이다.            ④ 고국천왕 때의 일이다.</p>
2	②	<p>ㄱ은 신라 화랑들이 유학공부를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석이다.            ㄴ은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ㄷ은 진흥왕의 가야 방면 영토확장을 보여주는 비석이다.            ㄹ은 고구려의 불상이다.</p>
3	①	<p>(가)는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고국원왕 때의 일이다.            (나)는 백제 개로왕, 고구려 장수왕 때의 일이다.</p>
4	③	<p>(가)는 이사금, (나)는 마립간이다.</p> <p>① 소지마립간 때의 일이다.            ② 법흥왕, 진흥왕 때의 일이다.            ④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등의 명칭을 사용할 때는 아직 왕권이 약하여 박·석·김씨가 왕위를 돌아가면서 차지하였다. 마립간의 칭호를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김씨 세력이 왕위를 독점하였다.</p>
5	①	<p>㉠은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 내물마립간을 도와 가야와 왜의 군대를 격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과 신라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p>
6	①	<p>(가)는 소수림왕 때의 일이다.            (나)는 장수왕 때의 일이다.</p> <p>① 모용황은 전연의 왕이다. 따라서 고구려 고국원왕 때의 일이다.            ②, ③, ④ 광개토대왕 때의 일이다.</p>

7	②	(가)는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고국원왕 때의 일이다. (나)는 신라 내물마립간, 고구려 광개토왕 때의 일이다. ① 천리장성은 영류왕 때 공사를 시작하여 보장왕 때 완성되었다. ② 소수림왕 때의 일이다. ③ 장수왕 때의 일이다. ④ 미천왕 때의 일이다.
8	①	모용황의 침공으로 국내성을 함락당한 고구려의 군주는 고국원왕이다. ① 고구려 미천왕 때의 일이다. ② 백제 문주왕 때의 일이다. ③ 신라 지증왕 때의 일이다. ④ 고구려 광개토왕 때의 일이다.
9	④	사료는 광개토대왕릉비이다. 밑줄 친 '노객'은 광개토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신라 내물마립간이다. 내물마립간 시기부터 김씨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었다. ① 백제 근초고왕이다. ② 신라 진흥왕이다. ③ 백제 동성왕이다.
10	②	(가)는 초기국가 시기의 지도이다. (나)는 4세기경의 지도이다. ① 옥저와 동예는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② 근초고왕 때의 일이다. ③ 초기국가 때의 일이다. ④ 반파국은 대가야이다.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이 재편된 시기는 5세기이다.

### 세부 주제 3 5세기

문제	정답	해설
1	②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관도를 수리한 왕은 소지마립간이다. 소지마립간은 5세기 후반에 집권했으므로, 활발한 정복사업의 전개는 시기가 맞지 않다. 신라가 활발히 정복사업을 전개한 시기는 6세기 진흥왕 때이다. ① 5세기 눌지마립간 때의 일이다. ③,④ 소지마립간 때의 일이다.
2	③	(가) 백제에 불교가 전파된 시기는 4세기 후반 침류왕 때의 일이다. 시기적으로 (나)이다. (나) 5세기 비유왕 때의 일이다. (다) 6세기 무령왕 때의 일이다. (라) 6세기 성왕 때의 일이다.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3	②	제시문은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설명이다.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한 왕은 장수왕이다.

		<p>① 법흥왕이다.</p> <p>② 장수왕의 침공으로 죽은 백제 개로왕에 대한 설명이다.</p> <p>③ 진흥왕이다.</p> <p>④ 유리왕이다.</p>
4	③	<p>(ㄱ)은 4세기 고구려 고국원왕에 대한 내용이다.</p> <p>(ㄴ)은 6세기 신라 지증왕에 대한 내용이다.</p> <p>① 4세기 미천왕이다.</p> <p>② 7세기 의자왕이다.</p> <p>③ 5세기 장수왕이다.</p> <p>④ 6세기 법흥왕이다.</p> <p>⑤ 6세기 법흥왕이다.</p>
5	③	<p>제시문은 6세기 백제 동성왕에 대한 설명이다. 동성왕은 신라 소지마립간과 결혼동맹을 체결하여 나제동맹을 강화하였다.</p>
6	④	<p>지도를 살펴보면, 백제가 한강유역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도에 해당하는 시기는 5세기 중반 ~ 6세기 초반까지이다.</p> <p>① 웅진천도 이후 기존의 귀족세력과 함께, 금강유역의 토착세력이 지배계층에 가세하였다.</p> <p>②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였다.</p> <p>③ 영산강유역(전라남도)의 직접지배를 통해, 한강유역의 상실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였다.</p> <p>④ 7세기 때의 일이다. 7세기에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다.</p>
7	①	<p>사료는 백제 개로왕이 북조(북위)의 황제에게 보낸 국서이다. 개로왕은 고구려의 남진을 막기 위해 북조의 개입을 부탁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처음으로 체결한 것은 개로왕 즉위 이전인 비유왕 때의 일이다.</p>
8	③	<p>(가) 광개토대왕릉비이다.</p> <p>(나)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이다. 북한산비는 19세기 고증학자 김정희의 연구로 진흥왕이 세운 비석임을 알게되었다.</p> <p>(다) 충주 고구려비이다. 충주는 남한강유역에 있는 도시이다.</p> <p>(라) 창녕비(진흥왕 순수비)이다.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멸망하였다. 따라서 창녕비는 금관가야의 멸망과 관련이 없다.</p>
9	③	<p>문주왕은 도움을 웅진으로 천도하였고, 동성왕은 신라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백제는 웅진 천도 이후 전라남도(영산강 유역)와 탐라(제주도)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여 한강유역의 상실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였다.</p> <p>① 금강유역(웅진, 사비지역)의 토착세력은 백제의 지배세력에 가세하였다.</p> <p>②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시기는 무령왕과 성왕 때의 일이다.</p> <p>④ 대가야의 호남진출을 통제한 시기는 무령왕 집권기이다.</p>
10	②	<p>사료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부여가 항복해오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 문자명왕 때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문자명왕은 북부여를 병합하여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p>

세부 주제 4 6세기

문제	정답	해설
1	②	(가) 4세기 근초고왕 때의 일이다. (나) 7세기 영양왕 때의 일이다. ㄱ 5세기 문주왕 때의 일이다. ㄴ 천리장성은 7세기 영류왕 때 만들기 시작하여, 보장왕 때 완성되었다. ㄷ 6세기 진흥왕 때의 일이다. ㄹ 고구려가 옥저에 진출한 것은 1세기 태조왕 때이고, 옥저와 동예를 직접 지배한 것은 4세기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2	①	그림은 남조(양)에 온 사신들을 묘사한 양직공도이다. 그림에 나와있는 글에 22담로를 설치했다는 구절이 나오므로, 6세기 무령왕 때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은 양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가야지역에 진출하였다. ② 성왕이다. ③ 고이왕이다. ④ 근초고왕이다.
3	②	첫 번째 제시문은 6세기 신라 지증왕 관련 사료이고, 마지막 제시문은 6세기 신라 진흥왕과 관련한 사료이다. 지증왕과 진흥왕 사이의 왕은 법흥왕이다. ① 5세기 문자명왕 때의 일이다. ② 6세기 법흥왕 때의 일이다. ③ 4세기 미천왕 때의 일이다. ④ 7세기 의자왕 때의 일이다.
4	①	(가) 장수왕 (나) 법흥왕 (라) 성왕 좀 어려운 문제이다. 암튼 답은 ①번 성왕이다. 예전에는 가끔 이런 식의 초지엽적인 문제도 나와서, 수험생들이 법흥왕이나 성왕의 정책 연도까지 기억했으나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③번의 불교 공인은 연호 사용 이전(528년)에 이루어졌다.
5	①	제시된 표의 시기는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들로 연대를 살펴보면 단양 적성비 건립(551년), 북한산비 건립(555년), 창녕비 건립(561년), 황초령비 건립(568년)이다. ㄱ.신라의 금관가야 복속은 진흥왕 이전의 법흥왕 때(532년)의 일이다. ㄴ.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자 554년 성왕은 이에 분노하여 관산성에서 싸웠지만 전사하였다. ㄷ.신라의 대가야 정복은 562년이다. ㄹ.고구려 천리장성의 완성은 647년의 일이다. ㅁ.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것은 545년이다.

6	③	<p>제시된 (가)는 5세기 고구려의 남하를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한 나·제동 맹(433년)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7세기 고구려 영양왕 시기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612년)에 대한 내용이다.</p> <p>㉠ 538년 백제 성왕 시기의 일이다.</p> <p>㉡ 503년 지증왕은 나라의 명칭을 신라로 바꾸고 마립간 대신 왕으로 호칭을 고쳤다.</p> <p>㉢ 400년 광개토 대왕은 신라 내물왕의 요청으로 5만의 군사를 보내 왜를 격퇴하였다.</p> <p>㉣ 645년 고구려 보장왕 때 당이 침입하자 안시성에서 양만춘이 당군을 격퇴하였다.</p>
7	③	<p>㉤ 백제는 260년 고이왕 때 6좌평 제도와 관등제를 마련하였다.</p> <p>㉥ 백제의 근초고왕은 남쪽의 마한 세력을 점령하고 371년 북쪽으로 진출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며 황해도 일대를 장악하였다.</p> <p>㉦ 538년 백제 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p> <p>㉧ 642년 백제 의자왕은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점령하였다.</p>
8	③	<p>제시된 (가)는 475년 문주가 왕에 즉위하는 과정으로 5세기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한성유역을 빼앗기고 웅진(공주)로 도읍을 옮기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나)는 사비천도와 남부여로 개칭하였다는 내용으로 538년 성왕 시기임을 알 수 있다.</p> <p>③ 무령왕은 웅진백제 시기의 왕이다.</p> <p>① 371년 근초고왕은 평양성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p> <p>② 433년 비유왕은 신라의 눌지마립간과 동맹을 맺었다.</p> <p>④ 광개토 대왕은 391년에서 413년 사이에 재위하였다.</p>
9	③	<p>무령왕릉이다. 무령왕은 그 능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으로 유명하다.</p> <p>① 백제 성왕(523~554)은 웅진(공주)에서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p> <p>②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641~660)은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있어서 왕자 시절에는 해동 증자라고 불리었다.</p> <p>④ 백제는 침류왕(384~385) 때에 동진으로부터 승려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384).</p>
10	④	<p>무령왕은 웅진 시대의 백제의 왕으로 혼란한 백제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수시로 고구려의 변경을 공격했다.</p> <p>① 6세기 백제 성왕(523~554)이다.</p> <p>② 백제 비유왕(427~455)과 신라 눌지마립간(417~458)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 나·제동맹을 처음 결성하였다.(433)</p> <p>③ 신라 진흥왕이다.</p>



11	①	<p>법흥왕(540~576)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 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 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 하였다(532).</p> <p>② 지증왕, ③ 신문왕, ④ 진흥왕에 해당한다.</p>
12	④	<p>‘국사’, ‘거칠부’ 등을 통해 진흥왕을 유추할 수 있다.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건립하였다.</p> <p>① 정전은 성덕왕 때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② 국학은 신문왕 때 설립한 학교이다.          ③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설립한 천문대이다.</p>
13	③	<p>(가)는 법흥왕의 측근으로 불교 공인을 이끌어낸 이차돈이다.</p>
14	①	<p>① 평원왕의 사위인 온달이 전사한 것은 영양왕 때의 일이다.</p>
15	①	<p>왼편의 지도는 진흥왕이 확보한 신라 최대의 영역이다. 오른편의 지도는 통일 신라의 영역이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왕들로는 &lt;진지왕 → 진평왕 → 선덕왕 → 진덕왕 → 무열왕 → 문무왕&gt; 이렇게 되겠다.</p>
16	③	<p>왕권이 추락한 6세기 고구려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혼란을 거쳐 귀족 간들의 타협이 이루어져 평원왕 시기에 귀족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p> <p>① 신라 하대의 상황이다.          ② 고구려 초기의 상황이다.          ④ 광개토왕 때의 일이다.</p>

## 주제 6 가야

### 세부 주제 1 가야사의 전개

문제	정답	해설
1	③	<p>“지금의 고령에 있었다”는 문장을 통해 대가야임을 알 수 있다. 대가야는 전성기 때 전라도 동부(남원)에 진출하고, 섬진강유역을 장악하여 중국 남조와 직접 교류하였다.</p> <p>① 백제 성왕이다.                  ② 신라 지증왕이다.                  ④ 고구려 광개토왕이다.</p>
2	①	<p>제시문은 금관가야의 건국 이야기를 다룬 노래 ‘구지가’이다. 금관가야는 해상교역을 통해 우수한 철을 낙랑군과 왜에 수출하였다.</p> <p>② 신라, ③ 백제, ④ 고구려이다.</p>
3	③	<p>지도의 (가)는 대가야, (나)는 금관가야이다. 대가야는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신라에 대항하였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멸망하였다.</p> <p>① 구지가는 금관가야의 건국설화이다. 대가야의 건국설화는 따로 있다.                  ② 대가야도 금관가야와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철이 생산되었다.                  ④ 금관가야의 최대 철 수출 대상이 낙랑군이였다.</p>
4	②	<p>사료는 대가야의 건국 이야기이다.</p> <p>② 말이산 고분군은 안라가야의 유적이다.</p>
5	②	<p>왼편 사진은 가야 토기(굽다리 접시), 오른쪽 사진은 일본의 스에키 토기이다. 이러한 유물을 통해 가야의 토기 양식이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p>

## 주제 7 삼국의 통치체제, 비문들

### 세부 주제 1 삼국의 통치체제

문제	정답	해설
1	④	<p>고구려의 중앙 관제에는 초창기 좌보·우보라는 관직명이 등장하고, 2세 기고국천왕 때에는 국상(國相)이란 관직명이 등장한다. 그리고 6세기 이후에는 대대로, 막리지 또는 대막리지가 수상으로 국정을 총괄하였다.</p> <p>① 신라 화백 회의의 의장은 상대등으로 참석한 귀족들의 만장일치의 의결 방법으로 회의 내용을 결정하였다. 선지에 나오는 상좌평은 백제의 귀족합의체인 정사암 회의의 의장을 말한다.</p> <p>② 백제의 관등은 고이왕 때 완성되었으며 관등에 따라 자색(1~6관등), 비색(7~11관등), 청색(12~16관등)을 착용하였다. 자·단·비·녹의 공복은 고려 시대의 4색 공복이다.</p> <p>③ 품주는 진흥왕 때 설치되었다가 진덕여왕 때 집사부(국가 기밀 관장)와 창부(재정 담당)로 분리되었다.</p>
2	②	<p>ㄴ. 성왕(523~554) 때에 사비로 천도한 후에는 6좌평 외에 새로 22부의 실무 관청을 두어 행정을 분담하였다. 그 후 수도는 5부로, 지방은 5방(장관: 방령)으로 각각 나누었다. 지방의 요지에는 무령왕(501~523) 때에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보내 다스렸다.</p> <p>ㄷ. 고이왕(134~286) 때에 확립되었다.</p> <p>ㄱ. 고구려는 최고직으로 대대로(또는 국상, 막리지)를 두고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국정을 분담하였다.</p> <p>ㄹ. 신라는 신문왕(681~692) 때에 9주 5소경 체제를 정비하였다.</p> <p>ㅁ.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은 정당성(정령 집행), 선조성(정령 심의), 중대성(정령 입안)의 3성과 6부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p>
3	②	<p>ㄱ. 고대 삼국은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이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p> <p>ㄷ. 백제는 중앙을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누었으며, 5방에는 방령을 파견하였다.</p> <p>ㄴ. 고구려는 대성의 장관을 육살이라고 하였다. 그 아래에는 성을 다스리는 처려근지(혹은 도사)가 있었다.</p> <p>ㄹ. 10정은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군을 말한다.</p>
4	②	<p>관리의 등급을 16개로 구분하고 관등명에 솔(率), 덕(德) 등의 명칭이 들어간 나라는 백제이다.</p> <p>② 6세기 백제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최초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p> <p>① 의창의 설치하는 고려 성종 때이다.</p> <p>③ 고구려의 관등은 크게 '형' 계열과 '사자' 계열로 구분된다.</p> <p>④ 발해의 지배층은 소수의 고구려계, 다수는 말갈계로 구성되었다.</p>

5	④	<p>(가)는 상경에서 동경  (나)는 국내성에서 평양  (다)는 한성에서 웅진  (라)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  (마)는 금성(경주)에서 달구벌(대구)</p> <p>① 문왕 때 이루어진 동경 천도는 당의 침략과 관련이 없다.  ② 한강유역 장악 이전에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③ 고구려의 침공으로 어쩔 수 없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p>
6	④	<p>㉞은 화백회의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㉟ 고구려의 국정 총괄자인 대대로(막리지, 국상)가 평양성의 장관을 맡지는 않았다.  ㊱ 고대의 지방 행정조직은 군사조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㊲ 풍수지리는 신라 하대에 유입되었다.</p>
7	④	<p>고대의 지방 통치는 군사적 지배에 가까웠다.  ① 조선시대나 되어서야 가능해진 일이다.  ②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다.  ③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p>

세부주제 2 비문들

문제	정답	해설
1	②	<p>제시된 글에 나오는 비석은 장수왕이 건립한 광개토 대왕릉비임을 알 수 있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5세기의 역사적 내용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  ② 475년 개로왕은 장수왕의 고구려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① 6세기 신라 법흥왕, ③ 6세기 신라 진흥왕, ④ 1세기 고구려 유리왕이다.</p>
2	①	<p>광개토대왕릉비이다. 신묘년(400)에 신라를 도와준 내용이 고대 한·일관계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① 충주(중원) 고구려비는 한반도 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남 양만~죽령)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p>
3	④	<p>충주(중원) 고구려비에 신라를 ‘동이(東夷)’라 하고 신라왕을 ‘동이매금(東夷寐錦)’이라 한 것은, 신라가 자신을 ‘동이’라고 스스로 낮추어 불렀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신라를 낮추어서 표현한 것이다.  ① 호우명 그릇은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는 유물이다.  ② 백제 의자왕 시기에 건립된 ‘사택지적비’는 귀족 사택지적이 말년에 지난 날의 영광과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면서 만든 것으로 도교(도가)적 색채관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p>

		③ 신라 법흥왕 시기에 건립된 울진 봉평 신라비는 올령의 반포 사실과, 신라의 북진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4	③	제시문은 충주(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이다.
5	①	① 창녕비는 대가야 정복 이전에 진흥왕이 건립한 비석이다.

## 주제 8 고구려의 대외 항쟁, 신라의 삼국통일

### 세부 주제 1 고구려의 대외 항쟁, 7세기의 왕들

문제	정답	해설
1	③	<p>제시된 글은 진덕여왕이 죽고 난 뒤 진골 출신인 김춘추가 왕으로 봉해지는 내용으로 성골귀족이 소멸하고 진골에서 왕을 배출하는 신라 중대의 시작을 보여준다. ④ 집사부 시랑은 시중 아래의 관직으로 오늘 날 차관직에 해당한다. 이 직위는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진골세력이 약화되면서 6두품이 진출할 수 있었다.</p> <p>③ 화백회의의 의장을 상대등이라고 한다.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는 전제왕권이 강화되던 신라 중대의 초창기에는 왕명을 수행하고 기밀을 다루는 집사부보다 권한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p>
2	①	<p>제시된 (가) 시기는 나·당 동맹이 체결된 648년(진덕여왕)과 기벌포 전투가 벌어진 676년(문무왕)의 사이 시기이다. ① 진덕여왕은 648년(진덕여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다녀온 뒤인 649년(진덕여왕) 관리들의 의견을 중국식으로 바꾸었고, 650년에는 즉위 이후에 사용하던 ‘태화’라는 연호를 당나라의 연호인 영휘(永徽)로 바꾸어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p> <p>② 법흥왕(514년~540년)은 6세기의 인물이다.</p> <p>③ 의자왕의 대야성 함락은 642년의 일이다.</p> <p>④ 683년(신문왕)에 보덕국의 왕 안승을 경주에 불러들여 신라의 귀족으로 삼았다. 자치권을 상실한 보덕국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신라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보덕국은 사라졌다.</p>
3	①	<p>(가)는 살수대첩(612), (나)는 안시성 전투(645)와 관련된 사료이다. 수나라가 618년 멸망하고 당이 건국되자 고구려의 영류왕은 친당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631년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후 반당론자인 귀족 연개소문과 영류왕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속에서 영류왕은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는 책임자로 임명하여 연개소문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으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642)</p> <p>ㄷ-고구려의 영양왕이 598년 요서 지역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므로 (가) 이전의 상황이다.</p> <p>ㄹ-6세기 후반 고구려의 영양왕은 지속적으로 한강 지역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의 한강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온달로 6세기 후반, 죽령 이북의 땅을 신라로부터 확보하기도 하였지만 590년 아차산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가) 이전의 상황이다.</p>

4	③	<p>수나라가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키자 영양왕은 598년 요서 지역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p> <p>① 당과의 전투이다.          ② 천리장성은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다.          ④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론자였다.          ⑤ 살수대첩에 대한 설명이다.</p>
5	④	<p>지도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대립이 나타난 7세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당군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p> <p>① 고구려 멸망 이후의 일이다.          ② 6세기 백제 성왕 때의 일이다.          ③ 6세기 백제 무령왕 때의 일이다.</p>
6	②	<p>온달 장군에 대한 이야기이다. 온달은 평원왕의 사위였고, 이후 처남인 영양왕이 즉위하자,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해 출정하였다가 전사하였다. 온달 사후에 수나라가 침공을 했고, 고구려가 이를 살수에서 물리쳤다.</p> <p>① 장수왕, ③ 영류왕, ④ 보장왕 때의 일이다.</p>
7	④	<p>(가)는 연개소문이다. 연개소문은 기존의 귀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불교를 견제하고 도교를 장려하였다.</p> <p>① 김춘추의 동맹제안을 거부하였다.          ② 안시성 전투를 이끈 인물은 야사에서 양만춘으로 나온다. 확실한 것은, 안시성 전투를 연개소문이 직접 지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③ 연개소문은 왕족이 아니라서 왕이 될 수 없었다.</p>
8	①	<p>(가) 평원왕은 귀족에게 암살되지 않았다.</p>
9	③	<p>신라에서 집사부를 처음 설치한 왕은 진덕여왕이다.</p> <p>① 무열왕, ② 무열왕, ④ 진흥왕이다.</p>
10	③	<p>이 작품은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을 다룬 서동요라는 향가이다. 무왕은 자신의 고향인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여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p> <p>① 문주왕, ② 근초고왕, ④ 침류왕이다.</p>

세부 주제 2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문제	정답	해설
1	③	해설) (다) 사비성 함락(660년), (라) 백강 전투(660년), (가) 평양성 함락(668년), (나) 매소성 전투(675년)
2	①	<p>문무왕의 재위 기간은 661~681년이며, 기벌포 전투는 676년의 사건이다.</p> <p>ㄱ. 안승은 670년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킨 검모잠에 의하여 추대되어 한성(현재 황해도 재령)에서 왕으로 즉위했으며, 674년에는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에 봉해졌다.</p> <p>ㄴ. 663년 당나라는 신라에 계림대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하는 등, 노골적으로 신라를 예속시키려 하였다.</p> <p>&lt;오답&gt;</p> <p>ㄷ. 황산벌 전투는 660년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5천 백제 결사대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벌인 전투로서 무열왕 재위 기간이다.</p> <p>ㄹ. 보장왕은 기벌포 전투 이후인 677년 요동 지방 전체를 지배하는 요동도독 조선군왕에 임명되어 당나라에 잡혀간 많은 고구려인들을 데리고 요동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당나라가 한반도 지역을 포기하고, 요동 지역의 동요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였지만, 요동으로 돌아온 보장왕은 오히려 고구려 유민을 규합하고 말갈과 연결을 도모하여 고구려 부흥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681년 공주(사천성)로 유배되었다.</p>
3	③	이 사료는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나당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기벌포 전투 이전에 죽었다.
4	④	지도에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나온다. 이를 통해 나당전쟁임을 알 수 있다.



## 주제 9 남북국시대

### 세부 주제 1 신라 중대, 발해 전기

문제	정답	해설
1	③	<p>③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으로 진출하여 해동성국이라 불리던 시기는 무왕이 아니라 선왕 때이다.</p> <p>&lt;오답정리&gt;</p> <p>① 문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국왕 또는 고구려국왕이라고 썼다.</p> <p>② 문왕 때부터 당, 신라와 친선관계를 맺게 된다.</p> <p>④ 발해 유적지에서는 온돌 장치나 돌방무덤 등이 발굴되었다.(고구려 계승)</p>
2	③	<p>제시된 글에 나타나는 9주 완성, 달구벌로 수도 이전 계획의 내용으로 통일 신라의 신문왕임을 알 수 있다.</p> <p>③ 신문왕은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p> <p>&lt;오답정리&gt;</p> <p>① 성덕왕, ② 법흥왕, ④ 원성왕에 대한 설명이다.</p>
3	④	<p>일본에 고려국왕이라 칭하며 외교 문서를 보낸 국왕은 무왕과 문왕이 있다. 제시된 글에서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무왕임을 알 수 있다. 문왕은 고려 국왕이라는 칭호 뒤에 자신의 이름인 대흥무를 붙여 보냈기에 구분할 수 있다.</p> <p>④ 무왕은 동생 대문예의 망명으로 인해 발생한 당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장문휴를 파견하여 당의 국제무역항 등주를 공격하였고, 요서지방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p> <p>&lt;오답정리&gt;</p> <p>① 인안은 무왕 때의 연호이지만 대흥은 문왕 때의 연호이다.</p> <p>② 문왕에 대한 설명이다.</p> <p>③, ⑤ 선왕에 대한 설명이다.</p>
4	②	<p>제시된 글에서 대씨가 고씨를 계승하였다고 형제를 칭한다는 내용으로 발해임을 알 수 있고, 발해에서 보낸 국서가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천손을 칭하고 있다며 국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속일본기의 내용 중 발해 문왕이 보낸 국서에 관한 글임을 알 수 있다. 문왕은 황제를 뜻하는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에 보낸 국서에도 고려국왕을 표방하고 스스로 천손(天孫)이라 칭하였다.</p> <p>② 문왕은 756년 상경용천부로 수도를 이전하였다가 780년 다시 동경용원부로 천도하였다.</p> <p>&lt;오답정리&gt;</p> <p>①, ③ 발해 선왕에 관한 설명이다. ④ 발해 무왕에 관한 설명이다.</p>
5	②	<p>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국왕의 혈통과 골품에 따라 신라의 역사를 상대(혁거세~진덕여왕), 중대(무열왕~혜공왕), 하대(선덕왕~경순왕)로 구분한다. 반면,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은 국왕의 칭호에 따라 상고(혁거세~지증왕),</p>

		<p>중고(법흥왕~진덕여왕), 하고(무열왕~경순왕)로 구분한다.</p> <p>㉠ 상고·중고·하고로 시기를 나누는 것은 삼국유사이므로 맞는 내용이다.</p> <p>㉡ 중고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던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이고, 하고는 중국식 시호제를 시작한 무열왕부터이므로 옳은 내용이다.</p> <p>㉢ 삼국사기에서 중대는 해공왕까지이고 하대는 선덕왕부터이다.</p> <p>&lt;오답정리&gt;</p> <p>㉣ 상대·중대·하대로 신라사를 구분하는 것은 삼국사기이다.</p>
6	㉢	<p>제시된 자료는 신문왕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p> <p>㉢ 신문왕은 유교 정치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한 국학을 설립하였다.</p> <p>&lt;오답정리&gt;</p> <p>㉠ 5세기 소지마립간, ㉡ 통일 신라 효소왕, ㉣ 8세기 경덕왕이다.</p>
7	㉢	<p>8세기 전반, 흑수 말갈이 당과 연합하여 발해를 압박하자 발해 무왕은 동생 대문예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흑수 말갈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문예는 당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흑수 말갈의 공격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고, 결국 무왕은 대문예를 파면하였다. 왕과의 갈등속에서 대문예는 당으로 망명하였고, 무왕은 그의 송환을 요구하였지만 당이 거부하자,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 반도의 등주(덩저우)를 공격하게 하였다.</p> <p>&lt;오답정리&gt;</p> <p>㉠ 선왕(대인수), ㉡ 고왕(대조영), ㉣ 문왕(대흙무)의 업적이다.</p>
8	㉣	<p>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p> <p>㉠ 발해가 다시 중흥한 것은 9세기 전반의 선왕 때로 당시 중국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p> <p>㉡ 발해는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p> <p>㉢ 발해의 지방 지배 체제는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는데, 전략적 요충지에는 5경을 두었고, 지방 행정의 중심인 15부에는 도독을 두어 지방 행정을 총괄하게 하였다.</p>
9	㉡	<p>대왕암은 문무왕의 무덤(수증릉)이고, 문무왕 수증릉 맞은편에 감은사와 감은사지 3층탑을 창건한 왕은 신문왕이다. 신문왕은 왕권강화와 유학교육의 장려를 위하여 국립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다.</p> <p>㉠ 법흥왕, ㉢ 경덕왕, ㉣ 무열왕이다.</p>
10	㉠	<p>(가)는 발해 문왕 때 이루어진 상경에서 동경으로의 천도  (나)는 고구려 장수왕 때 이루어진 평양성 천도  (다)는 백제 문주왕 때 이루어진 웅진 천도  (라)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가야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상화  (마)는 신라 신문왕 때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달구벌(대구) 천도 시도이다.</p> <p>&lt;오답정리&gt;</p>

		② 한강유역 장악 이전에 천도하였다. ③ 수도를 고구려에게 빼앗겨서 천도하였다. ④ 신문왕이 주도하였던 천도 시도이다.
11	③	신문왕 때 당나라와 있었던 외교분쟁을 다룬 사료이다. 당나라는 무열왕의 시호가 '태종'이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 태종은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당나라 황제의 시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당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신문왕은 안승의 보덕국을 직할령으로 편입시켜 왕권을 강화하였다. ① 성덕왕, ② 문무왕, ④ 고구려 소수림왕이다.
12	④	신문왕이 설총의 화왕계를 듣고 감동하였다는 사료이다. 신문왕은 9소당 10정의 군사제도를 완비하였다. ① 신문왕 사후, ② 문무왕, ③ 신라 하대의 일이다.
13	①	(가)는 설총이다. 설총은 6두품 출신의 유학자였으며, 원효의 아들이었다. ② 의상, ③ 원효, ④ 강수이다.
14	④	서원경(청주)는 통일신라 5소경 중에 하나이다. ① 상경 용천부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② 서경 압록부는 발해 5경이기는 하였으나, 수도인 적이 없었다. ③ 발해 건국초기의 수도는 동모산(동모산)이었다.
15	④	(가)는 발해 무왕, (나)는 통일신라 효소왕, (다)는 통일신라 성덕왕, (라)는 통일신라 경덕왕이다. 경덕왕은 흔들리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였다. ① 발해 선왕, ② 통일신라 원성왕, ③ 정전은 통일신라 성덕왕 때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세부 주제 2 신라 하대, 발해 후반기

문제	정답	해설
1	③	해설) ㉠에 들어가는 왕은 발해 10대 왕인 선왕이다. ③ 선왕 시기에 서쪽으로는 요동, 동쪽으로는 연해주, 북쪽으로는 헤이룽강, 남쪽으로는 영흥지방 까지 넓은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오답정리) ① 문왕, ② 대조영(=고왕), ④ 무왕에 관한 내용이다.
2	③	해설) ㉡ 무왕 시기(8세기 초), ㉢ 문왕 시기(755년), ㉣ 선왕 시기(9세기 초), ㉤ 애왕 시기(926년)
3	②	해설) ② 무왕은 당으로 망명한 동생 대문예의 송환문제가 풀어지지 않자 장문휴를 보내 산둥지방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③ 무왕은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 돌궐 등과 친선관계를 형성하였다. ④ 발해 무왕은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여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오답정리) ① 발해 선왕 때의 사실이다.
4	③	해설) 제시된 글에 혜공왕이 난병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열왕계 왕이었던 혜공왕이 피살되고 선덕왕이 즉위하는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③ 혜공왕 피살 후 중앙의 진골 귀족들의 왕권

		<p>다툼이 심화되었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6두품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p> <p>오답정리) ①, ②, ④ 신라 중대의 상황이다. 신라 중대 무열왕계 왕들은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6두품세력과 결합하였고,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며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화백회의의 수장인 상대등보다 왕의 비서인 시중의 권한이 강해졌다.</p>
5	②	<p>8세기 후반 이후 양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p> <p>호족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고, 중앙 정부를 배제하고 농민들로부터 수취하였다.</p> <p>한편,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특히 지배층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며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p> <p>한편,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6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유교)과 선종 승려 등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진골 귀족에 의하여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p> <p>10세기로 들어오면서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후백제)과 궁예(후고구려)는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며, 신라의 지배권은 경주 부근의 경상도 일대로 축소되었다.</p> <p>→ ② 고려 말에 나타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p>
6	④	<p>호족들은 농민 봉기를 배경으로 각처에서 일어나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력도 행사하였다.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제한된 6두품 세력들의 일부는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기도 하였다.</p> <p>→ ④ 대부분 지방 향리의 자제들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리로 진출하였던 것은 고려말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이다. 호족이 대두되었던 신라 하대에는 과거제가 실시되지 않았다.(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p>
7	④	<p>9세기 초에 '바다의 왕자'로 세력을 떨쳤던 장보고(?~846)는 대표적인 해상 세력 출신이었다. 일찍이 당에 건너가 군인으로 출세하였다.(무령군 소장) 당</p>

		<p>시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산동성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고 이 곳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아울러 신라인의 친목과 단결, 안녕을 꾀하는 정신적 위안처로 만들었다. 그러던 중 신라인이 당의 해적들에게 잡혀 와 노비로 팔리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귀국 후 흥덕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였고, 왕은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군대를 조직하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대사로 임명하여 해적을 소탕하였다.</p> <p>그리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당에는 견당매물사와 교관선을 일본에는 회역사를 보내며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하였다.</p> <p>그 뒤 왕권 다툼에 간여하여 신무왕이 왕위에 오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문성왕 때에 자기 딸을 왕비로 삼으려다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한 진골 귀족들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였다.(846)</p> <p>→ ④ 헌덕왕(809~826) 때에 아버지 김주원(무열왕계)이 김경신에게 왕위쟁탈전에 패하자, 그 아들인 웅천주(공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825)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하였고, 뒤이어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이 (북)한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825), 모두 실패하였다.</p>									
8	②	<p>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규합하여 698년 동모산에서 건국한 발해는 전성기 때에 해동성국이라 불리웠으며,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p> <p>특히, 상경성과 연해주 크라스키노 등 발해의 주거지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난방 장치인 온돌이 발견되고 있으며, 묘제에서도 고구려 무덤의 독특한 양식인 모줄임 천장 구조가 보인다(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 발해의 연꽃무늬 벽돌과 수막새와 치미의 기와 문양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상경에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석등과 동경성 출토 이불병좌상에서도 고구려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422 1411 1077 1702"> <tr> <td data-bbox="422 1411 518 1624">고구려 계승의 근거</td> <td data-bbox="518 1411 678 1523">계승 의식</td> <td data-bbox="678 1411 1077 1523">발해와 일본과의 외교 문서, 발해 멸망 후 대광현 등의 지배층이 고려 귀순 등의 사례</td> </tr> <tr> <td data-bbox="422 1523 518 1624"></td> <td data-bbox="518 1523 678 1624">문화적 유사성</td> <td data-bbox="678 1523 1077 1624">정혜공주묘(모줄임 구조·돌사자상), 석등, 이불병좌상, 온돌 장치, 와당(연화문 기와) 등</td> </tr> <tr> <td data-bbox="422 1624 518 1702">당적 요소</td> <td colspan="2" data-bbox="518 1624 1077 1702">정효공주묘(벽돌 무덤), 3성 6부 제도, 수도인 상경의 구조(장안성 모방 및 주작대로) 등</td> </tr> </table> <p>&lt;오답&gt;</p> <p>① 발해 문왕 대에 개설된 신라와의 상설 교통인 신라도(동경용원부-남경남해부-천장군:덕원)는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p> <p>③④ 3성 6부의 중앙 행정 조직과 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감은 당의 통치 체제를 수용한 모습이다.</p>	고구려 계승의 근거	계승 의식	발해와 일본과의 외교 문서, 발해 멸망 후 대광현 등의 지배층이 고려 귀순 등의 사례		문화적 유사성	정혜공주묘(모줄임 구조·돌사자상), 석등, 이불병좌상, 온돌 장치, 와당(연화문 기와) 등	당적 요소	정효공주묘(벽돌 무덤), 3성 6부 제도, 수도인 상경의 구조(장안성 모방 및 주작대로) 등	
고구려 계승의 근거	계승 의식	발해와 일본과의 외교 문서, 발해 멸망 후 대광현 등의 지배층이 고려 귀순 등의 사례									
	문화적 유사성	정혜공주묘(모줄임 구조·돌사자상), 석등, 이불병좌상, 온돌 장치, 와당(연화문 기와) 등									
당적 요소	정효공주묘(벽돌 무덤), 3성 6부 제도, 수도인 상경의 구조(장안성 모방 및 주작대로) 등										
9	②	(가)는 통일 신라, (나)는 발해로 이 자료는 남북국 시대를 설명하는 지도이									

		<p>다. ② 신라는 지방군으로 10정을 두었는데, 정은 9주에 1정씩을 배치하고, 북쪽 국경 지대인 한주(한산주)에는 2정을 두었다.</p> <p>&lt;오답&gt;</p> <p>① 3성 6부는 발해의 정치 조직이다.</p> <p>③ 상수리 제도는 신라에서 실시된 제도이다.</p> <p>④ 5소경 제도는 신라에서 실시되었다.</p>
10	②	<p>현전하는 향가는 총 25수로서 신라향가 14수는 《삼국유사》, 고려향가 11수는《균여전》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신라 진성여왕 2년(888)에 왕명으로 향가집《삼대목》이 대구(大矩)와 위홍(魏弘)에 의하여 수집되어 편찬되었다는 사실이 있으나, 지금 그 책이 전하지 않는 관계로 그 내용이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다. 진성여왕 시기에 원종·애노의 난(889)이 있었고,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인 적고적(赤袴賊)이 서남쪽에서 일어나 수도의 서부까지 와서 민가를 노략질하였고(896),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도당유학생 최치원은 여왕에게 시무 10여조의 사회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894).</p> <p>&lt;오답&gt;</p> <p>㉠ 김대문은 통일신라기인 8세기 전반 성덕왕 때의 인물이다.</p> <p>㉡ 웅천부 도독이었던 김현창의 난(822년)은 헌덕왕 때 발생한 것이다.</p>
11	④	<p>해설 : 발해 문왕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는 같은 시기의 통일신라의 왕들을 알아야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수험생들은 다소 당황할 문제였다. 발해의 문왕은 8세기의 대부분을 보낸 왕(737년 ~ 793년)이고, 같은 시기의 통일 신라는 ‘중대 후반기 ~ 하대 초반기’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8세기 후반에 실시된 원성왕의 독서삼품과(788년)가 같은 시기의 상황인 것이다. 남북국시대도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의 왕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p> <p>오답 분석</p> <p>① 신문왕 때의 일이다. - 689년</p> <p>② 흥덕왕 때의 일이다. - 828년</p> <p>③ 진성여왕 때의 일이다. - 888년</p>
12	③	<p>작품은 신라의 향가이다. 신라는 골품제를 엄격히 유지하였다.</p> <p>① 시비법은 고려시대에 시작하였다.</p> <p>② 최초의 과거는 고려 광종 때 시행되었다.</p> <p>④ 17세기의 무역상황이다.</p>
13	①	<p>사료는 조선 후기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유득공의 글인 &lt;발해고&gt;이다. 유득공은 &lt;발해고&gt;에서 남북국시대를 주장하였다. 발해는 선왕 때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번성하였다.</p> <p>② 통일신라, ③ 고구려, ④ 백제이다.</p>
14	②	<p>김지정의 난으로 살해된 왕은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혜공왕이다. 혜공왕 때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되었다.</p> <p>① 경덕왕, ③ 흥덕왕, ④ 선덕왕이다.</p>

세부 주제 3 남북국의 통치 체제

문제	정답	해설
1	②	해설) 제시된 사료의 국가는 발해이다. ② 발해는 선왕 때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마련하였다. 오답정리 ① 22담로는 백제의 지방행정제도로 무령왕때 설치되었다. ③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이다. ④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이다.
2	①	① 대대로는 고구려의 수상직을, 대내상은 정당성의 장관으로 발해의 수상직을 말한다. <오답> ② 중정대는 발해의 감찰기관이며,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왕의 비서기관이다. ③ 2성 6부는 고려의 중앙관제이며, 5경 15부는 발해 선왕 때 정비된 지방행정 조직이다. ④ 기인 제도는 고려가 지방의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며, 녹읍은 관료에게 직역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를 말하는데, 수조권과 더불어 역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③	① 통일 신라 신문왕 때 9주 5소경 제도가 완성되었다. ② 문무왕 때 지방 행정 통제와 관리 감찰을 위해 지방에 외사정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④ 통일 신라 시대에 전쟁을 통한 피정복 지역, 전쟁 포로 집단 거주지, 반역 지역 등에 향·부곡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다(所는 고려 시대에 설치된 것임을 주의하자). → ③ 9주에 파견되는 관리가 도독(총관)이었고, 소경에 파견하는 관리는 사신(仕臣)이었다.
4	④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① 발해가 다시 중흥한 것은 9세기 전반의 선왕 때로 당시 중국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② 발해는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③ 발해의 지방 지배 체제는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는데, 전략적 요충지에는 5경을 두었고, 지방 행정의 중심인 15부에는 도독을 두어 지방 행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5	②	제시문에서 고구려의 북쪽 땅을 병합하고 남으로 신라와 국경을 맞대었다는 내용을 볼 때, 이 나라는 발해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발해의 감찰기관은 중정대이고,

		<p>③ 중앙정치 조직은 정당성·선조성·중대성의 3성과 총부-인부-의부-지부-예부-신부의 6부로 구성되었다.</p> <p>④ 또한 지방 행정 조직으로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p> <p>→ ②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은 주자감이다. 태학감은 신라 경덕왕 시기에 국학을 개칭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p>
6	①	<p>사료는 발해의 특산물들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다. 발해는 선왕 때 북만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여 우리 역사상 최대 영토를 차지한 국가가 되었다.</p>
7	①	<p>(가) 무열왕의 시호인 태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당나라의 입장이고 (나)는 이를 반박하는 신라의 입장이다. 이러한 외교논쟁은 신문왕 때 있었던 일이다. 신문왕은 9주 5소경의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p> <p>②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흡수할 때의 일이다.</p> <p>③ 신라는 골품제를 폐지한 적이 없다.</p> <p>④ 고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p>
8	④	<p>(가)는 신문왕 때 이루어진 녹읍의 폐지와 관료전의 지급, (나)는 경덕왕 때 이루어진 녹읍의 부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경덕왕은 국학을 태학으로 바꾸고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p> <p>① 성덕왕, ② 지증왕, ③ 신문왕 때의 일이다.</p>
9	②	<p>표는 발해의 중앙 정치제도인 3성 6부제이다. 발해는 당의 3성 6부를 수용하되, 명칭과 구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p> <p>③ 고려, ④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에 해당한다.</p>
10	③	<p>통일신라 신문왕이 5소경을 설치한 이유로는, 수도의 편재성 보완, 지방세력의 통제와 감시, 옛 신라 영토의 방어거점 설치 등이 있다. 지방군인 10정은 각 주에 1정씩, 그리고 국경지대인 한주에는 2정을 설치하였다.</p>



## 주제 10 후삼국시대

### 세부 주제 1 후삼국의 성립

문제	정답	해설
1	㉓	<p>사료를 살펴보면, (가)가 승려였고, 양길의 부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사료의 인물은 궁예이다.</p> <p>㉓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다.</p>
2	㉒	<p>해설) 제시된 글에서 ㉑은 신라의 왕자 출신,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궁예임을 알 수 있고, ㉒은 신라의 백성으로 수도에 쳐들어가 임금과 신하를 베었고, 아들에게 화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견훤임을 알 수 있다. ㉓은 궁예와 견훤이 백성을 몰아다 주었다는 표현으로 왕건임을 알 수 있다. ㉔ 궁예는 국정을 통괄하는 광평성을 비롯한 10부와 9관등제를 실시하였다. ㉕ 견훤은 왕위 세습과정에서 밀린 장남 신검에 의하여 김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㉖ 견훤은 신라의 군인으로 전라도 지방의 군인들과 호족들을 규합하여 완산주(전주)를 도읍으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㉗ 왕건은 궁예의 신하로 있으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수군을 이끌고 나주지역을 점령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워 광평성 시종의 지위까지 올랐다.</p> <p>오답정리) ㉒ 궁예가 사용한 연호는 마진 시기 무태(904~905년), 성책(905~910년), 태봉 시기 수덕만세(911~913년), 정개(914~917년)이다. 천수는 고려 태조 때의 연호이다.</p>
3	㉑	<p>견훤이 신라로부터 처음 자립한 지역은 무진주(광주)이다. 이후 근거지를 옛 백제의 중심지에서 가까운 완산주(전주)로 옮겨 백제의 부흥을 천명하였다.</p>

### 세부 주제 2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문제	정답	해설
1	㉓	<p>㉑ 918년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 철원에서 자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㉒ 926년 발해가 거란(요)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㉓ 935년 왕건은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 ㉔ 936년 견훤이 귀순하자, 후백제를 정벌(일리천 전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p>
2	㉔	<p>지도는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인 9주이다. (나)는 후백제와 고려의 국경이었고, (다)의 나주 지역도 왕건이 궁예의 부하로 있을 때 점령하여 후백제와 지속적으로 다툰 지역이었다.</p> <p>㉑ (가 - 한주)에는 지방군이 2정 배치되었다.</p> <p>㉒ 후백제의 도읍은 (나)와 (다)의 사이인 완산주에 있었다.</p> <p>㉓ (다)에는 소경이 없었다. 되도록 5소경의 현재 지명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금관경(김해), 남원경(남원), 서원경(청주), 중원경(충주), 북원경(원주)이다.</p>

3	②	<p>000장군은 신승겸이다. 신승겸은 왕건을 대신하여 공산(대구)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구에서는 1907년에 국체보상운동이 일어났다.</p> <p>① 진주, ③ 평양, ④ 서울(동아일보)에서 시작한 운동이다.</p>
---	---	---

## 주제 11 고려 초기

### 세부 주제 1 고대사회와 중세사회

문제	정답	해설
1	③	<p>제시문은 고려의 귀족제도가 신라나 서양 중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고려의 귀족사회적 특징으로는 장원제(대토지 소유), 음서제, 공음전, 같은 귀족끼리의 혼인 등이 있다.</p> <p>③ 과거제도, 작위의 세습 불가, 종종 있었던 신분변동 등은 고려의 관료제 사회적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이다.</p>
2	④	<p>고려를 이전의 고대사회와 구분하여 중세사회로 인식하는 근거로는, 지방 세력의 성장과 다양한 지방문화의 발전, 과거 제도의 실시, 귀족의 작위 세습 불가, 종종 있었던 신분 변동, 농업 생산력의 향상 등이 있다.</p> <p>④ 고려 후기까지 일어났던 삼국 부흥 운동은, 고려 사회가 완전한 민족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고대사회(삼국시대)의 정체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다.</p>

### 세부 주제 2 태조, 혜종, 정종

문제	정답	해설
1	③	<p>해설) 제시된 자료에서 그는 삼한을 통일하였고, 혼요를 남겼다는 내용으로 고려 태조임을 알 수 있다. ③ 태조는 지방의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을 사심관으로 삼아 지역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게 하였다.</p> <p>오답정리) ① 과거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등용하기 시작한 것은 광종 때 부터이다. ② 전시과는 경종 때 시정전시과가 실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④ 전국에 12목을 서치하여 관리를 파견한 임금은 소려 성종이다.</p>
2	①	<p>해설) 제시된 글은 10개의 내용으로 불교 장려, 거란 배척, 서경 중시 등의 내용으로 고려 태조의 혼요10조임을 알 수 있다. ① 태조 왕건은 관리들의 지침서로 「정계」와 「계백료서」를 편찬하였다</p> <p>오답정리) ②, ④ 광종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고려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p>
3	①	<p>오답정리) ① 태조는 혼요10조에서 사찰을 지을 때 풍수지리를 따라 지으라고 하였다.</p>
4	③	<p>보기의 자료는 고려 태조의 혼요 10조의 내용이다.</p> <p>③ 고려 태조는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을 실시하였다.</p> <p>① 고려 성종 때 개경, 서경, 12목에 물가를 조절하는 상평창이 설치되었다.</p> <p>② 기인 제도, 사심관 제도는 태조가 맞으나 과거제는 고려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실시되었다.</p> <p>④ 고려 정종 때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p>

5	③	<p>제시된 자료의 ‘이곳’은 고려 정종이 천도 계획을 세웠던 서경, 즉 평양이다.</p> <p>③ 조위총의 난은 1174년부터 3년 동안 서경을 중심으로 서경 주위의 농민들을 규합하여 정중부 등의 무신 정권에 대항해서 일어난 반무신란(문신들의 반란)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직지심체요절은 우왕 때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② 수선사 결사 운동은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④ 강조의 정변은 강조가 개성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거란 2차 침입의 구실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p>
6	②	<p>왕식렴의 후원으로 왕규의 난을 진압하여 왕위에 오른 사람은 정종이다. 정종은 거란의 침공을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p> <p>① 정종은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p> <p>③ 광종, ④ 경종이다.</p>

세부 주제 3 광종, 경종, 성종

문제	정답	해설
1	②	<p>해설) 보기에서 설명하는 왕은 고려 4대 광종이다. 가·ㄷ은 광종에 관한 내용이다.</p> <p>오답정리) 나은 고려 7대 목종, 르은 고려 6대 성종의 업적이다.</p>
2	⑤	<p>해설) ①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후삼국 시대 혼란한 사회속에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호족들의 경제적 자산이자 사병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비의 수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② 광종은 과거제를 통해 유학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신진 세력을 등용함으로써 호족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③ 광종은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황제를 칭하였다. ④ 법안종은 중국 오대(五代)에 활약하던 문익(文益, 885~958)이 연 종파로 광종은 교종과 선종으로 분리된 불교계를 통합하는 한편 유학사상이나 노장사상까지도 통합하기위해 크게 노력하였다. 오답정리) ⑤ 광종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후주 출신 쌍기를 등용하여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p>
3	①	<p>해설 : 광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노비안검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해방시켜, 국가 재정의 확충과 호족과 공신의 기반 약화를 꾀하였던 제도이다.</p> <p>오답분석</p> <p>② 경종 때 처음 실시되었다.</p> <p>③ 성종이다.</p> <p>④ 성종이다.</p>
4	①	<p>사료는 최승로가 광종을 비판한 내용이다. 최승로 ‘5조 정적평’에서 광종의 전제왕권 추구를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성종에게</p>

		<p>지방관의 파견을 건의하였다.</p> <p>②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은 중국에 통일왕조인 들어서면서 광종 때 폐지되었다.</p> <p>③ 서경(평양)천도를 추진했던 왕으로는 고려 초기의 정종, 고려 중기의 인종 등이 있다. 성종은 서경천도와 큰 관련이 없다.</p> <p>④ 신유학은 성리학을 말한다. 성리학은 원 간섭기에 들어왔다.</p> <p>⑤ 개혁안 10여조를 올린 인물로는, 최치원과 최충현 등이 있다.</p>
5	④	<p>(가) 고려 태조 왕건은 재위 25~26년(942~943)에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겼다. 제5조에 서경을 중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 고려 성종(981~997)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 때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982).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987년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고 992년에는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여(처음 설치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재정비한 것으로 추정) 중앙과 지방에 유교 교육을 진흥하였다.</p> <p>&lt;선지정리&gt;</p> <p>① (가)가 먼저 발표되었다. ② 고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으로 양현고를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③ 고려 광종(949~975)은 중국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친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제를 처음 시행하였다.(958)</p>
6	③	<p>해설) 제시된 자료의 국왕은 향리제를 정비하고 국자감을 설치한 성종이다.</p> <p>③ 994년(성종 13년)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는 거란 장군 소손녕과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p> <p>오답정리 ① 1007년(예종 2년) 윤관과 오연총이 이끌던 별무반은 여진족을 정벌하고 9성을 쌓았다. ② 1231년(고종 18년) 박서는 귀주성에서 몽골의 침략에 맞서 분투하였다. ④ 양규는 1010년(현종 1년)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한 거란의 군대를 귀주에서 격퇴하였다.</p>
7	①	<p>해설) 제시된 글에서 불교는 수신의 도, 유교는 치국의 본이라는 표현으로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28조임을 알 수 있다. ① 고려 성종은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p> <p>오답정리) ② 1135년 고려 인종 때 묘청이 서경에 대화궁을 지었다. ③ 1018년 고려 현종 때의 일이다. ④ 고려 태조 왕건은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고려 광종은 '광덕', '준풍'의 연호를 사용하였다.</p>
8	④	<p>사료의 노비안검법은 광종이 실시하였다. 광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p>

		<p>으나, 송과의 통교 이후 실리를 위해 송의 연호를 사용하였다.</p> <p>④ 광종은 서경천도를 추진하던 선왕(정종)의 세력을 견제하였다.</p>
9	③	<p>광종의 사후 즉위한 경종은 아버지(광종)가 육성한 신진세력을 숙청하였고, 귀족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시정전시과를 시행하였다.</p> <p>① 성종, ② 인종 때 이자겸, ④ 광종이다.</p>
10	③	<p>과거제도의 실시는 능력본위의 개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기는 했으나, 음서제와 같은 귀족적 제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개방적 사회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p>

## 주제 12 고려 중기

### 세부 주제 1 문벌귀족사회의 구조

문제	정답	해설
1	②	<p>제시문의 필자는 고려를 귀족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p> <p>② 음서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제도인 것이지, 서양의 습관제처럼 작위(예를 들자면 공작, 백작 같은 것)를 대물림 하는 것이 아니다. 고려도 작위제도가 있었으나, 자손에게 대물림 되지는 않았다.</p>
2	③	<p>제시문은 고려 중기의 지배세력인 문벌귀족(문벌)에 대한 설명이다.</p> <p>③ 고려 후기의 지배세력인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이다.</p>

### 세부 주제 2 목종 ~ 예종

문제	정답	해설
1	④	<p>김위제는 고려 중기의 술가(術家)로 숙종 때 『도선기(道說記)』, 『삼각산명당기(三角山明堂記)』 등 도선의 도참설(圖讖說)을 바탕으로 남경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주장하였던 인물이다. 제시된 글의 내용 중 고려 땅의 세 개의 수도에서 (가)가 개경임을 유추할 수 있다. ④ 고려 현종 때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수도인 개경의 방어를 위하여 쌓은 성으로 강감찬이 제의로 1009년부터 1029년까지 21년동안 도시를 둘러싸는 공사가 진행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견훤이 국도로 삼은 곳은 무진주로 오늘날의 전주이다. ② 묘청이 천도를 주장하고 실패하자 대위국을 수립한 곳은 서경(평양)이다. ③ 망이·망소이의 난이 일어난 곳은 공주 명학소이다.</p>
2	③	<p>해설) 제시된 왕은 태조 왕건과 김억렴의 손자,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 등으로 고려 현종임을 알 수 있다. ㉠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으로 왕조실록이 소실되자 태조부터 바로 직전의 목종 때까지의 7대 임금의 실록을 다시 간행하였다. ㉡ 1018년 현종 때 강감찬은 거란의 3차 침입을 귀주에서 막아냈다.</p> <p>오답정리) ㉢ 1104년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 설치되었다. ㉣ 고려 예종 때 설치되었다.</p>
3	②	<p>목종의 모후(母后)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어지러운 고려 왕실을 바로잡고자 정변을 일으키어, 목종을 폐하고 현종(1010~1031)을 즉위시켰다. ② 예종(1105~1122) 대에 이자겸의 인주 이씨 세도 정치가 심화되어 농민들의 유망이 심하였다. 그리하여 외관이 파견되지 않던 속군현인 유주, 안악, 장연에 외관인 감무를 처음 파견하여 안무케 하였고, 효과를 보자 우봉·파평 등의 24개 지역에도 감무관을 파견하였다.(1106)</p> <p>&lt;선지분석&gt; ①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실록을 다시 편찬하기 시작하여,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이 덕종 때 완성되었으며(황주량</p>

		<p>편, 1013~1034),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려고 대장경을 조판을 시작하였다.(초조대장경, 1011~1087) ② 현종은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현화사를 창건하여(1018) 왕실의 각종 법회를 열었다. ④ 외침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체제 정비에 힘을 써, 전국에 4도호부 8목과 56지주군사(知州郡事)를 두고, 수도와 경기를 함께 다스리던 개성부(장관 :개성 부윤)를 경중(京中:경관) 5부와 경기(외관)로 구획하며 어느 정도 지방제도를 완비하였다.(1018) 그러나 문종 16년(1062)에 다시 개성부를 두어 지방관인 지개성부사가 왕경과 경기를 다스리도록 일원화하였다.</p>
4	③	<p>고려 시대에는 유교, 불교와 함께 도교도 성행하였다.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7년(924)에 수도인 개경에다 초성처(도교기관)의 하나인 구요당을 창건한 이후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예종 10년(1115)에는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원이 처음 건립되었고, 이곳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늘과 별들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가 개최되었다. ③ 문종(1046~1083) 대를 전후하여 복진 정책의 퇴조와 함께 새로이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자 김위제의 건의로 숙종 대에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궁궐을 지어 왕이 머무르기도 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예종(1105~1122) 대에 이자겸의 경원(인주) 이씨 세도 정치가 심화되어 농민들의 유망이 심하였다. 그리하여 외관이 파견되지 않던 속군현인 유주, 안악, 장연에 외관인 감무를 처음 파견하였고, 효과를 보자 우봉·파평 등의 24개 지역에도 감무관을 파견하였다.(1106)</p> <p>② 예종(1105~1122) 때에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유학 6재와 무학재를 포함한 관학 7재를 설치하여 문무 양반의 관료 양성을 도모하였다.(1109) ④ 여진 정벌을 위해 숙종(1095~1105) 때에 별무반을 설치하여(1104), 예종 대에 윤관을 원수로 하여 여진 정벌을 단행하여 동북 9성을 쌓았다.(1107)</p>
5	③	<p>최충 등과 함께 고려 중기의 전성기를 이끈 국왕은 문종이다. 문종은 경정 전시과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과전의 지급량을 줄였으나, 무신의 수조지는 향상하였고, 공음전을 신설하여 문벌귀족의 특권을 보장하였다.</p> <p>① 성종, ② 정종, ④ 경종 때의 일이다.</p>
6	①	<p>(가) 시정전시과(경종), (나) 목종, (다) 고려 중기의 정종, (라) 선종이다. 따라서 태혜정광경(성)(목)현덕정(문)순(선)의 순서가 되겠다. 잘 풀려면 고려의 왕을 외워버리는 것이 편하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서 기억하면 편하다.</p>
7	③	<p>숙종은 동생인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화폐를 주조하였고, 별무반을 창설하여 여진 공격을 준비하였다.</p> <p>‘가’는 광종, ‘라’는 성종, ‘마’는 원종이다.</p>
8	①	<p>사료에 나와 있는 (가)왕은 이자겸의 정치적 간섭을 받은 ‘어린 왕’(인종)의 직전 왕이므로 예종이다. 예종은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문벌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세력인 한안인을 중용하였고, 도교를 장려하여 복원궁이라는</p>



		<p>도교 사원을 건립하였다.</p> <p>② 속종, ③ 인종, ④ 현종이다.</p>
9	①	<p>인종은 이자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지상 등의 서경 출신 신진 세력을 육성하였다.</p> <p>② 인종 때의 일은 맞으나, 이자겸 세력의 견제와는 무관한 정책이다.</p> <p>③ 묘청이 인종의 뜻을 오판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인종은 모히려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하였다.</p> <p>④ 인종 초기에 이루어진 일은 맞으나, 인종이 아무런 실권도 없는 어렸을 때 이자겸 등이 주도한 일이다.</p>

세부 주제 3 인종

문제	정답	해설
1	③	<p>해설) ① 묘청의 난은 고려 중기 권력을 장악한 문벌귀족 내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분열로 볼 수 있다. ② 묘청의 난은 풍수지리설을 결부시켜 서경을 강조하고 자주적 전통사상을 강조한 서경파와 사대적 유교 정치사상의 개경파의 충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신재호는 ‘… 낭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 …’라고 서술하면서 일천년래 조선의 제일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⑤ 묘청은 서경을 중심으로 대위국을 수립하고 저항하였지만 패배하게 되면서 서경파는 몰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행정 권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던 분사제도는 폐지되고 서경의 위상은 격하되었다.</p> <p>오답정리) ③ 묘청은 여진이 세운 금나라의 압력에 대항하여 공격을 주장하였다.</p>
2	②	<p>해설) 제시된 글에서 백수한, 정지상이라는 이름과 서경에 왕기가 있으니 왕의 거처를 옮겨 상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임을 알 수 있다. ② 1126년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의 궁궐까지 불타버렸고, 금에 사대를 결정하여 고려의 위상이 떨어진 상황을 극복하고자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 금국을 정벌하고 고려의 위상을 올리자는 서경천도운동이 전개되었다.</p> <p>오답정리) ① 1198년 무신정변의 일이다. ③ 거란의 침입은 1차(993년), 2차(1010년), 3차(1018년)에 발생하였다. ④ 몽골의 침략은 1231년부터 1270년 까지 6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⑤ 흥건적의 난은 고려 말기로 1359년(공민왕 8년)에 고려를 침범하였다.</p>
3	①	<p>해설) ㄱ. 묘청은 개경파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실패하자 서경을 중심으로 대위국을 수립하였고 천개라는 연호를 쓰며 반란을 일으켰다. ㄷ. 인종에게서 서경천도를 반대하기 위한 (나)의 주장을 펼친 인물은 김부식으로 개경세력을 대표하는 문벌귀족이었다.</p>

		오답정리) 나. 묘청 등의 서경세력은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칭제 건원을 주장하였고, 요나라 정벌이 아닌 금국(여진족)을 정벌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르. 『삼국사기』는 왕명을 받아 김부식이 저술한 역사서로 기전체방식으로 저술되었다.
4	④	해설) ㉠ 금과 군신관계 체결 - 1126년(인종 4년), ㉡ 이자겸 숙청 - 1126년(인종 4년), ㉢ 서경에 대화궁 건립 - 1128년(인종 6년), ㉣ 『삼국사기』 편찬 - 1145년(인종 23년)
5	②	<p>제시된 자료는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1929)에서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의 일천년대 제 1대 사건으로 파악한 부분이다. 따라서 ‘그’는 김부식이다.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1075~1151)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묘청 일파를 진압한 뒤 김부식은 『구삼국사』(고구려 계승 의식과 복진 정책) 역사 의식을 전환하면서 자아의식과 현실비판의 수단으로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p> <p>&lt;선지분석&gt; ① 이제현은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사략을 저술하였다. ③ 일연은 삼국유사(1281)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였다. ④ 이규보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인 동명왕편(1193)을 저술하였다.</p>
6	③	<p>사료의 (가)는 이자겸이다. 이자겸은 왕실과의 혼인을 독점한 경원 이씨 가문의 사람이다. 자신을 견제하는 인종을 제압하기 위해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으나, 척준경의 배신으로 실패하게 되었다.</p> <p>③ 정지상을 시켜 척준경을 숙청한 주도자는 인종이다.</p>
7	③	<p>사료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신채호의 &lt;조선사연구초&gt;의 일부이다. 신채호는 묘청의 운동이 실패하게 되면서, 우리 역사가 패배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가)는 인종, (나)는 묘청, (다)는 김부식이다.</p> <p>③ 김부식이 대표 저술한 &lt;삼국사기&gt;는 기전체 역사서이다.</p>
8	①	이 작품은 서경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정지상의 작품이다. 정지상 등의 서경파는 서경천도와 칭제건원, 금나라 정벌 등을 주장하였다.

## 주제 13 고려 후기

### 세부 주제 1 무신정권

문제	정답	해설
1	㉓	<p>해설) ㉓ 신라의 김생, 고려의 유신, 탄연과 함께 신품사현(神品四賢)으로 불렸던 인물은 무신집권기의 최우이다. 최우는 최충헌의 아들로 도방(=경호기구)을 확대하고 삼별초를 조직하였으며, 정방이라는 인사기구를 자기 집의 앞마당에 설치하고 서방이라는 문신등용기구도 만들었다.</p> <p>오답정리) ㉑ 몽골의 침략에 대비한 대장경은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이다. ㉒ 박인량과 김근의 시는 문종 34년(1080) 송나라에 널리 알려져 『소화집』이라는 시집으로 간행되었다. ㉔ 봉사 10조는 최충헌이 올린 내용이다.</p>
2	㉓	<p>해설) 제시된 표는 무신정권기 집권자들의 시기를 구분하여 놓은 것으로 ㉑은 경대승, ㉒은 이익민, ㉔은 최충헌, ㉕은 최우에 대한 내용이다. ㉓ 최충헌의 사노비였던 만적은 1198년 주변의 노비들을 모아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하려다 실패하였다.</p> <p>오답정리) ㉑, ㉒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치안 유지를 위하여 삼별초를 조직한 것은 최우 때의 일이다. ㉔ 1176년에 발생한 농민봉기이다.</p>
3	㉕	<p>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중 봉기를 막으려고 고향을 현으로 승격 시켜주었다는 표현을 바탕으로 현보다 아래의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어난 반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무신집권기 공주 명학소에서 벌어진 망이·망소이의 난을 유추할 수 있다. ㉕ 고려시대 남부지방에서 벌어진 반란을 남적이라고 불렀으며, 망이·망소이는 공주에서 시작하여 아산을 점령하고 청주지역까지 진격하였으나 토벌군의 공격으로 진압되었다.</p> <p>오답정리) ㉑ 정중부 집권기인 1176년(명종 6년)에 일어났다. 최충헌 집권기의 봉기로는 만적의 봉기를 볼 수 있다. ㉒ 최충헌 집의 가노였던 만적의 봉기에 대한 설명이다. ㉓ 1193년(명종 23년)에 일어난 김사미·효심의 난이다. ㉔ 조위총의 난은 1174년(명종 4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서경유수 조위총이 무신정권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이다. 3년 동안 평양을 중심으로 항전하였기에 망이·망소이의 난과 시기상으로 겹치긴 하지만 연관되지 않았다.</p>
4	㉒	<p>해설) 제시된 글은 최충헌의 봉사 10조로 1196년 명종 때 이익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고 난 뒤, 무신 정권 초기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글이다. ㉒ 1241년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저술하였다.</p> <p>오답정리) ㉑ 983년 고려 성종 때이다. ㉓ 12세기 초 고려 예종(재위 1106~1122년) 때이다. ㉔ 고려 태조(재위 918년~943년) 때이다. ㉕ 조선시대에 들어 향·부곡·소가 일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다.</p>

5	①	<p>무신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로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무신정변(1170)이 발발하여 의종이 폐위되고 무신들에 의해 즉위한 명종은 실권없이 지내자, 문신 출신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은 정중부, 이익방 정권을 타도하고 폐위된 의종을 복위시키고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1173). 서경 유수 조위총 역시 무신정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중부·이익방을 타도하여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거병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1174~1176, 1179년 재봉기) 이 때에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 정중부 집권기 때,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1176)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 경대승 집권기 때에는 주현군의 병사인 죽동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관노 및 지역의 주민이 가세해 일어나 항쟁한 전주 관노의 난(1182)이 있었고, ㉢ 경주 주변 지역인 운문(청도), 초전(울산)에서는 김사미와 효심이 주도하여 봉기하였다.(1193) 잔여 세력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표방한 동경 대반란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신라 부흥 운동이 최충헌 집권기에 있었던 이비·패좌의 난이다. ㉣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1198) 봉기를 일으킨 이들은 지방관의 탐학을 국가에 호소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최충헌 집권기 때에는 이비·패좌의 난과 같은 신라 부흥 운동·고구려 부흥 운동(1217, 최광수의 난)이 있었고, ㉤ 최우 집권기 때는 백제 부흥 운동(1237, 이연년 형제의 난) 같이 왕조 질서를 부정하기도 하였다.</p>
6	②	<p>무신집권자의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 최우까지는 꼭 기억하자. “군대 장교인 내 친구들의 이름은 방정민, 경현우입니다!”</p>
7	③	<p>무신집권기에 일어난 각종 봉기를 3등분해서 파악하면 된다. 1기(무신정권 초기의 반 무신봉기) : 김보당 → 조위총 &amp; 귀법사 교종 승려) 2기(최충헌 이전의 민중봉기) : 망이·망소이 → 전주 관노 → 김사미·효심) 3기(최씨 정권기) : 만적(최충헌) → 최광수(최충헌) → 이연년 형제(최우)</p>
8	③	<p>사료는 최충헌이 국왕에게 제출한 봉사 10조이다. 물론, 최충헌은 자신이 제출한 개혁안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최충헌은 흥녕부를 세우고 진주 지방의 막대한 토지를 식읍으로 차지하였다. ① 최우, ② 경대승, ④ 최우이다.</p>
9	①	<p>(나)는 최우, (가)는 최우를 신평4현으로 치켜세워 준 이규보이다. 이규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엿보인 동명왕편을 저술하였다. ① 동명왕편에는 단군이야기가 없다.</p>

10	④	무신집권기 초기(최충헌 집권 이전)의 고려 국왕은 명종이다. 경주가 고향인 이의민은 신라 부흥 운동을 표방한 김사미·효심의 봉기를 은밀히 지원하였다. ① 최충헌, ② 고종(최우 때 시작, 최항 때 완성), ③ 충렬왕 때의 일이다.
----	---	---

세부 주제 2 원 간섭기

문제	정답	해설
1	④	해설) 제시된 지문의 고려사, 원의 세조, 동성 혼인 금지, 대표적인 권문세족 가문들로 통해 원간섭기임을 알 수 있고 동성 혼인을 금지한 충선왕임을 알 수 있다. 충선왕은 세자시절 아버지인 충렬왕으로부터 선위 받아 즉위하였으나 정방폐지, 권신이 소유한 광대한 토지를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군제 및 세제를 정비하고 원나라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부인인 제국공주와의 불화, 나라 사신에게 국새(國璽)를 빼앗기는 사태로 다시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고 충선왕은 원나라로 소환되었다. 원의 성종이 죽고 황위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승자가 된 무종을 도운 공으로 1308년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졌고, 같은 해에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복위 후 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 등용과 공신 자제의 중용, 농·잠업의 장려, 동성결혼의 금지, 귀족의 횡포 억제, 각염법 제정 등 과단성 있는 혁신정치를 단행하였다. 1313년 아들 충숙왕에게 전위하고 연경에 머물러 만권당을 지은 뒤 내외의 고금서적을 수집하였으며, 이제현·조맹부 등 대학자를 초빙하여 고전 연구에 몰두하였다.
2	①	해설) 제시된 자료의 (가)는 1270년(원종 11년) 삼별초의 항쟁이고, (나)는 1356년(공민왕 5년) 쌍성총관부 수복에 관한 내용으로 원 간섭기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을 묻는 문제이다. ㄱ. 1275년(충렬왕 1년) 원의 간섭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6부는 4사로 관제가 격하되었다. ㄴ. 1309년(충선왕 1년) 나라의 수입을 늘리고 문란한 염정을 바로잡고자, 권세가들이 소유하던 염분(鹽盆)을 국유화한 각염법(소금 전매제)을 시행하였다. 오답정리 ㄷ. 예안 향약은 1556년(명종 11년) 이황이 경북 안동 예안지방에서 시행하기 위해 만든 향약이다. ㄹ. 백련결사 운동은 1163년(의종 17년) 천태종 승려인 요세(了世)에 의해 전개되었다.
3	③	원 간섭기 초기 원이 고려를 지배하는 방식과 관련해 원세조 즉위 전 쿠빌라이와 원종이 세자 신분으로 1259년(고종 46년)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불개토풍(不改土風)'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고려의 강인한 대몽항쟁과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Arikbukha) 사이에 벌어진 원 황위계승 분쟁을 적절히 이용한 외교의 결과 원으로부터 얻어낸 것이었다. 이후 1278년 충렬왕과 세조 사이에 다시 이 원칙이 재확인되어 고려가 독립국을 유지하고 고려 내에서 국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을 보장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국왕에 대한 임면권을 원이 확보하여 고려를 제어하는 불완전한 자주국이 되었다. 원종 11년 개경 환도(1270) 이후 원의 간섭이 시작이 되었다. 또한 2

		차례(1274, 1281) 일본 원정에 고려군이 동원되었으나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은 실패하였고, 오히려 담당기구인 정동행성(1280)이 원의 내정 간섭기관이 되었다. 동녕부(1290), 탐라총관부(1284, 1301)가 설치되어 고려 영토를 잠식하였다. 충선왕(1298, 1308~1313)은 즉위년(1298)에 최우 무인정권 이래 인사를 관장했던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여 반권문세족적인 개혁정치를 수행하였으나, 아버지 충렬왕과 부원 세력과의 권력투쟁으로 퇴위와 복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흐지부지되었다. ③ 몽골의 6차 침입(1254~1259) 중에 조휘, 탁청 등의 반역을 계기로 동계의 화주 이복 15주가 이탈하여 1258년 몽골에 의해 쌍성총관부가 성립되었다.
4	②	(가)는 충렬왕, (나)는 원종, (다)는 충혜왕 때의 일이다.
5	②	사료는 충렬왕 때 공식적인 부인 여럿을 두자고 제안한 박유의 건의이다. 박유의 이러한 건의는 여성들의 엄청난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당연히 일부다처제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는 왕을 제외한 남성은 원칙적으로 일부일처제였다. 물론, 상당수의 남자들이 첩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법적인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와는 다른 것이다. ② 고려 중기 예종 때의 일이다.(단, 국학으로 개칭한 것에 대해 단순히 보편적인 명칭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6	③	그림은 원 간섭기에 제작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 ③ 원의 역법은 수시력이었다. 선명력은 원 간섭기 이전까지 사용한 당의 역법이다.

## 주제 14 고려 말기

### 세부 주제 1 공민왕

문제	정답	해설
1	①	<p>해설) 제시된 글은 공민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토지를 소유했던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고 재정을 늘리기 위하여 신돈을 등용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로 임명하여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던 내용이다. 이를 통해 권세가는 고려 말 친원적 성격을 바탕으로 대지주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권문세족임을 알 수 있다.</p> <p>오답정리) ② 조선 시대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김종서, 황보인 등의 신하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③ 고려 말 권문세족에 대항하였던 중소지주 출신인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이다. ④ 향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던 세력은 조선 시대 향촌 사회의 사족에 관한 설명이다.</p>
2	④	<p>해설) 제시된 글에 신돈에게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와 토지들을 돌려주는 개혁을 실시한 것으로 고려 말기 공민왕임을 알 수 있다. ① 공민왕은 1356년 반원정책의 일환으로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② 공민왕은 1352년 몽골풍속을 금지하였다. ③ 공민왕은 1356년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다.</p> <p>오답정리) ④ 공민왕은 1352년 정방을 폐지하고 신진사대부를 적극적으로 중용하였다.</p>
3	①	<p>해설) 제시된 글에서 변발과 호복을 입은 왕으로 고려 시대 원 간섭기임을 알 수 있고, 이연종이 변발과 호복을 금지하는 건의로 1352년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몽골 풍속을 금지한 공민왕임을 알 수 있다. ① 공민왕은 성균관을 개편하고 정방을 폐지하여 성리학을 기반으로하는 신진사대부들을 적극적으로 중용하였다.</p> <p>오답정리) ② 고려 전기인 문종 때(11세기)의 내용이다. ③ 12세기 대몽항쟁기에 상감청자가 크게 유행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다. ⑤ 대몽항쟁기인 1234년에 간행되었다.(현전하지 않음)</p>
4	②	<p>1351년 즉위한 공민왕은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오랫동안 안행해왔던 변발과 호복을 풀어 반원자주정치를 표방하였다. ② 공민왕은 1356년 기철을 제거한 직후 정동행성의 사법기구로서 부 원세력의 권력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였고, 요동 지역의 친원 잔존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요동 지역을 1369년과 1370년 두 차례에 걸쳐 공략하였다.</p> <p>선지분석</p> <p>① 장례원은 노비의 장적과 노비 소송을 담당하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조선 세조 때 설치되었다.</p> <p>③ 『동국병감』은 조선 문종 때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병법서였다.</p>

		④ 과전법은 1391년 공양왕 때 실시되었다.
5	①	명의 철령위 통보는 1387년, 위화도 회군은 1388년, 조선건국은 1392년,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태종 즉위는 1400년이다. ① 1351년 즉위하여 과감한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던 공민왕은 흥왕사의 변(1363년 김용 등의 친원 권문세족들이 공민왕 시해 도모하다 최영, 안우경 등에 의해 격퇴된 사건)을 계기로 무당무색의 승려 출신 신돈을 등용되었다.(1365)
6	②	지도는 공민왕이 원의 간섭을 물리치고 확장한 영토를 나타낸다. 공민왕은 관제를 복구하고 인사기관인 정방을 폐지하였다. ① 충렬왕, ③ 예종(동북 9성), ④ 거란은 몽골에게 예전에 망했다.
7	③	노국대장공주와 결혼한 고려의 왕은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흥건적의 침공으로 잠시 거처를 복주(안동)로 옮겼었다.
8	④	이색을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임명하고 신진사대부를 육성한 군주는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명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 공민왕이 원의 관제를 폐지한 것은 사실이나, 제국(칭제건원)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국내외에 제국을 선포한 국가는 대한제국(1897~1910)이다.

세부 주제 2 우왕 ~ 공양왕

문제	정답	해설
1	①	흥건적의 침공(1360)은 공민왕 때 있었던 사실이다. 그 다음 왕인 우왕 때 왜구의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고, 이를 격퇴한 것이 최무선의 진포해전(1380)이다. 선지분석 ② 대몽항쟁기의 일이다. ③ 공민왕 집권 초기(1356년)에 이루어졌다. ④ 대몽항쟁기의 일이다.
2	②	고려 말 우왕 대에 최무선이 끈질긴 노력을 하여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자, 정부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1377),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고,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② 고려 말 우왕 대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1377)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선지분석> ① 고려 예종 10년(1115)에는 복원궁(福原宮)이라는 도교 사원이 처음 건립되었고, 이곳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늘과 별들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가 개최되었다. ③ 고려 중기 선종(1083~1095) 대에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고려는 물론이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이른바 속장경이라고 불리우는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흥왕사에 교장도감(1086)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숙종 대까지)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1091~1101) ④ 고려 초 성종(981~997) 때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p>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982)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p>
3	①	<p>제시된 글에서 그는 성균관에서 강론, 친원외교를 비난하고 나주로 유배, 조선왕조의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였다는 표현으로 정도전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① 정도전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확립시켰고 불교를 비판하기 위하여 『불씨잡변』을 저술하였다. &lt;선지분석&gt; ② 이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③ 1413년 조선 태종 때 하륜 등에 의해 편찬되었다. ④ 1390년 고려 공양왕 때 권근이 편찬하였다.</p>
4	①	<p>제시된 &lt;보기&gt;에서 고려 시대에 운봉(남원)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를 바탕으로 1380년 이성계가 이끈 고려군이 왜구를 섬멸하였던 황산전투이며, 제시된 밑줄 친 ‘살아 도망간 자’는 왜구임을 알 수 있다. ① 정세운, 이방실, 김득배는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개경을 수복하였다. 평소 정세운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용은 왕지(王旨)를 조작하여 정세운을 죽이게 하였고, 이후 이방실, 김득배도 살해하였다. 개경으로 환도하고 난 뒤 흥왕사에 머무르던 공민왕을 부원세력과 결탁한 김용이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는 흥왕사의 변(1363년)이 일어났다. &lt;선지분석&gt; ② 왜구는 조운선 약탈을 일삼았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1354년 전라도 조운선 40여척이, 1355년 전라도 조운선 200여척이 약탈당하였다는 기록 등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이로써 조운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국가의 재정 수입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③ 1389년 창왕 때 박위를 보내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토벌하였고, 이로 인하여 왜구의 활동이 줄어들었다. ④ 고려 후기 왜구의 침입이 수도인 개경 주변의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천도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p>
5	③	<p>제시된 글에서 우와 창이 왕씨가 아니라는 내용과 정창군 왕요(공양왕)를 왕으로 세운다는 내용으로 고려 말기 공양왕을 추대한 혁명파 사대부임을 알 수 있다. ㄷ. 혁명파 사대부들은 1391년 과전법을 제정하여 신진 관료층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ㄹ. 삼군도총제부는 1391년 설치된 군령 기관으로 이성계가 삼군도총제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다. &lt;선지분석&gt; ㄱ. 혁명파 사대부인 정도전은 재상중심의 신권정치를 추구하였다. ㄴ. 윤소종은 혁명파 사대부로 위화도 회군에서 돌아오는 이성계를 맞이하였고, 과전법을 제정하는데도 참여하였으며, 조선 개국 이후 원종공신이 되었던 인물이다. 이색과 정몽주는 대표적인 온건파 사대부이다.</p>

6	④	<p>제시된 표는 고려의 무신정권 시기 이후부터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시기의 연도들을 확인해 보면 무신정변(1170년), 강화 천도(1232년), 개경 환도(1270년), 위화도 회군(1388년), 조선 건국(1392년)이다. ④ 과전법은 1391년(공양왕 3년)에 제정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정동행성은 1280년(충렬왕 6년)에 설치되었다. ②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③ 묘청은 1128년(인종 6년)에 처음으로 서경 천도를 제기하였다.</p>
7	②	<p>박위가 쓰시마 원정을 떠난 시기는 창왕 때이다.</p>
8	②	<p>창왕 때의 쓰시마 정벌은 박위, 세종 때의 쓰시마 정벌은 이종무이다.</p>
9	③	<p>(다)시기는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이 폐위되고 세종 1년에 이루어진 대마도 정벌 때까지의 기간이다.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전제개혁(과전법)으로 조선 건국의 명분을 확보하고, 신진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p> <p>① 자비령 이북의 땅은 동녕부이다. 동녕부는 흥건적의 침공(공민왕) 이전인 충렬왕 때 회복하였다.</p> <p>② 공민왕 때 요동 정벌이 단행되어 일시적으로 요양을 점령하였다. 화통도감의 설치는 우왕 때 이루어졌으므로 ②번의 내용은 (가)에 들어가야 한다.</p> <p>④ 사화는 16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6진의 설치는 세종 때 이루어졌다.</p>
10	①	<p>(가)는 철령, (나)는 요동이다. 명이 철령 이북의 땅(옛 쌍성총관부, 현재의 함경도)을 요구하자, 분노한 최영은 요동 정벌을 시도하였다.</p> <p>① 강동 6주는 압록강 유역(오늘날의 평안북도)이다.</p>
11	①	<p>우왕 ~ 창왕 시기에 이루어진 왜구 격퇴 순서는 다음과 같다.</p> <p>홍산(최영, 부여) → 진포(최무선, 군산) → 황산(이성계, 남원 운봉) → 관음포(정지, 남해) → 쓰시마(박위, 창왕 시기), 결론은 흥진황관쓰!</p>
12	①	<p>정몽주와 관련한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방원의 하여가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화답하였다고 한다. 정몽주와 같은 온건파 사대부로는 이색, 이숭인 등이 있다.</p> <p>② 급진파 사대부, ③ 박기훈이 좋아하는 선배 강사, ④ 급진파 사대부이다.</p>

## 주제 15 고려의 대외관계

### 세부 주제 1 송, 거란(요), 여진(금)

문제	정답	해설
1	③	<p>별무반은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항마군(승병)으로 구성되었다. ③ 신의군은 삼별초 중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이다.</p>
2	②	<p>(가) 993년(성종 12년) 거란의 소손녕이 침략해 오자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물리치고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나) 1018년(현종 9년) 거란의 소배압이 10만 대군으로 침입하였고, 귀주에서 승리하였다. (라) 1033년(덕종 2년) 거란 및 북방민족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다.</p> <p>&lt;선지분석&gt; (다) 1104년(숙종 9년) 여진정벌을 위하여 윤관에 건의에 따라 별무반이 설치되었다. (마) 1107년(예종 2년)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지역에 9성을 쌓았다. (바) 1232년(고종 19년)의 몽골 2차 침입시기에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전사시키는 승리를 거두었다.</p>
3	③	<p>외왕내제(外王內帝)란 외부적으로는 왕을 칭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을 칭하는 이중적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체제는 황제국을 지향하며 자주성을 강조하지만, 외부적인 관계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고려는 광종 때 수도였던 개경을 황도로 높여 부르고, 서경을 제2의 수도로 승격시켜 서도라 칭하였다. 고려는 초창기부터 임금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은 짐, 임금의 명령은 조서, 임금의 호칭은 폐하, 임금의 아들은 태자로 정하는 등 황제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 뿐만 아니라, 묘호와 연호를 사용하며 고려가 천하의 중심임을 선포했다.</p> <p>&lt;선지분석&gt; ① 남송의 연려제금책(聯麗制金策)은 고려와 연합하여 금나라를 제어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② 광종은 후주의 사신 설문우를 따라 고려에 와서 병으로 머무르다 귀화한 쌍기를 중용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④ 원효가 저술한 『기신론소(대승기신론소)』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1,000여 권의 주석서 중 최고로 꼽히며 당시 동아시아 불교학계에 《해동소》라는 이름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당나라 시대 불교이론의 대가인 법장(法藏)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승기신론의기』를 저술하였고, 이후 요나라에서 출간되기도 하였다.</p>
4	③	<p>서희는 거란 1차 침입(성종, 993) 당시에 거란의 소손녕과 외교 담판에 나서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설치하였고, 이후 예종 때 여진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으나, 1년만에 여진의 요청으로 반환하였다. ② 고려 국왕의 입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강동 6주 반환을 거부하자 거란 장수 소배압이 10만 대군으로 침입하였다.(거란 3차 침입) 이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 군대에 대승을 거두었다. ④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고려와 송, 거란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으나, 압록강~도련포에 이르</p>

		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여 북방의 여진과 거란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덕종~정종)
5	②	(가)는 거란의 3차 침입을 격퇴한 귀주대첩(현종, 1019), (나)는 여진의 간청으로 축조한 동북 9성을 1년 만에 다시 돌려주는 내용의 사료이다.(예종, 1109) ② 별무반은 윤관의 건의에 따라 기병을 보강한 특수 부대로 숙종 때인 1104년에 창설되었다. <선지분석> ① 발해 멸망은 926년(고려 태조) ③ 쌍성총관부의 수복은 1356년(공민왕) ④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1135년(인종)에 일어났다.
6	④	사료는 거란의 1차 침공 때 서희가 거란에게 주장한 내용의 일부이다. 거란은 고려의 북진정책을 경계하였고, 서희는 이러한 거란을 안심시키는 대신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확고하게 주장하였다.
7	①	사료는 거란의 2차 침공으로 적의 포로가 된 강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강조는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하였다. 거란은 이를 핑계로 2차 침공을 감행하였고,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은 대패하였다. 거란 황제의 회유에도 신념을 지킨 강조는 적지에서 순국하였다.
8	②	(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나온 고려 인종 때의 사대주의, (나)는 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의 사대요구를 거절하는 조선 인조 때의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가)의 입장을 정의하면 실리적 사대주의, 형세적 사대주의, 형식적 사대주의이고, (나)의 입장을 정의하면 명분론적 사대주의, 화이론적 사대주의가 되겠다.
9	④	사료는 거란의 1차 침공 때 서희가 성종을 설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희는 거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이에 외교담판을 주도하였다. ① 여진, ② 몽골, ③ 명나라이다.
10	③	사료는 윤관이 숙종에게 별무반의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윤관과 척준경 등과 함께 별무반을 인솔하여 여진족을 공략하였다.

### 세부 주제 2 몽골

문제	정답	해설
1	②	(나)는 거란의 1차 침입 시기 서희와 소손녕의 외교 담판(993), (가)는 윤관의 별무반 설치(1104), (다)는 최우의 강화도 천도 반대 주장(1232)에 해당한다.
2	①	㉠ 박서의 귀주성 전투(1231) - 최우 정권(몽고의 1차 침입) → ㉡ 상정고금예문(1234) - 무신집권기 최우정권 → ㉢ 원종의 개경 환도(1270) - 무신집권기 붕괴이후 → ㉣ 삼국유사 편찬(1281) - 원 간섭기 충렬왕 → ㉤ 만권당 설치(1314) - 원 간섭기 충선왕 순이다.
3	②	1232년 몽고의 2차 침입시기에 처인성에서 몽고의 총사령관인 살리타를 사

		<p>살한 인물은 승려였던 김윤후였다. 김윤후는 이후 몽고의 5차 침입시기인 1253년 충주의 방호별감으로 파견되어 주민들과 노비 등을 규합하여 70여 일 동안 몽고군의 포위 공격을 막아내 몽고군의 남진을 좌절시키기도 했다.</p> <p>&lt;선지분석&gt; ① 강동성 전투에서 몽고군과 연합하여 거란군을 토벌했던 인물은 김취려이다. ③ 유경과 협력하여 죄의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인물은 김준이다. ④ 삼별초 항쟁을 주도한 인물은 배중손이다.</p>
4	①	<p>‘이번 문서’를 보낸 조직은 ‘삼별초’이다. 1270년 무신정권을 무너뜨린 친몽정권이 개경 환도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반몽 무신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왕족인 승화후 온을 황제로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삼별초 세력은 여몽 연합군의 공세에 밀려 진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고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고려의 정통 정부임을 자처하였다. 제시문은 삼별초 정부에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에 보낸 외교 문서를 정리한 고려척장의 일부 기록이다. ① 삼별초는 최우가 집권하면서 설치한 경찰 조직인 야별초에서 분리된 좌별초, 우별초와 몽고에 포로로 잡혀갔던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② 도방, ③ 광군, ④ 삼별초는 쌍성총관부의 탈환과 관련이 없다.</p>
5	④	<p>(가)는 거란의 요나라, (나)는 여진이 세운 금나라, (다)는 몽골이다.</p> <p>고려는 거란의 3차 침공을 물리친 이후에 유리한 조건에서 거란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물론, 몽골이나 청과의 관계처럼 패배의 결과로 군신관계를 수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사대관계로 인식하기는 어렵다.</p> <p>①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확보한 지역은 압록강 유역이다. 청천강 유역은 태조 왕건 때 이미 진출하였다.</p> <p>② 공민왕이 원(몽골)을 몰아내고 이룬 성과이다.</p> <p>③ 동북 9성은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 있었다.</p>
6	④	<p>① 몽골의 1차 침공 이후에 강화도로 천도하였다.</p> <p>② 강동성의 역은 평양성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다.</p> <p>③ 고려는 몽골과 강화하여 몽골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p> <p>④ 고려 최정예 병력이라 볼 수 있는 최씨 정권의 사병들은 대몽항쟁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는, 몽골의 침공에 고려가 유독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배경 중에 하나이다.</p>
7	④	<p>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개경 환도가 추진되었다.</p>

## 주제 16 조선 초기(15세기)

### 세부 주제 1 태조(정도전)

문제	정답	해설
1	④	<p>말줄 친 ‘그’는 고려 말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인 정도전(1342~1398)으로, 조선 건국 초창기의 문물제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조 때(1394) 한양 천도 후 도성을 쌓고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등을 건설하여 도읍의 기틀을 다졌는데, 이 때 그는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궁·문의 모든 칭호를 정했다. 또한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고,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논파하고 배척을 주장한 『불씨잡변』(1394)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명과의 갈등(표전문 사건의 당사자) 속에 남은(1354~1398) 등과 요동 정벌을 추진하며 세자 방석을 후원하다가, 1차 왕자의 난(1398)에서 이방원에 의해 처형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섬(대마도) 토벌은 고려 말 창왕 때(1389)에 박위의 토벌과, 조선 초 세종 때(1419)에 상왕 태종의 주도하에 이종무의 토벌이 있었다. ② 조선 세종(1418~1450) 때에 설순 등에게 명하여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1431~1434) ③ 조선 세종 때에 여진족을 압록강과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4군(최윤덕, 1443)과 6진(김종서, 1449)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p>
2	①	<p>&lt;보기&gt;의 ‘그’는 정도전이다.</p> <p>① 충선왕 때 원나라에 설치한 만권당에서 학자들과 교류하였던 인물은 이제현이다.</p>
3	②	<p>이방원(태종)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고, 이후 동생(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사람은 정종이다. 정종은 이방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기구였던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하였다.</p>
4	④	<p>(가)는 정도전, (나)는 조준, (다)는 권근이다. 정도전은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으로 제거되었으나, 조준과 권근은 태종을 지지하여 천수를 누렸다.</p>

### 세부 주제 2 태종, 세종

문제	정답	해설
1	①	<p>제시된 (가)의 글은 의정부의 서사를 6조에 귀속시켜 의정부의 권한을 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 태종 때 실시된 6조 직계제임을 알 수 있다. (나)는 6조의 일을 의정부에 올려 가부를 헤아린 후 왕에게 아뢰라는 내용으로 세종 때 실시한 의정부서사제임을 알 수 있다. ①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p>

		<p>였다.</p> <p>&lt;선지분석&gt; ② 조선 태조 시기(1395년)에 제작되었다. ③ 세조 시기(1467년) 제작되었다. ④ 성종 시기(1478년)에 편찬되었다.</p>
2	③	<p>제시된 글에서 6조 직계제 시행 이후 의정부가 유명무실 하고 이에 의정부를 거쳐 임금에게 아뢰라는 말로 의정부서사제임을 알 수 있다. 의정부서사제는 조선 태조 때도 시행되었지만 6조 직계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436년(세종 18년)에 실시된 의정부서사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p> <p>③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칠정산』을 편찬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홍문관 설치와 경연 활성화는 성종에 관한 설명이다. ② 태종에 관한 설명이다. ④ 세조에 대한 설명이다.</p>
3	①	<p>제시된 글에서 의정부의 서사를 6조에 귀속시켜 의정부의 권한을 줄인 것으로 태종이 실시한 6조직계제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①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개인들이 소유한 사병을 혁파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② 세종과 성종 때 의정부서사제가 시행되었다. ③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왕실과 종친들을 등용하였다. ④ 1467년 세조 때 이시애의 난으로 폐지된 유향소는 성종 때 복립되었다.</p>
4	①	<p>제시된 사료는 조선 정종 시기 세자 책봉에 관한 내용으로 왕세자로 동생인(가)를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가)는 태종 이방원임을 알 수 있다. ① 1401년(태종 1년)에 고려 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되던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두는 동시에 문하부의 낭사를 독립시키면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②, ③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 ④ 영조에 대한 설명이다.</p>
5	③	<p>의정부를 무력화하고 왕이 직접 국정을 챙기는 것과 송도(개성) 도읍시절(1398~1405)을 통해서 태종(1400~1418) 때임을 알 수 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고자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직계제를 채택하였으며(1414), 언론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고, 8도 체제를 완성하였다.(1413) 또,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가지고 다녔던 신분 증명패인 호패를 착용케 하는 호패법을 실시하였고,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신문고를 달았으며,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아울러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p> <p>&lt;선지분석&gt; ① 경연은 세조와 연산군 대에 일시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곧 부활하여 존속하였다. ② 세종(1418~1450)은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궁중 안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1420), 집현전 학사를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학문 연구, 사가독서, 경연과 서연 담당) ④ 조선 성종(1469~1494)은 세조 때부터 진행되어온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여 반포함(1485)으로써 이후 조선 사회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p>

6	②	<p>제시문의 밑줄 친 왕은 칠정산을 만들었으므로 세종(1418~1450)이다. 정흠지, 정초, 정인지 등에 의해 편찬된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칠정산 외편)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칠정산 내편)</p> <p>② 세종(1469~1694) 때 문신 강희맹은 네 계절의 농사와 농작물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술한 농서인 『금양잡록』(1492)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당시 경기도 금양(시흥) 일대의 농업 사정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세종은 농업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1429, 정초, 변효문)</p> <p>&lt;선지분석&gt; ① 세종은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구를 발명, 제작하였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혼천의)와 간의(간소화된 혼천의, 각도기)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서울은 서운관(-&gt;관상감)에, 지방은 각 도와 군현의 객사정에 설치하고 수령이 직접 강우량을 측정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③ 세종 때 인쇄 기술도 더욱 발전하여 금속활자로 태종 대의 계미자(1403)를 이어 경자자(1420)를 만들었고, 종전의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대체하여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갑인자, 1434) ④ 세종 때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1433)을 편찬하고, 『의방유취』(1445)라는 의학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p>
7	①	<p>&lt;보기&gt;는 조선 세종에 대한 설명으로 세종 때 관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늘려 주었다. ① 세종 때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시행하는 금부삼복법을 제정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②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한 왕은 태종이다. 세종 때 갑인자를 주조하였다. ③ 진관 체제를 실시한 왕은 세조 때이다. ④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한 왕은 정종 때이다.</p>
8	③	<p>대마도 정벌과 공법(전분 6등과 연분 9등)은 세종대왕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농사직설』은, 우리 풍토에 맞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 때 발간된 농서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 실시되었다. ② 세조 때 함경도에서 일어난 반란이다. ④ 태조 시기의 일이다.</p>
9	④	<p>사료는 문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종은 문무를 겸비한 국왕이었으나, 병으로 일찍 사망하고 말았다. 문종 때,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완성되었다.</p>
10	①	<p>그림은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태종은 민생안정을 위해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였다. ② 정조, ③ 성종, ④ 세조이다.</p>
11	①	<p>지도의 (가)와 (나)는 세종 때 개척한 4군과 6진이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였다.</p> <p>② 공민왕, ③ 성종, ④ 우왕(최영 장군이 주도)이다.</p>
12	④	<p>헌릉은 태종의 무덤이다. 헌릉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p>



		자의 난으로 즉위하였고,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는 것에서 태종을 추론해야 한다.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① 성종, ② 세종, ③ 성종이다.
13	④	지도의 A는 세종 때 확정된 조선의 국경, B는 신라 진흥왕이 확보했던 국경, C는 고려의 국경인 천리장성, D는 태조 왕건 때 확보한 국경이다.

세부 주제 3 세조, 성종

문제	정답	해설
1	④	제시된 글의 어린 상왕, 의정부를 대신하여 6조가 직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조선 세조 때 6조직계제가 부활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다. ④ 세조는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경연을 폐지하였고, 과전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선지분석> ① 인조에 관한 내용이다. 인조는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시행하였고, 호패법을 강화하여 실시하였다. ②, ⑤ 세종 때의 상황이다. ③ 성종 때의 상황이다.
2	④	<보기>의 자료는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선지분석> ④ 『국조오례의』는 성종 때 편찬되었다. ① 『동국병감』은 문종 때 편찬된 병서로 고조선에서 고려 말 까지 전쟁사를 정리하였다. ②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가 저술하였다. ③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편찬되었다.
3	②	성종은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여러 의례를 정비하여 의례서인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선지분석> ① 중종, ③ 세종, ④ 태조 때이다.
4	①	계바 윤씨를 사사했다는 내용과 재가녀 자손의 관리 등용을 제한한다는 법을 통해 성종임을 알 수 있다. ① 세조이다.
5	②	서거정이 편찬한 동문선의 서문이다. 동문선을 성종 때 편찬된 책이다. ② 세조 때의 일이다.
6	④	(가)는 김종서, (나)는 신숙주이다. ④ 성삼문과 김시습은 세조(수양대군)가 주도한 정변(계유정난)을 반역으로 인식하였다.
7	④	함경도에서 일어난 이징옥의 난을 빌미로, 세조는 향촌자치기구인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이징옥의 난은 함경도에서 일어났다.
8	④	음서로 관직에 나갔으니 고위 관료의 자손일 것이고, 과거에 합격하였기에 고관대작을 역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음서로 관직에 나갈 수는 있었으나, 고위 관직으로 승진하려면 과거에 합격해야 했다. 제시문의 인물은 단종 때 피살되었으니,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문종 시기에는 의정부 서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주제 17 조선 중기(16세기)

### 세부 주제 1 연산군, 중종(조광조), 명종

문제	정답	해설
1	㉓	㉠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1498년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이다. ㉡ 생모 윤씨의 사사사건으로 연산군이 숙청하였다는 내용으로 1504년 연산군 때 갑자사화이다. ㉢ 위훈삭제 사건으로 조광조 등이 축출되었다는 내용으로 1519년 중종 때 기묘사화이다. ㉣ 중종의 두 이복왕자들의 외척간의 갈등이 나타났다는 내용으로 1545년 명종 때 을사사화이다.
2	㉓	ㄱ. 무오사화, ㄴ. 기묘사화, ㄷ. 을사사화에 대한 내용이다. 사화는 거의 대부분이 훈구파가 사림파를 공격하는 이야기이지만 16세기 중엽이 되면 지방으로 쫓겨 갔던 지방 양반들이 향약과 서원을 형성하면서 농촌 사회의 안정과 발달을 가져오게 되자 사림파는 지배층으로 고착화되고 훈구파는 몰락하게 된다. <선지분석> ㉠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무오사화로, 사화란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은 훈구세력이 강조하는 사항이다. ㉢ 동인과 서인의 봉당 출현은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벌이는 선조 때 일어난 일이다.
3	㉠	제시된 글의 내용 중 거짓으로 공신이 된 이들을 공신록에서 삭제하자는 글로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 정치중 하나인 위훈삭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왕은 중종이다. ㉠ 중종은 조광조를 등용하여 현량과 실시, 소격서 혁파 등의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다. <선지분석> ㉡ 김종직이 저술한 조의제문으로 발생한 사화는 무오사화로 연산군 때의 사건이다. ㉢ 효종의 죽음과 효종비의 죽음으로 발생한 예송 논쟁은 조선 후기 현종 때의 사건이다. ㉣ 환국정치가 나타난 시기는 숙종 때이다.
4	㉣	제시된 인물들은 조선 전기 사림 세력이다. ㉣ 사림세력은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지방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시대 향촌 교화를 위해 열린 행사인 향사례와 향교·서원 등에서 학덕과 연륜이 높은이를 모시고 잔치를 하는 향음주례를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향촌의 자치적 구휼제도인 사창제를 강조하였다. <선지분석> ㉠ 대체로 서울에 거주하며 고위 관직을 독점하던 세력은 훈구 세력이다. ㉡ 훈구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지향하였고 사림은 향촌 자치를 지향하였다. ㉢ 고려 말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신이 된 세력은 훈구 세력이다.
5	㉠	제시된 글에 명시된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1498년 발생한 무오사화임을 알 수 있다. ㉠ 김일손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중국 초나라의 의제와 항우에 비유하여 「조의제문」을 저술하였고 이를 사초에 실어둔 것을 유자광의 고변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선지분석> ㉡ 명종 때의 을사사화(1545년)에 대한 설명이다. ㉢, ㉣ 중종

		<p>때 기묘사화(1519년)에 대한 설명이다. ⑤ 동인의 분열은 선조 때 발생한 견저 문제(1591년)로 몰락한 서인의 처우 문제로 분당되었다.</p>
6	③	<p>제시된 글에서 정암이란 호와 기묘년부터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선 중종 때 조광조임을 알 수 있다.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할 것, 소학을 널리 장려하여 성리학적 사회 윤리를 확립할 것, 공납 제도를 개혁할 것, 소격서를 혁파할 것, 향약 실시 등의 개혁을 주장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③ 홍문관은 왕의 경연을 담당하고 왕실의 서적을 관리하는 왕의 자문기구로 성종 때 설치되었다.</p>
7	③	<p>(나) 세력은 조선 시대 사림 세력으로 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성리학적 유교 윤리를 강조하며 백성을 교화하고 향촌 자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의 통치에 있어 도덕과 의리를 강조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성리학 이외의 사상과 학문을 배격한 세력은 사림이다. ② 자주적 사관을 가지고 단군을 중시하며 다양한 학문을 인정하고 과학과 실용에 관심을 가진 세력은 훈구이다. ④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나타난 정국은 사화이다.</p>
8	①	<p>사림은 과거 고려 말 도덕과 절의를 중시하는 온건파 사대부 층의 학맥을 계승하고 향촌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방 사족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향촌 자치와 성리학적 왕도 정치(학문과 도덕 정치 중시)를 중시하였고, 15세기 후반 성종 때부터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고, 특히 조광조 등의 기묘 사림들은 자신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하면 훈구 세력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① 지방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자를 산림으로 모시고 이들을 중앙으로 불러 여러 특권을 주었던 시기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인조 이후부터이다. 이런 이유로 재야의 공론을 주도하는 각 봉당의 지도자인 산림의 존재가 격렬한 봉당간의 대립으로 지목한 영조는 이들의 존재와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p>
9	①	<p>조선 세종(1418~1450) 때에는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와 의례에 관한 서적의 편찬 사업이 이루어져 삼강(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과 관련이 있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1431~1434). 또한 오륜 중 연장자와 연소자(장유유서), 친구(붕우유신) 간의 지켜야 할 2가지 윤리를 강조한 책으로 중종 때에 김안국, 조신 등이 『이륜행실도』를 만들었다.(1518) ① 중종 때(1543)에 풍기 군수 주세붕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백운동 서원은, 1550년(명종 5년) 후임 풍기 군수 이황의 건의로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 서원으로 사액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② 김시습(1435~1493)이 지었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1456~1493년 저술 추정)는 만복사저포기(남원), 이생규장전(개성), 취유부벽정기(평양),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경주)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현실적 소재를 통한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하였다. ③ 성종 대(1469~1494)에 노사신을 시키어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1481)을, 신숙주 등에</p>

		게는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1487)를 완성케 하였다. ④ 세종(1418~1450)은 궁중에 집현전을 설치하고(1420) 재주 있는 젊은 학자들을 모아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유교 정치와 민족의 전통 문화를 꽃피웠다.
10	②	임궽정은 명종 때 활약한 황해도 구월산의 도적이다. 연산군 때 홍길동, 숙종 때 장길산과 함께 '도적-왕' 문제 유형의 한 사례이다. 명종 시기는 문정왕후(파평 윤씨)를 비롯한 척신정치가 성행하였으며, 보우를 중심으로 불교 중흥책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선지분석> ① 선조 집권기이다. ③, ④ 중종 때 이다.
11	①	이색은 성균관의 대사성을 역임하면서 많은 신진사대부를 육성하였던 온건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지키려다 선죽교에서 암살당하였다. 길재는 고려의 멸망을 한탄하며 고향인 경상도 선산으로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였고, 이러한 학통을 계승한 집단이 사림이었다. 성종 때 중앙 관직에 최초로 진출한 사람으로는 김종직이 있다.
12	①	동국병감은 문종 때 편찬되었다. (나)는 연산군, (다)는 명종, (라)는 선조 때의 일이다.
13	①	(갑)은 사림, (을)은 훈구의 주장이다. 조광조가 이끄는 사림은 소격서 폐지와 소학의 보급을 주장하였다. ②는 훈구, ③④는 사림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세부 주제 2 선조

문제	정답	해설
1	②	“서인인 정철이 주도한 반역 누명 사건의 장본인이 되어 동인의 정치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를 통해 정여립 모반사건임을 알 수 있다.
2	②	정여립 모반사건은 선조 때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선조는 사명대사(유정)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① 인조, ③ 광해군, ④ 인조 때의 일이다.
3	④	태극 모양의 그림과 임금 스스로의 인격 수양을 강조하는 부분을 통해 이황이 저술한 <성학십도>임을 알 수 있다. 이황의 성리학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① 서경덕, 박세당 ② 이이, ③ 조식이다.

### 세부 주제 3 붕당의 형성

문제	정답	해설
1	⑤	김효원, 심의겸 등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붕당정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붕당은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과 이조전랑의 임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	③	이조전랑에 대한 문제이다. 이조전랑은 중하급 관리에 대한 인사권과 후임자 추천권을 지닌 막강한 직책이었다. ① 춘추관의 관원, ② 정승, ④ 관찰사에 대한 설명이다.

3	②	㉠ 서인, ㉡ 동인이다. 서인은 명종 때부터 참여한 기성사림이고, 이이와 성혼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동인은 선조 때 정계에 진출한 신진사림이고, 이황과 조식, 서경덕응 학통을 계승하였다.
---	---	--

## 주제 18 왜란과 호란

### 세부 주제 1 임진왜란

문제	정답	해설
1	㉔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4일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시작되었다. ㄴ. 1592년 4월 29일 신립이 충주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결정하였다. ㄷ. 1592년 7월 한산도에서 적선 115척을 격파하였다. ㄹ. 1592년 10월 진주목사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격돌하여 방어에 성공하였다. ㄱ. 1593년 1월 평양성을 공격하여 수복하였다.
2	㉔	ㄴ. 9서당은 통일 신라의 중앙군으로 687년(신문왕 7년)에 백제의 유민으로 구성된 청금서당(靑衿誓幢)을 조직되어 완성되었다. ㄷ. 별무반은 고려 전기 숙종 때(1104년) 윤관의 건의로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ㄹ. 삼별초의 조직 확대는 1219년(고종 6년) 최씨 무신 정권기의 최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ㄱ. 조선 전기 태종 때 정규군 외에 서리, 잡한인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구성되었다. ㄱ.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년)에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성된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3	㉓	(가)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승리라는 내용으로 1592년 5월 7일에 발생한 옥포해전에 대한 설명이다. (나)는 거북선이 최초로 투입된 1592년 6월 2일 일어난 당포해전이다. (다)는 남해의 재해권을 장악하였다는 설명으로 1592년 7월 8일 일어난 한산도대첩이다. (라)는 이순신이 전사하였다는 내용으로 1598년 11월 19일 벌어진 노량해전임을 알 수 있다.
4	㉔	ㄷ. 1593년 2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ㄴ. 1593년 4월 말에는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고 국왕이 한성으로 복귀하였다. ㄹ. 1597년 7월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천천량에서 일본 수군과 해전을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ㄱ. 1597년 9월 이순신은 명량에서 12척으로 왜군 133척을 대파하였다.
5	㉔	제시된 자료인 『우계집』은 임진왜란 때의 모습을 담은 성혼의 저서이다.
6	㉓	“섬 오랑캐가 침략해왔다.”, “임금께서 의주로 피난하셨으니,” 등의 문장을 통해 임진왜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의 결과 명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하였으며, 일본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ㄱ은 대몽항쟁기, ㄹ은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고 난 이후의 일이다.
7	㉔	“섬 오랑캐”,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가고” 등을 볼 때, 임진왜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의 결과 일본은 새로운 정권(에도막부)이 들어섰다.
8	㉓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끌려간 도공 이삼평에 대한 자료이다. 이 전쟁으로 강항은 일본에 끌려가 이항의 성리학을 일본에 전파하였다. ① 효종or숙종 ② 고려 중기 ④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수가 증가하여 분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양반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였다.

9	③	(가)는 임진왜란의 첫 번째 전투인 부산포 전투, (나)는 조·명 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할 때의 상황이다. 한산도 대첩은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①.②.④는 (나)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10	④	(가)는 정발, (나)는 신립, (다)는 김시민 장군이 이끈 전투이다.
11	③	(가)는 곽재우, (나)는 사명대사(유정)과 관련한 사료이다. ③ 사명대사가 일본에 다녀온 이후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였다.
12	③	일본과의 휴전이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은 원균 등의 모함으로 백의종군을 당하였다. 원균은 칠천량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였고, 복귀한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13	①	강항은 이항의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로,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 후지와라 세이카를 비롯한 일본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14	②	안동 출신이자 징비록의 저자인 (가)는 유성룡이다. 유성룡은 이항의 제자였다. 따라서 (나)는 이항이다.

#### 세부 주제 2 광해군

문제	정답	해설
1	④	제시문의 『계축일기』를 쓴 인물은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로 그 자식인 영창대군이 광해군에 의해 살해되었고, 또한 그 자신도 폐출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복위되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빈칸의 국왕은 광해군이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 대동법의 실시(경기도 시범 실시), 동의보감의 편찬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선지분석> ㄱ. 북벌 운동을 전개한 왕은 효종이다. ㄴ.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 이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일으킨 반란이었다.(1624)
2	②	(가)는 임진왜란 중에 진행된 휴전 회담(1593~1596) 관련 자료이고, (나)는 인조반정(1623)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② 선조 말엽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사이에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진행되었다. <선지분석> ① 조선이 청의 군신 관계 체결 요구를 거절하자 발생한 것이 병자호란(1636)으로 (나) 이후의 사실이다. ③ 백두산정계비는 숙종 때 건립된 것으로(1712) (나) 이후의 사실이다. ④ 계해약조는 세종 때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의 교역량을 정한 조약으로(1443), (가) 이전의 사실이다.
3	②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이용당한 사람이 강홍립이다. 광해군은 명의 지원을 요청을 마지못해 수용하였고, 강홍립을 지원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을 지시하였다. 사료는, 전황이 후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강홍립이 광해군의 지시대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④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반대하는 거의 모든 관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중립외교를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신하들이 이해해주시기를 원하는 광해군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광해군 때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였다. ① 선조, ② 숙종, ③ 광해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세부 주제 3 호란과 북벌(인조~효종)

문제	정답	해설
1	④	<p>제시된 지도에서 남한산성과 강화도에서 격전이 벌어진 것과 1636년에 벌어진 침입으로 병자호란임을 알 수 있다. ④ 청 태종의 침입으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는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된다.</p> <p>&lt;선지분석&gt; ① 세종 때 여진 정벌을 위하여 4군과 6진이 설치되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완성되었다. ②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장으로 활동한 전쟁은 1627년 정묘호란이다. ③ 강화도 천도는 1232년 몽골의 침입에 맞서 이루어졌다.</p>
2	④	<p>제시된 첫 번째 그림은 삼전도비 이고, 두 번째 그림은 남한산성이다. 따라서 병자호란(1636년)에 관련된 내용을 고르는 문제이다. ㉠, ㉡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청으로부터 조선 국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또한 척화론을 주장한 신하들과 소현세자, 봉림대군을 청나라로 데려갔다.</p> <p>&lt;선지분석&gt; ㉠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 정묘호란(1627년) 시기의 사실이다.</p>
3	①	<p>제시문은 폐모살제(인목대비의 유폐와 영창대군의 사사)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을 이유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폐위한 인조반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 세력은 광해군이 추진했던 실리중심의 중립외교 정책을 폐기하고, 명에 대한 의리명분론을 강화하여 친명배금책을 추진하였다. 효종의 북벌, 숙종의 대보단 설치, 송시열의 유언으로 제자인 권상하에 의해 설치된 만동묘(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을 제사하는) 등은 이러한 의리명분론과 관련된 대표적 사실이다.</p> <p>&lt;선지분석&gt; ②, ③, ④는 모두 광해군과 복인 정권의 정책에 해당한다.</p>
4	②	<p>㉠ - 이괄의 난(1624년, 인조 2)에 대한 내용이다. 이괄은 인조반정 때의 공신이었으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한양을 점령하는 등 기세를 올렸으나 곧 관군에 패해 도망가던 중 부하 장수의 배신으로 죽고 말았다. 난이 평정된 이후 이괄의 잔당은 후금으로 도망가 인조의 즉위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다.</p> <p>㉡ -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후금은 광해군을 위해 보복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3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정묘호란, 1627)</p> <p>㉢ - 병자호란(1636, 인조 14)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다.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淸)이라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군신(君臣)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p> <p>㉣ - 병자호란(1636, 인조 14)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병자호란의 결과 소현세자, 봉림대군의 두 왕자와 주전파인 삼학사(윤집, 홍익한, 오달제), 그리고 수만 명의 백성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 삼학사는 청의 심양으로 잡혀가 1637년에 모두 처형되었다.</p>



5	②	<p>제시문은 병자호란(1636) 때 윤집의 주장이다. ② 후금과 굴욕적인 형제의 맹약을 맺은 정묘호란(1627) 이후 국력이 더욱 커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압박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청의 태종은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다시 쳐들어왔다.(병자호란, 1536.12) 청군은 의주 부윤 임경업이 굳건히 지키는 백마산성을 우회하여 10여일 만에 서울에 이르렀다. 서울이 청군에 의해 점령되자, 인조와 소현세자는 본래 강화도로 대피하려 하였으나(비빈과 원손, 봉림·인평 대군들은 강화도로 피신했으나 청군에 의해 잡히고 김상용 순절), 여의치 않아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다. 주화파(최명길)와 주전파(김상헌) 간의 논쟁 끝에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三跪九叩頭禮 : 세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이마를 조아리는 절) 이 후 명과의 관계 청산 및 철저한 군신 관계 설정,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불모, 주전(主戰)을 주장한 삼학사(윤집, 오달제, 홍익한)의 처형 등의 치욕적인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고, 포로가 되었다가 속환(贖還)된 부녀자(환향녀 : 還鄉女) 처리 문제는 조선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대하여 표면상 사대 관계를 맺고 사신(연행사)이 왕래 하며 서양 과학기술이 전래되고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불모로 있다가 1645년 귀국한 소현세자는 청에서 서양의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한 김육과 함께 시현력과 관련이 있는 천문 관련 서적 등을 가져왔다.</p> <p>③ 효종은 복수설치(復讐雪恥)로 삼아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의 국력이 절정에 달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④ 명이 멸망한 이후에는 명에 대한 의리로 송정처사(崇禎處士), 대명거사(大明居士)로 자처하며 출사를 거부하고 은둔하는 인물들도 있었다.(김시온, 이희량 등)</p>
6	⑤	<p>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4일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시작되었다. ㄴ. 1592년 4월 29일 신립이 충주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결정하였다. ㄷ. 1592년 7월 한산도에서 적선 115척을 격파하였다. ㄹ. 1592년 10월 진주목사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격돌하여 방어에 성공하였다. ㄱ. 1593년 1월 평양성을 공격하여 수복하였다.</p>
7	④	<p>제시된 글의 내용 중 세자가 중국 심양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사람들이란 내용으로 청나라에 불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임을 알 수 있다. ④ 청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북벌을 적극 추진한 임금은 효종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 세자는 소현세자로 청나라에서 불모로 지내는 동안 독일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하며 천문서적과 과학서적, 그리고 천구의(天球儀) 등을 선물로 받고 서양문물에 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다. ② ㉡ 포로로 청에 끌려갔던 여인들은 귀국 후에도 환향녀(還鄉女)라고 칭해지</p>

		며 가족으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③ ㉠ 관소는 소현세자가 머물던 처소인 심양관을 말한다. 심양관에 머물던 소현세자는 조선과 청의 연락을 담당하고 공물, 조선인 포로 문제 등 외교적 업무도 수행하였다.
8	①	(가)는 이완이 나오니 효종, (나)는 윤희의 주장이 나오니 숙종이다. 효종이 재위하던 시기에 네덜란드 사람인 벨테브레이와 하멜이 활동하였다. ② 인조, ③ 영조, ④ 현종 때의 일이다.
9	①	영창대군의 죽음(광해군) → 인조의 공주 피난(이괄의 난) →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병자호란 직전부터 남한산성 피난시기까지) → 삼전도의 굴욕(청과 굴욕적인 강화) → 소현세자의 죽음(청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 죽음)
10	①	효종 때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였으며, 현종 때는 예송 논쟁에 참여, 성리학의 상대화를 추구한 윤희를 사문난적으로 규정 등... 누가 보아도 송시열이다. 송시열은 숙종이 주도한 기사환국으로 사약을 받고 죽게되었다. 송시열은 성리학의 교조화(절대화)를 추구하였다. ② 이이, ③ 송시열 사후에 있었던 논쟁, ④ 윤희에 대한 설명이다.
11	④	병자호란의 결과 청과 맺은 굴욕적인 강화를 담은 사료이다. 이러한 결과 청에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졌으며, 현실성의 유무를 떠나 내부 결속용으로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12	④	효종 때 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나선정벌과 관련한 지도이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변급과 신유가 이끄는 조선의 조총부대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군을 격파하였다.
13	②	(가)는 남인의 영수인 허목, (나) 정봉수, 이립, (다) 송준길, 송시열에 해당한다.
14	①	제시문에 해당하는 인물은 인조 ~ 효종 때 활약한 김육이다. 김육은 시헌력의 도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② 김육은 예송논쟁 이전에 죽었다. ③ 북학파 실학자들에 해당하는 말이다. ④ 송시열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5	③	(가)는 주화론자인 최명길의 주장이고, (나)는 척화론자인 윤집의 주장이다. 척화론은 가족윤리를 국가윤리로 확대시킨 유교적 외교관을 반영하는 주장이다. ① 최명길은 서인이다. 북인은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여 병자호란 시기에 있었던 이 논쟁에 의견을 낼 위치가 되지 못하였다. ② 주화론은 대부분의 사대부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④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것은 숙종 때의 일이다.
16	②	정조가 송시열을 추앙하면서 한 말이다. 송시열은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를 추구하면서 윤희, 박세당 등과 사상적으로 대립하였다. ① 남인(윤희, 허적 등), ③ 남인(허목 등) ④ 송시열 사후의 논쟁이다.

## 주제 19 붕당의 전개(17세기)

### 세부 주제 1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선조~효종)

문제	정답	해설
1	④	제시된 글의 (ㄱ)은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림세력이라는 내용을 통해 동인임을 알 수 있고, (ㄴ)은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림세력이라는 내용으로 서인임을 알 수 있다. 동인은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위축되었다가 서인의 정철이 건저 문제로 실각하면서 정국을 장악하였다. 이 때 서인에 대한 처우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세력과 온건한 입장을 보인 세력으로 나뉘었는데 전자는 남인, 후자는 북인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ㄷ)은 남인, (ㄹ)은 북인임을 알 수 있다. ④ 남인 세력은 예송 논쟁 시기에 왕과 사대부는 다른 예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왕과 사대부의 예가 같다고 주장한 세력은 서인이다.
2	②	제시문은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이다. 훈련도감은 영의정 유성룡의 주도로 창설된 중앙군이다.
3	③	17세기는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닥쳐왔던 시기였다. 조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상 저온과 가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 기근이 발생하였다. 사료는 북벌정책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세부 주제 2 현종(예송), 숙종(환국), 경종(환국)

문제	정답	해설
1	④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의 승하 이후 복제 문제로 인해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영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숙종과 경종에 대한 것이다. ④ 숙종 시기에는 경신환국(서인), 기사환국(남인), 갑술환국(서인) 등 붕당의 변질인 환국이 발생하였다. <선지분석> ① 동인, 서인으로 분당되는 것은 선조, ② 정조 사후(1800년) 1863년 까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실시되었다. ③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독점하여 임진왜란 전후복구 사업과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 등을 실시하였다.
2	④	(가)는 북벌을 위하여 어영청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효종 때임을 알 수 있고, (나)는 노론과 소론이 분화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신환국(1680년)이후의 모습으로 숙종 때임을 알 수 있다. (다)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광해군 때임을 알 수 있다. ㄷ. 1608년 광해군은 처음으로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선지분석> ㄱ. 하멜은 1653년(효종 4년) 제주도에 표류하였다. 이후 1655년 하멜은 포를 다루는 포수의 경험 때문에 신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훈련도

		<p>감에 배치되었다. ㄴ. 1627년(인조 5년) 후금의 태종이 광해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하였다.(정묘호란) ㄷ.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삼았다.</p>
3	②	<p>제시된 표는 조선 현종과 숙종 때에 걸쳐 전개된 정치적 사건들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사건은 기사환국임을 알 수 있다. ㉡ 기사환국은 1689년(숙종 15년) 남인이 희빈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호하는 문제를 계기로 서인을 몰아내고 정국을 장악한 사건이다. 숙종이 희빈 장씨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려하자 서인은 반대하고 남인은 숙종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결국 세자로 책봉하고 숙원을 희빈으로 책봉하자 송시열은 반대 상소를 올렸고, 이에 분개한 숙종은 남인의 상소를 바탕으로 송시열을 제주로 유배, 이후 사약을 내려 사사하였다.</p> <p>&lt;선지분석&gt; ㉠ 갑술환국(1894), ㉡ 경신환국(1680), ㉢ 신임사화(1721), ㉣ 경신환국(1680)에 대한 설명이다.</p>
4	②	<p>제시된 표의 (가) 봉당은 인조와 효종 시기 비변사의 고관직을 독점한 것으로 서인임을 알 수 있고, (나) 봉당은 숙종 시기 서인과 비슷한 비율로 고관직을 차지한 것으로 남인임을 알 수 있다. ㉡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대표적으로는 송시열, 송준길 등이 있었다.</p> <p>&lt;선지분석&gt; ㉠ 1674년(현종 15년) 갑인예송에서 왕실과 사대부의 예를 구분한 세력은 남인이다. ㉡ 1680년(숙종 6년) 경신환국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된 세력은 서인이다. ㉢ 남인 계열인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정호에 반대한 세력은 서인이었다.</p>
5	③	<p>기사환국 이후 폐비가 된 서인계의 왕비인 인현왕후 복위를 비밀리에 추진하던 서인들을 탄압하려던 남인들이 도리어 실각하게 된 사건이 갑술환국이었다. ㉢ 갑술환국 이후 서인(소론) 정권이 수립되었고, 인현왕후는 복위되었지만 장희빈은 ‘무고의 옥’ 사건으로 사사를 당하게 된다.</p>
6	①	<p>숙종 때 있었던 환국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 경신환국(윤휴, 허적 등의 남인 숙청) → 기사환국(송시열, 김수항 등의 서인 숙청) → (다) 갑술환국(남인 숙청)의 순으로 이루어졌다.</p> <p>&lt;선지분석&gt; ㉡ 현종, ㉢ 선조, ㉣ 효종 때의 일이다.</p>
7	②	<p>제시문은 경종 때 있었던 신임사화에 대한 내용이다. 경종은 18세기 초반에 집권한 왕으로, 이 시기에는 청과의 임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대동법의 시행으로 상공은 폐지되었으나, 별공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경종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차기 왕위 계승자는 동생(왕세제)인 영조였다.</p> <p>㉡ 숙종 때의 일이다.</p>
8	①	<p>사료는 남인 허목의 주장이다. 남인은 예송논쟁 시기 국왕의 예와 사대부의 예는 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차남인 효종을 왕이라는 이유로 적자로 보아야 한다는 남인의 주장은 왕권의 강화를 주장하는 그들의 정치철학과 맥이 닿아있다. 반면,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은 왕의 예와 사대부의 예는 같다고 주장하여, 신권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p>

9	④	<p>숙종이 주도한 여러 차례의 환국으로 왕권이 강해지기는 하였으나, 봉당정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공론을 주도하던 산림(재야사림)의 입지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지방 사족의 입지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p> <p>① 송시열이 사망한 환국은 기사환국이다.          ② 숙종 초기, 북벌을 주장한 윤희와 허적은 남인이다.          ③ 노론은 최숙빈의 아들(영조)를 지지하였으며, 소론이 장희빈의 아들(경종)을 지지하였다.</p>
10	③	<p>그림의 두 건물은, 법주사 팔상전과 금산사 미륵전이다. 두 건물 모두 17세기에 지어진 다층 사원 건축이다. 이는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일부 양반 지주의 불교 후원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다. 예송논쟁은 17세기 현종 집권기에 일어난 논쟁이다.</p> <p>① 15세기, ③ 16세기(선조), ④ 18세기(정조)에 일어난 일이다.</p>

## 주제 20 탕평정치(18세기)

### 세부 주제 1 영조

문제	정답	해설
1	④	㉠은 숙종의 편당적인 탕평정치, ㉡은 정조의 준론탕평, ㉢은 영조의 완론탕평이다. ④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시행한 것은 정조 시기의 모습이다.
2	②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의 법전들을 종합한 법전으로 영조 때 반포되었다. 영조는 탕평 정책을 통하여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선지분석> ㄱ.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법전으로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법전이다. ㄴ. 대전회통은 고종 때 섭정 중인 흥선 대원군이 왕권강화를 위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편찬되었다. ㄷ. 대전통편은 정조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들을 정리한 법전이다. A. 갑술환국은 1694년(숙종 20년) 기사환국으로 재집권한 남인이 폐비 민씨 복위 운동을 반대하다가 화를 입어 실권하고 소론과 노론이 재집권하게 된 사건이다. C. 사림은 성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을 필두로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D. 정조 사후, 어린 순조가 집권하게 되면서 비대해진 왕의 권력을 소수의 외척가문이 독점하며 나타난 정치 형태이다. 순조 때 뿐 아니라 이후 헌종과 철종 때까지 3대 60여년간 전개되었으며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3	③	제시된 정책을 시행한 왕은 영조이다. 영조의 탕평책은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선지분석> ① 정조 대(1776~1800)에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1791, 신해통공) 상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② 철종 대의 임술 농민 봉기(1862) 때 민란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을 시정키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효과가 별무하였다. ④ 흥선 대원군(집권:1863~1873)은 환곡제를 개혁하여, 향촌민들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4	②	소론 강경파인 이인좌는 영조와 노론이 경종을 독살하여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라며 청주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1728) 이 반란에는 경상도의 일부 남인들도 참여하여 충청, 경상, 전라도 일대의 반군이 조직되어 서울로 북상하였으나 관군에게 죽산에서 대패하여 실패하였다. 이 사건은 노론과 소론을 번갈아 등용하여 탕평을 추진하고 있던 영조에게 큰 충격을 주어, 노론과 소론의 강경파(준론)들이 영조 자신의 탕평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해 준론을 배제한 완론탕평을 추진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② 이인좌의 난으로 한양이 점령되지 않았다. 한양이 점령된 유일한 반란은 이괄의 난(1624) 때였다.

5	②	제시문에서 ‘(고금)도서집성’, ‘규장각’이라는 용어를 통해 조선 후기 정조 때 임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여 이를 모를 지라도 이후의 선지에서 초계문신제, 장용영, 대전통편의 내용은 정조의 업적이므로 이 국왕이 확실히 정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완론탕평은 영조의 탕평책이다. 정조는 붕당의 시시비비를 엄격히 구분하는 준론탕평을 추구하였다.
6	③	이 비문은 영조가 성균관에 세운 탕평비이다. ③ 정조가 추진한 일이다.
7	③	(가)는 영조, (나)는 흥선대원군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 사림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8	④	ㄱ은 붕당이 형성 될 때의 일이므로 광해군 집권 이전인 선조, ㄴ은 현종, ㄷ은 인조반정으로 복인이 몰락하였으므로 (나)에 들어가야 한다. 영조는 소론이 주도한 이인좌의 난을 겪고 난 이후에, 탕평교서를 발표하여 완론탕평을 추구하였다. 완론탕평이란 붕당의 색채가 엮은 탕평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영조는 이를 위해 지방사림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하고 붕당정치의 핵심 보직인 이조전랑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ㄴ이 (라)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

### 세부 주제 2 정조

문제	정답	해설
1	②	제시된 글에서 ㉠은 박세채가 서인과 남인을 조정하여 화합시킨다는 내용으로 탕평임을 알 수 있다. ㉡은 영조가 수정·보완한 법전이란 내용으로 『속대전』임을 알 수 있다. ㉢ 정조가 노비제를 혁파하려다 순조 때 부분혁파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으로 공노비 해방임을 알 수 있다. <선지분석> 환국은 숙종 때의 정치 상황으로 급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국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대전통편』은 정조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 편찬한 통일 법전이다. 사노비는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로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었다. 사노비의 해방은 1894년 1차 갑오개혁 시기에 실시된 공·사노비 혁파로 사라지게 된다.
2	①	궁극적으로 붕당을 없애고자 했던 정조(1776~1800)는 각 붕당의 입장을 떠나 의리와 명분에 합치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또한 규장각을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아울러 상기의 자료처럼 자신을 ‘만천명월주인옹’으로 자처하며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려 하였다.(초계문신제 시행) ① 정조는 농업 생산에 큰 관심을 가져 1798년 권농정구농서윤음을 내리자 서호수는 『해동농서』를, 박지원은 『과농소초』를 저술하였다. <선지분석> ② 현종 때인 1674년 효종 비의 사망 시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놓고서,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9개월설을 주

		<p>장하였고,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기년설)을 각각 주장하였다.(갑인예송) ③ 숙종(1674~1720) 때에는 왕권강화의 측면에서 충역(忠逆)을 확실히 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명나라에 대한 은공을 갚는다는 뜻으로 대보단(大報壇)이 세워지고, 사육신이 복관되었고 노산군을 복위시켜 단종으로 묘호를 올리고, 소현세자빈으로서 폐서인되었던 강씨를 복위시켜 민희빈으로 하였다. 또한 이순신에게 현충(顯忠)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 ④ 조선 시대에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광산 개발이 활발해지며 효종 2년(1651)부터 설점수세제를 실시하여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p>
3	④	<p>제시된 글의 왕은 정조이다. 정조는 ‘홍재’, ‘탕탕평평실’, ‘만천명월주인옹’과 같은 호를 사용하였으며 『홍재전서』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규장각, 수원화성, 장용영과 같은 기구들을 만들었으며, 서열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켜 규장각 검서관으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를 기용하였다. 또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채제공의 건의에 의해 난전을 금지시키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게는 철폐하는 신해통공(1791.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노론 세력을 견제하였다. ④ 1782년(정조 6년) 규장각의 분관인 외규장각을 강화에 설립하여 왕실의 중요한 물품 및 서적을 봉안하였다. 외규장각을 설치하고 규장각을 내규장각으로 부르며 보관품의 성격을 구분하여 보관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0년(중종 25년) 성종 때 만들었던 『동국여지승람』을 증편한 것이다.</p> <p>② 대보단은 1704년 숙종 때 임진왜란 시기 지원을 해준 명나라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명 태조, 신종, 의종을 제사지내는 사당을 창덕궁 금원 옆에 세웠던 것이다. ③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만들었던 것인데 절차가 까다로워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영조가 다시 부활한 제도이다.</p>
4	③	<p>제시된 글에서 왕이 시전을 혁파하고 금난전권의 행사를 금지하자는 주장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정조임을 알 수 있다. ③ 정조는 임금 중심의 적극적인 탕평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줄 신진 관료와 하급 관료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어영청의 설치에 인조 때의 일이지만 복벌을 위하여 어영청을 확대한 것은 효종이다. ② 영조에 관한 내용이다. ④ 철종에 관한 내용이다.</p>
5	②	<p>이 작품은 양반의 허세와 탐욕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박지원의 양반전이다. 박지원은 농서인 &lt;과농소초&gt;를 저술하였다.</p> <p>① 박지원은 용전론을 주장하여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폐전론은 이익의 주장이다.</p> <p>③ 신재효, ④ 송시열이다.</p>



6	①	ㄱ은 숙종, ㄴ은 경종, ㄷ은 영조 초기, ㄹ은 영조 후반기, ㅁ은 정조 때의 일이다.
7	②	<p>이 글은 정조가 노론 벽파의 지도자였던 심환지와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들이다. 이 편지의 발견으로 정조가 일방적으로 노론 벽파와 대립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조선 시대의 국왕이 저 정도로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적인 편지를 신하와 나눌 정도면, 엄청나게 친한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경우이다. 따라서, 정조는 노론 벽파의 영수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며, 그들과 대립과 협력을 적절히 조율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조는 문체반정(고문으로의 복귀)을 주도하여 문체혁신(패관소품체)을 이끌었던 박지원을 비판하였다.</p> <p>① 흥선대원군, ③ 영조 or 흥선대원군, ④ 태종 or 세조이다.</p>
8	④	<p>왼쪽 사진은 수원 화성, 오른쪽 사진은 배다리이다. 둘 다 정조의 명으로 정약용이 만든 건축물들이다.</p> <p>① 시전상인 중에 육의전의 독점권은 폐지된 적이 없다.</p> <p>② 1886년에 체결된 조·프수호통상조약의 결과이다.</p> <p>③ 영·정조 때 이루어졌던 서열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으나, 서열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어 청요직(3사, 전랑직 등) 진출이 가능해진 것은 철종 때의 일이다.</p>

## 주제 21 세도정치

### 세부 주제 1 세도정치의 전개

문제	정답	해설
1	②	<p>제시문은 19세기 세도 정치기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붕당간의 대립구조가 소멸되었고, 비변사에 참여하는 정2품 이상의 고위직들만이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정조가 등용하였던 재야 세력 즉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하면서 사회통합에 실패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영조와 정조시기의 탕평 정치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선조~현종 때까지의 붕당 정치기에 해당된다. ④ 현종 때 남인과 서인 간에 예송논쟁이 발생하였다.</p>
2	③	(가)는 순조, (나)는 철종, (다)는 현종 때 일어난 일이다.
3	②	<p>홍경래의 난과 관련한 사료이다. “기자와 단군 시조의 옛터”, “서토를 버림이 분토나 다름없이” 등을 통해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임을 알 수 있다.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 일어났다. 안경은 조선후기에 들어왔고, 경화사족은 서울에 대대로 살면서 권력을 독점했던 특권 양반계층을 이르는 말이다.</p> <p>① 경제소는 선조(1603) 때 폐지되었다.          ③ 화성은 정조 때 건축되었다.          ④ 동의수세보원은 개화기(1894~1895년으로 추정) 때 나온 책이다.</p>

## 주제 22 조선의 대외관계

### 세부 주제 1 전기의 대외관계

문제	정답	해설
1	㉔	<p>ㄴ. 명과는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문화적 실리를 추구하였다. ㄷ. 일본에 대해서는 세종 때 3포를 개항(부산포·제포=창원·염포=울산)하고 계해약조(1443년)를 실시하였는데 세건선과 쌀, 사람에 대해 제한하는 제한무역이었다.</p> <p>&lt;선지분석&gt; ㄱ. 여진에 대해서는 북방 개척을 위해 무력진압 강경책으로 4군과 6진을 개척하였다. 무역소를 연 것은 회유책이다. ㄹ. 유구(=오키나와)와 동남아시아(시암=태국, 자와=인도네시아) 국가와의 교류도 있었다.</p>
2	㉓	<p>제시된 문제는 기유각서(1609)의 체결 시기를 묻는 문제이다. ㉓ 기유각서는 광해군 재위 기 일본의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선조 때의 정유재란(1597)과 인조가 집권하게 된 인조반정(1623)의 사이로 보는 것이 맞다. 임진왜란은 1592년,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일어났다.</p>
3	㉔	<p>당시 명나라를 건국한 명 태조(주원장)는 1392년에 건국된 조선을 형식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가 사망하였던 1398년 내내 조선에 대한 외교적 강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명의 명 태조(주원장)는 조선이 북방의 여진인과 연합하여 요동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계획의 핵심적인 인물이 정도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명은 태조 3~4년(1394~1395) 조선에서 요청한 조선국왕의 금인(옥새)과 고명(임명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태조 5~6년에는 외교문서인 표전문의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정도전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또한 &lt;명태조실록&gt;과 &lt;대명회전&gt;에 태조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로 잘못 기록되어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조선측의 요구를 거절하였고(종계변무 문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을 침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러한 명과의 외교적 갈등 관계 속에서 정도전과 태조는 요동 정벌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다. ㉔ 명 황제 주원장은 이러한 조선과의 갈등 속에서 조선 측의 1년 3공(1년에 3번 조공)을 거부하고 3년 1공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후 주원장이 사망하고 정종 때 명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조선 측 주장대로 1년 3공이 관철되었다. 즉, 조공 횟수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지 조공의 답례품인 회사품의 양과 가치가 적었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아닌 것이다.</p>
4	㉕	<p>4군 6진 개척과 관련한 사료이다. 세종 때 4군 6진의 개척으로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현재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다.</p> <p>① 신라 진흥왕, ② 고려 태조, ③ 강동 6주 확보 이후, ④ 공민왕 때의 국경이다.</p>
5	㉔	<p>명과 조선의 사대관계는 형식적 사대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 지위 확보, 선진 문화의 흡수, 조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 외교였다. 태조 때 추진한 요동 진출 계획으로 명과의 관계가 초반에는 좋지 않았</p>

		으나, 정도전이 제거되고 태종이 실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 관계가 개선되어 명의 최고 우방이 되었다.
6	②	세종 때 이루어진 쓰시마정벌 이후 일본과 맺은 계해약조에 대한 내용이다. 이후 중종 때, 개항장인 삼포에서 일본인들이 말썽을 일으켜(삼포왜란) 군사회의 기구인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③ 태조 이성계, ④ 고려 우왕 때의 일이다.
7	④	㉠ 중종, ㉡ 세종, ㉢ 명종, ㉣ 광해군 때의 일이다.

### 세부 주제 2 후기의 대외관계

문제	정답	해설
1	①	조선 측에서 청나라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서 조선에 요청하였다. 1711년 목극등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 와서 조선의 참핵사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1712년에는 청나라에서 이러한 범법 월경 사건들을 문제삼아, 백두산에 올라가 국경을 정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청나라 왕실의 발상지로 인정하는 백두산을 청나라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저의도 있었던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그 해 2월, 목극등을 장백산(長白山: 백두산)에 보내 변경을 사정(査定)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내서 우리 정부와 함께 백두산정계비를 만들게 된다.
2	②	제시문의 외교 사절은 임난 이후인 1607년부터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제시문의 내용이 잘 보여주듯이, 당시 일본에서는 통신사가 선물한 하찮은 글씨마저도 최고의 보물로 여겨질 정도로 통신사는 열광적인 환대를 받았다. ②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은 메이지유신(1868)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이후,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제기한 것으로 조선통신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즉, 통신사가 중단된 이후에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된 것이다. <선지분석> ① 통신사는 1811년까지 약 12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③ 임진왜란 이후 수립된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은 자신의 외교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에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한 것이었다. ④ 18세기 후반부터 통신사가 전파하는 조선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고, 일본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연구하려는 국학 운동이 일어나 1811년에 통신사의 파견이 중단되었다.
3	③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패배와 명의 멸망 이후에, 조선에서는 우리보다 문화적 수준이 낮은 오랑캐의 나라인 청을 멸시하고, 명이 중화의 명맥이 조선으로 옮겨져 왔다는 문화적 자부심속에서 '소중화 인식'이 강화되었다. <선지분석> ① 조선 초에는 류큐, 시암, 지바 등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와도 교류하였다. 특히, 류큐와의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부채 등을 전해 주어 류큐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② 1555년 명종 때,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정부는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였

		다. ④ 1710년 숙종 때,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어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한 양측 간의 국경이 합의되었다.
4	④	통신사를 일본인들이 얼마나 환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이다. 에도 막부 시기의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문화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에도 막부의 경제력이 조선을 앞섰지만, 조선의 문화는 오늘날의 한류열풍을 능가하는 인기를 일본에서 누렸다. 조선의 사절단인 통신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에도막부의 정통성을 높여주는 의미도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일본에서 ‘조선열풍’이 줄어들고, 국학(국뽕)운동이 일어나면서 순조 때 통신사가 중단되었다.

## 주제 23 고려·조선의 통치체제

### 세부 주제 1 중앙

문제	정답	해설
1	②	<p>제시된 글은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도병마사가 원 간섭기에 개칭된 이름을 묻고 있는 문제로 1279년 원 간섭기 도병마사가 개칭된 기구인 도평의사사를 묻는 문제이다. ② 도평의사사는 도당(都堂)으로 불렸으며, 고려 말기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등 귀족연합정치의 성격을 보이면서 왕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 후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유지하였기에 운영되다가 1400년 조선 정종 때 의정부로 개편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법제의 세칙을 제정하던 기구는 식목도감이다. ③ 고려 시대 아래에 6부를 두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상서성이다. ④ 대간에 대한 설명이다.</p>
2	④	<p>원 간섭기(1270~1351)에는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합하여 첨의부로, 6부는 4사(이부+예부-&gt;전리사, 호부-&gt;판도사, 병부-&gt;군부사, 형부-&gt;전법사, 공부&gt;폐지), 중추원은 밀직사로 바뀌었고 격도 낮아졌다.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 6부제를 토대로 하였다(문종 때에 완성: 1076).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최고 정무기관으로 중요한 국정 일반을 관장하고 국정을 심의.결정)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종1품)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재신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장관인 상서령은 실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정2품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복야는 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허직 또는 한직으로 많이 이용되어 상서성이 중서문하성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맡은 2품 이상의 추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3품 이하의 승선으로 이루어졌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법제·격식을 다루는 임시 회의 기관)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도병마사는 국방·군사 등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재신-문하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 추밀-판사·지원사·동지원사·부사·첨서원사·직학사).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p>

3	②	<p>(가)는 중서문하성, (나)는 삼사이다.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중서문하성, 상서성) 6부(이, 병, 호, 형, 예, 공부)를 토대로 하였다. 국정을 총괄하고 심의·결정하는 최고 관서인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재신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으나 실질적인 장관인 좌·우 복야는 정 2품임에도 불구하고 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허직 또는 한직으로 많이 이용되어 중서문하성에 종속되었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추밀, 2품 이상)과 왕명의 출납(승선, 3품 이하)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어사대는 풍기단속과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고,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이기도 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구성되는 이 두 기구에서 도병마사는 국방·군사 등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고, 식목도감은 법제, 격식 등 시행규정을 다루는 입법 임시회의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p>
4	③	<p>감사원은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의 감찰기구를 고르는 문제이다. ③ 어사대는 고려의 감찰기구로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던 기구이고, 사헌부는 3사의 하나로 백관을 규찰하였고, 기강, 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사간원과 함께 양사로서 대간 기능을 담당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고려의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 기관이고, 조선의 중추부는 소임이 없는 문무 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한 관청이었다. ② 고려의 비서성은 경적(經籍)을 관장하고 제례 축문(祝文)을 작성하던 기관이었고, 조선의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기관이다. ④ 고려의 한림원은 왕의 명령으로 글을 작성을 담당한 기관이었고, 조선의 해민국은 빈민 치료기관이다. ⑤ 고려의 식목도감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의 합좌한 임시기구로 법제와 격식을 담당한 기관이었고, 선혜청은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에 따른 재화(미곡, 포, 화폐)를 담당한 기관이었는데, 이후 그 기능이 확대되어 균역청의 업무와 정부 재정 지출에 관한 포괄적 업무를 담당한 곳이다.</p>
5	③	<p>제시문의 제도는 신하들이 왕에게 학문을 가르치거나 정책을 논의했던 경연이다. 조선 왕조는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경연제를 계승하면서 제도화하였는데, 태조 때 경연청을 설치하였고 세종 때는 집현전에서 경연을 담당하였다. 세조 때 집현전 폐쇄와 더불어 경연도 중단되었다가 성종 때 홍문관이 설치되어 홍문관의 관리들이 경연을 담당하였는데, 이후에 경연에는 경연관과 더불어 고위 관리들도 참여하여 경연이 학술토론과 더불어 정책연구 기능으로 확대되었다.</p>

		<선지분석> ① 세조 때에 경연은 폐지되었다. ② 고려 중기 예종 때 보문각에서 경연을 처음 실시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폐지되었다. 이후 원 간섭기에서연으로 격하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다가 조선 시대에 활성화되었다. ④ 경연은 왕과 신하가 모여 학술토론과 정책을 논의하는 제도로 전제왕권을 견제할 수 있었던 제도이다.
6	②	< > ① 승정원, ③ 사간원과 사헌부(양사대간), ④ 교서관에 대한 설명이다.
7	①	(가)는 홍문관, (나)는 외관직이다. ② 홍문관은 성종 때 설치되었다. ③ 부,목,군,현은 병렬적으로 편성되었다. ④ 조선의 관찰사는 고려의 안찰사에 비해 품계가 높았고, 권한도 더욱 강하였다.

### 세부 주제 2 지방

문제	정답	해설
1	②	제시된 글의 (가)는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생산하여 공물로 바치고 있으므로 고려 시대의 특수행정 구역 향·부곡·소 중 '소'임을 알 수 있다. ② 이들은 양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군현민에 비하여 무거운 세금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었다. <선지분석> ① 노비에 대한 설명이다. ③ 장인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의 수공업자들은 관청에서 작성한 공장안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요구하는 무기, 장식품, 도자기 등의 물건과 귀족들의 용품들을 제조하였다. ④ 향리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 시대의 향리는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이후 조선 시대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2	③	ㄷ. 고려 태조는 호족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왕씨의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시행하였다. ㄴ. 고려 광종은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ㄱ. 고려 성종은 신라 말부터 고려 초 까지 지방 세력인 당대등과 대등을 호장, 부호장으로 개칭하였다. ㄹ. 고려 현종은 지방 행정 제도를 완성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3	⑤	⑤ 고려의 5도는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이다. <선지분석> ① 안찰사는 임기 6개월의 경관직(京官職)으로 지방을 순회하며 수령을 감독하였다. ② 안찰사는 5품이나 6품 관리들이 파견되었으나, 병마사는 3품의 관리들이 파견되었다. ③ 소는 향과 부곡과 함께 고려의 특수행정 구역으로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하였다. ④ 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보다 적었다.
4	①	사심관은 고려 태조 때, 수도에 거주하는 공신 및 고위 관리를 출신지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하게 하는 등 출신지의 행정과 치안을 맡게 하는 제도였다.
5	①	㉠ 삼국 시대 백제 무령왕의 업적(6세기) → ㉡ 통일 신라 신문왕의 업적(7세기) → ㉢ 고려 시대 5도 양계 → ㉣ 조선 전기 8도 군현 순이다.



6	④	<p>조선은 태종 때(1413)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또한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부서로 중앙의 6조와 같이 6방을 두었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고, 지방관은 임기제(관찰사 1년, 수령 5년)와 상피제(출신지에 부임하지 못함)를 적용하여 통제하였다. 그러나 세종 이후 새로이 형성된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은 사족(士族)과 향리가 형성되지 못하여, 대신에 지방의 유력층을 토관(土官)으로 임명하여 지방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 한편,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p> <p>&lt;선지분석&gt; ㉠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 세종 이후 새로이 형성된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은 사족과 향리가 형성되지 못하여, 대신에 지방의 유력층을 토관(土官)으로 임명하여 지방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p>
7	④	<p>조선은 고려에 비해 중앙집권이 더욱 강화된 국가였다.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보냈으며, 자기 지역의 지방관으로는 부임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운영하였다. 다만, 새로이 개척한 북부 지방과 자치권을 박탈한 제주도의 경우는 과도기적 제도로 토착세력을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토관제도를 운영하였다.</p>
8	③	<p>(가)는 고려, (나)는 조선이다. 조선은 면리제와 오가작통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을 도모하였다.</p> <p>① 고려의 도지사는 안찰사이다. 관찰사는 조선의 도지사.      ② 안찰사는 품계가 낮았고, 조선의 관찰사는 정 3품 내외의 고위직이었다.      ④ 수령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시대의 향리는 수령의 보조자로 전락하였다.</p>

세부 주제 3 교육, 관리등용, 군사, 기타

문제	정답	해설
1	①	<p>ㄱ. 음서제는 이전 신라시대부터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의 자손을 등용하던 사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공신뿐 아니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ㄴ. 음서로 받는 관직은 주로 산직이거나 품계가 낮은 관직이기에 되도록 이른 나이에 관직을 받아 점차 승진하는 방식으로 고관으로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또한 이른 나이에 관직을 제수 받고 경력을 쌓았기에 다시 과거제에 급제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과거로 관직에 들어온 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고관으로 진출할 확률이 높았다.</p> <p>&lt;선지분석&gt; ㄴ. 음서 출신자의 진출 제한은 없었기에 음서 출신으로 고관에</p>

		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ㄹ. 5품 이상 관리의 자손과 공신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음서가 일반적이지만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주어지는 특별 음서도 있었다.															
2	③	제시문은 고려 성종 때 학문 장려를 위해 실시된 문신월과법의 내용이다. 국자감, 제술업(문과), 수서원(성종 때 서경에 설치한 도서관)의 설치 및 실시는 모두 학문 진흥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③ 음서제는 5품 이상 귀족 관료들의 자손 및 친족들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을 주는 제도로, 귀족의 정치적·사회적 특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3	③	조선 시대 임진왜란으로 봉수제가 유명무실해져 명의 파발제도를 시행하였다.															
4	②	ㄱ. 1464년 세조 때에 봉족제를 전면 개편하여 호 단위 대신 인정(人丁)을 기준으로 보법(保法)을 제정하여, 군사 활동자는 정군이라 일컫고 그에 딸린 경제적 보조자는 보인이라 하였다. 양인(良人) 2정을 1보(保)로 하여 지급하였는가 하면 경제적 보조의 형태는 면포(綿布)로 하였다 ㄴ. 세조 대에 확립된 진관 체제는 성종 이후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지며 점차 붕괴되었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가다, 마침내 1541년(중종) 군적 수포제의 실시로 양인 장정들의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었다. ㄷ. 1750년 군역의 폐단을 시정키 위해 영조 때에 균역법이 시행되어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또한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ㄹ. 호포법(1871)은 호(戶)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던 세제로서, 흥선 대원군 때 실시되었다. 양반은 노비의 이름으로, 서민은 군역(軍役)을 대신으로 포를 바치게 하였으며, 그 후 포를 전(錢)으로 대치, 매호 2냥(兩)으로 하여 양반도 군포를 부담케 하였다.															
5	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중앙</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통일 신라</td> <td>9서당</td> <td>10정</td> </tr> <tr> <td>고려</td> <td>2군 6위</td> <td>주현군(5도) / 주진군(양계)</td> </tr> <tr> <td>조선 전기</td> <td>5위</td> <td>영진군(진관 → 제승방략)</td> </tr> <tr> <td>조선 후기</td> <td>5군영</td> <td>속오군(진관 복구)</td> </tr> </tbody> </table>	구분	중앙	지방	통일 신라	9서당	10정	고려	2군 6위	주현군(5도) / 주진군(양계)	조선 전기	5위	영진군(진관 → 제승방략)	조선 후기	5군영	속오군(진관 복구)
구분	중앙	지방															
통일 신라	9서당	10정															
고려	2군 6위	주현군(5도) / 주진군(양계)															
조선 전기	5위	영진군(진관 → 제승방략)															
조선 후기	5군영	속오군(진관 복구)															
6	②	문과는 33명(→ 흥패를 받음), 무과는 28명(→ 흥패를 받음)을 최종 선발하였다. 무과는 소과 대과의 구별이 없으며 장원도 뽑지 않았다. 또한 소과와 잡과의 합격자는 백패를 받았다. <선지분석> ① 문과 식년시(3년)는 초시와 복시,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															

		등의 세 단계로 치러졌다. ③ 소과 합격자(생원과, 진사과)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④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3년마다 치렀으며 분야별로 규정된 인원이 있었다.
7	①	<p>제시된 글에서 교재는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通鑑)』, 사서삼경이 중심이 되었고, 보통은 『통감』정도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서당임을 알 수 있다.</p> <p>&lt;선지분석&gt; ② 향교는 성균관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지방에 설치된 교육 기관이다. 각 지방관청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지방 행정 구역의 위계에 따라 90명에서 3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규정되어있다. ③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 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로서 성균관의 하급 사학(私學)이다. ④ 고려 말, 조선 시대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최고의 책임자로 정3품직인 대사성(大司成)을 두었으며, 제주(祭酒)·악정(樂正)·직강(直講)·박사(博士)·학정(學正)·학록(學錄)·학유(學諭) 등의 관직을 두었다. 초시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儒生)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에의 입학 기회를 주었으며, 개국 초 150명, 세종 때 200명이 수학하였다.</p>
8	④	<p>제시된 글에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의 소과와 초시, 복시, 전시의 대과의 과정으로 조선 시대 과거 제도임을 알 수 있다. ④ 조선 시대 과거는 양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가 제한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식년시는 정기시험으로 3년마다 실시되었다. ② 초시는 각도의 인구 비례로 선출하였고,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하였다. ③ 양인이상이면 농민도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응시도 어려웠으며, 문벌적인 요소로 합격은 더욱 어려웠다. ⑤ 진사시나 생원시 모두 관리가 될 수 있었다.</p>
9	④	<p>제시된 자료의 교육 기관은 성균관이다. 성균관은 1308년에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감을 성균관이라 개칭하면서 등장하였고, 1395년(태조 4년)조선 왕조의 한양천도에 따라 새 도읍지의 동북부지역인 송교방 부근에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3년 만에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동무·서무의 문묘를 비롯하여 명륜당·동재·서재 등의 건물이 완성되었다.</p>
10	④	<p>향교는 지방에 설립된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90명)·목(70명)·군(50명)·현(30명)에 각각 하나씩 설립하였는데, 군현의 등급에 따라 교육생의 인원이 정해졌다. 중앙 정부에서는 향교의 교육 진흥을 위해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혹은 훈도를 파견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조선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다. ② 조선의 초등 교육 기관이자 사립 교육 기관인 서당에 대한 설명이다. ③ 향음주례는 향사례와 더불어 향촌에 학식과 품행이 바른 사람을 손님으로 모시고 그들</p>

		의 덕행을 기리는 행사로 서원과 향교에서 치렀던 행사이나, 국자학, 태학, 사문학 같은 유학부가 있었던 것은 고려 시대의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다.
11	④	자료의 (가)는 주세붕이 처음 설립한 서원이다. 서원은 학문 연구 및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교육 기관이다. <선지분석> ① 향교, ② 서당, ③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다.
12	③	진사학당, 탕평비각, 명륜당(강의실), 비천당(알성시 시험장) 등을 통해 성균관임을 알 수 있다. 성균관은 원칙적으로 소과 합격자만 진학이 가능하였다. ① 경당, ② 국자감, ④ 성균관과 관계없는 내용이다.
13	③	훈련도감의 설치를 명한 선조의 전교이다. 임진왜란 시기 유성룡 등의 주도로 중앙군인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① 영조, ② 중종, ④ 임진왜란 때의 지방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4	④	ㄷ 고려 말기 → ㄹ 조선 건국 초기 → ㄱ 세조 → ㄴ 선조(임진왜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5	③	(가) 대과에 합격한 사람이 대과를 준비하는 성균관에 입학할 이유가 없다. 역사학 박사가 다시 사학과에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행동이다. (나) 원칙적으로 천민이 아니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 할 수가 있었다. (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라) 알성시는 성균관에서 치르는 시험이다. 기훈이가 개꿈을 꾸는 꿈다 ㅋ

## 주제 24 수취제도

### 세부 주제 1 고대~고려의 수취제도

문제	정답	해설
1	④	<p>① 민정문서에는 각 촌락별의 토지면적과 인구, 가호, 소와 말, 나무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② 민정문서는 조세, 공물, 역 등을 농민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③ 촌민들은 자신의 사유지인 연수유(전)답을 경작하는 대신에 관모전답, 내시령답 등을 공동경작 하여야 했다.</p>
2	④	<p>제시문은 통일 신라 민정문서의 일부이다. ④ 고려는 직역의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국가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땀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통일 신라기 신문왕 때에 관료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허용한 관료전을 지급하고(687) 기존의 녹읍(토지와 그에 딸린 노동력 징발이 가능)은 폐지하였다, 한편 성덕왕 때에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722) ②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③ 통일 이후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5소경을 설치하여, 수도인 금성(경주)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다.</p>
3	①	<p>통일 신라 시대에 서원경 부근의 4개 지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민정문서는 3년 마다 촌주가 작성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③ 인구·가호·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이동 등 변동 내용을 소와 말의 수, 뽕나무·잣나무·호도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② 토지는 연수유전답(민전 또는 정전)과 촌에 할당된 촌주위답(촌주에게 지급), 관모전답(관청의 소유지), 내시령답(관료전), 마전(마포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토지) 등의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였다. ④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일본 도다이샤 쇼소인에서 발견된 서원경(청주)의 사해점촌 촌락 자료가 유명하다)</p>
4	④	<p>공물은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에서 속현과 향, 부곡, 소에 할당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눠 비옥도에 따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했다. ②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였다. ③ 요역은 일반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역(노동력)으로 16~60 까지의 정남을 대상으로 하였다.</p>

5	③	자료는 통일신라의 수취문서인 민정문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③ 노비의 수가 적은 것을 볼 때 생산의 주체가 노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6	②	농민이 짊어지고 있는 지계의 돌을 보면, 상단은 전세, 하단은 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운데 것은 공납이다. 공납은 토산물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과 수시로 납부하는 별공이 있었다. ㄴ은 전세(공법), ㄹ은 대동세이다.
7	④	(가)는 신라 경덕왕 때 이루어진 녹읍의 부활, (나)는 고려 광종 때 이루어진 노비안검법, (다)는 고려 공민왕 때 실시한 전민변정도감이다. ㄱ. 녹읍의 부활은 귀족들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ㄴ.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다. ㄹ. (나)와 (다)는 왕권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나, (가)는 귀족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8	①	“한수”, “위례성” 등의 지명을 통해 백제임을 알 수 있다. 백제는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중국의 남조와 주로 교류하였다. ②③은 고구려, ④는 통일신라이다.

### 세부 주제 2 조선의 수취제도

문제	정답	해설
1	①	조선 국초 과전법 하에서 조세(엄밀히 말하면 전조)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1결 당 30두),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는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6년 동안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은 끝에 공법(貢法)을 마련하였다.(1444) 이에 따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선지분석> ② 조선 후기에는 농민들의 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③ 조선 후기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1608)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12두),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④ 과전법 하에서의 원칙이다.
2	②	세종은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는 공법을 제정하였다.

		<p>&lt;선지분석&gt; ①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잉류 지역으로 조세를 운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했다. ③ 양반, 서리, 향리 등은 직역이 있기 때문에 신역인 요역과 군역에서 면제된다. ④ 요역은 가호를 기준을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아서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였다. 성종 때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p>
3	③	<p>제시된 글의 조치는 양민의 포를 반으로 감면하였고, 이를 메우기 위하여 어·염·선세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선 후기 영조 때 실시한 균역법임을 알 수 있다. ③ 균역법은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일을 담당한 공인은 공물을 현물에서 쌀, 배, 동전으로 수취하던 대동법이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다. ② 군포를 부과하는 기준은 호 단위가 아닌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정남(丁男)에게 부과하였다. ④ 풍흉에 따라 전세를 차등있게 징수하는 제도는 세종 때 실시된 공법의 내용이다.</p>
4	②	<p>(가) 제도는 광해군 즉위 후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인조 이후 잉류 지역을 제외하고 확대된 것으로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② 대동법은 당시 양인에게 가장 큰 부담인 공납에 대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여 이후 인조, 효종, 숙종 대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결작은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징수된 세금이다. ③ 조선 전기 세종 때 세금을 균등하게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법의 내용이다. ④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의 내용이다.</p>
5	④	<p>대동법은 현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공납의 여러 폐단을 해결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인정으로 부과되던 세금을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포, 또는 화폐로 납부하게 하였다. 1608년(광해군 1년) 한백겸의 제안과 이원익의 제청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되었다가 1708년(숙종 34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④ 대동법을 담당하던 관청은 선혜청이다. 선혜청은 전국 6도에 설치하여 대동미를 관장하고 필요한 공물 조달을 담당하였다. 상평청은 물가조절기구이자 구휼기구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인조 때 선혜청에 흡수되었다.</p>
6	①	<p>제시된 글에서 양역의 병폐가 심각하다는 내용, 이웃과 친척이 견책과 징수를 당하고 아이와 죽은 자에게도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조선 후기 나타난 균역의 폐단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영조 때에 까지 균역의 폐단을 해결하려는 양역변통론이 주장되었고 이에 영조는 1년에 2필로 부담되던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족분을 1결당 미곡 2두의 결작을 걷었으며 어·염세, 선박세 등의 잡세를 균역청으로 이관시켰다.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호포법은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이다.</p> <p>&lt;선지분석&gt; ③ 1753년(영조 29년) 균역청을 선혜청으로 병합시켰다.</p>

7	③	<p>제시된 글은 조선 중기의 문신 조익(1579~1655)의 포저집으로 가난한 사람도 그럭저럭 납부해온 것을 수확이 많은 부자가 못내겠느냐라는 글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부과하던 세금을 부자에게로 전환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익은 1623년 인조반정 이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대동법에 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③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1년)에 처음 경기도에 한해 실시되어 1708년(숙종 34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 ② 세종 때 제정된 공법, ④ 인조 때 공법을 대신하여 실시된 영정법에 대한 내용이다.</p>
8	④	<p>제시된 글의 제목인 『목민심서』를 통하여 정약용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렸다는 내용으로 균역에 대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해군 때 실시한 대동법의 내용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하여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지만 영조 사후 국가 재정을 총액제로 운영하면서 도피자의 세금을 친족에게 부과하는 족징, 이웃에게 부과하는 인징, 60세가 넘어 균역이 면제된 노인이나 죽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백골징포, 어린아이에게 부과하는 황구첨정 등의 폐단이 나타났다. ② 조선 후기 균역의 부담이 가중되어 다양한 폐단이 나타나자 다양한 양역변통론이 제기되었다. ③, ⑤ 균역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고, 왕실과 기관들의 경비로 징수하던 어장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을 균역청으로 이관하였다.</p>
9	④	<p>ㄹ. 여말선초에 실시된 과전법 → ㄴ. 세종 때 실시된 연분9등법 → ㄷ.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 → ㄱ.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 순이다.</p>
10	①	<p>(가)는 영조 때 실시한 균역법, (나)는 흥선 대원군이 주도한 호포법이다. ①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대동법이고,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균역 제도의 개혁이었다.</p> <p>&lt;선지분석&gt; ② 양반호와 상민호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군포를 부과자는 호포제의 주장에 대해 군포 면제층인 양반의 반발이 극심하였다. ③ 영정법은 인조 때(1635), 호포제는 흥선 대원군 섭정기인 고종 때(1871) 실시되었다. ④ 균역법의 실시로 인해 신설된 결작 규정으로 군포를 납부하지 않는 지주들도 결작미를 납부해야 했고, 호포제의 실시로 종래 군포를 납부하지 않았던 양반들도 군포를 부담하였으므로 이 두 제도 모두 과세 대상이 확대되었다.</p>
11	②	<p>그림은 균역제도의 붕괴가 일어난 16세기의 모습이다. 요역 기피현상으로 균역의 요역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면포를 받고 대신 군복무를 하는 대립이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② 영조 때의 일이다.</p>



12	①	1결당 2두의 결작, 선무군관포 등을 통해 균역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농민의 군포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② 영정법, ③ 신해통공, ④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13	②	토지 8결을 기준으로 1명씩 동원하고,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요역에 대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이르러 요역 기피현상이 성행하여 군인을 요역에 동원하는 균역의 요역화가 나타났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임노동자가 증가하여 요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일당을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ㄴ은 세조 때 실시한 보법, ㄹ은 16세기에 나타난 균역의 문란에 대한 내용이다.
14	③	부호들이 싫어하는 제도이고, 백성들은 좋아하는 제도라는 내용을 볼 때,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시작하였고, 김육의 노력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도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잔존하였다. ① 환곡, ②④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다.
15	②	(가)는 조선 초기의 토지 결수로 국가에 등록된 토지는 가장 많았으나, 인구는 19세기가 훨씬 더 많았다. 부실한 토지 등록에 비해 인구는 훨씬 증가하였기에, 조선 후기의 국가 재정은 전기에 비해 훨씬 열악하였다.
16	④	공법을 정리한 표이다. 우리나라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 결수를 매겼으므로,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의 면적이 달랐다. 따라서 어느 등급이든 수확량은 동일하였다. ① 32두, ② 30두, ③ 20두, ④ 36두의 조세를 납부하면 된다.

## 주제 25 토지제도

### 세부 주제 1 고대 ~ 고려의 토지제도

문제	정답	해설
1	㉓	<p>제시된 ㉑, ㉒은 신문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귀족의 세력을 견제하고 전제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문무관료전의 지급(687년)과 녹읍의 폐지(689년)에 대한 내용이다. ㉓은 성덕왕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으로 정전을 지급(722년)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㉔은 경덕왕 때 다시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폐지되었던 녹읍이 부활(757년)하였음을 알 수 있다.</p> <p>&lt;선지분석&gt; 식읍은 국가에서 왕족이나 공신 또는 봉작자에게 수조권을 행사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수조지와 수조호로 지급한 지역을 말한다. 민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매매·기증·세습 등이 가능하던 토지를 말한다.</p>
2	㉓	<p>제시된 사료의 (가)는 녹읍이다. 녹읍은 관료에게 지급된 토지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토지를 지급한 제도는 1391년(공양왕 3년)에 제정된 과전법이다. ②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한 제도는 1444년(세종 26년)에 제정된 공법(貢法)이다. ④ 고려 전기에 시행된 전시과에 대한 내용이다.</p>
3	㉑	<p>식읍은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녹읍은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식읍과 마찬가지로 조세 수취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p> <p>&lt;선지분석&gt; ②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던 것은 구분전으로서 고려 전시과 제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③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는 식읍이다. 녹읍은 관료인 귀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토지였다. ④ 정전의 지급으로 국가의 농민 통제력이 강화되었고 농민 안정을 이룰 수 있었으므로 왕권은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p>
4	㉑	<p>(가) 시기는 통일 신라 중대이다. ① 통일 신라 중대 왕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② 통일 전 신라 지증왕 때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③ 고구려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④ 국학생의 녹읍을 제정한 시기는 통일 신라 하대이다.</p>
5	㉓	<p>㉑은 태조 때 실시된 역분전이고, ㉒은 경종 때 실시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정 전시과임을 알 수 있다. ㉓.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활약한 개국공신 등에게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 지급한 논공행상의 성격을 가진 토지로 경기 지역에 토지를 지급하였다. ㉔. 시정 전시과는 전·현직의 관리에게 관등과 인품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한 토지 제도로 곡식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쌀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하였다.</p>

		<p>&lt;선지분석&gt; ㄱ. 전시과 제도의 규칙으로 관등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ㄷ. 시정 전시과에서는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p>
6	④	<p>제시된 글의 ㉟은 6품 이하 관리의 자손에게 지급한 토지라는 내용으로 한 인전임을 알 수 있다. ㉠은 자손이 없는 하급 관리와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구분전임을 알 수 있다.</p> <p>&lt;선지분석&gt; ㉡양전은 조선 시대 과전을 받은 관리의 어린 자식에게 지급하던 토지로 고려 시대 구분전의 형태와 유사하다. 군인전은 고려 시대 직업 군인인 2군 6위의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된 토지이다. 군인의 역이 세습됨에 따라 군인전도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수신전은 조선 시대 과전법 하에서 관리가 죽은 뒤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지급된 토지이다.</p>
7	②	<p>시정 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된 4색 공복제를 기준으로 하여 문반, 무반, 잡업 등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시정 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된 4색 공복제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③ 개정 전시과에서는 인품이 배제되고 18품을 기준으로 관품만을 기준으로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④ 경정 전시과에서는 무관에게 지급되는 토지의 양을 늘려 무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였다. ⑤ 경정 전시과에서는 토지 분급량이 더 줄어들어 전지는 18과까지 모두 지급하였지만 시지는 제14과까지만 지급하였다.</p>
8	③	<p>㉟ 식읍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 노동력의 수취가 가능한 토지로 견훤이나 경순왕 등에게 지급되었으며, 왕자를 비롯한 왕족에게도 지급되었다. ㉠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수확량의 1/10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농민은 국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공납을 부담하였다. ㉡ 고려 시대의 권세가들은 국가가 황무지에 대한 개간과 소유를 할 수 있는 사패를 받아 자신의 소유지를 확대하기도 하였다.</p> <p>&lt;선지분석&gt; ㉢ 외역전은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직역과 함께 세습되는 토지를 말한다.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되던 토지이고,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 토지이다.</p>
9	③	<p>양전은 고려 시대에도 여러 차례 행해졌다. 태조 때부터 양전 사업이 진행되었고, 특히 955년(광종 6) 전후에 대규모 양전 사업을 단행하여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양전 사업을 완결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며, 중앙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군현을 단위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기를 달리하면서 실시하였다.(20년 양전 불명확) 왜냐하면 지방관이 정식으로 파견되고(983년 성종 대 12목 설치), 군현 단위의 지방 제도가 완성(1018년, 4도호부 8목 56군)되는 11세기 이후에나 군현 단위의 양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고려는 경작하던 주인이 방치해서 황폐해진 토지인 진전을 농민이 개간할 때, 주인이 있으면 소작료를 감면해 주고, 주인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 주었다.(국가의 농업 생산 독려) ②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고, 수도에는 경시서를 두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등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 차 등을 파는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④ 고려 전시과 제도는 경종 원년(976)에 처음 실시되었다(시정 전시과). 직관과 산관(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하던 관원) 모두에게 지급하였고,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전지와 시지를 차등지급하였다. 즉, 광종 때 제정된 4색(자. 단. 비. 녹) 공복을 기준으로 다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8개 표와 관리들의 세력 크기의 다원적 구성되었다. 즉, 관품의 고하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인품과 관리들의 세력 크기가 병용되는 한계가 있었다.</p>
10	<p>③ ㉞은 녹과전이다. 녹과전은 원종 때 관리에게 녹봉 대신 등급에 따라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나누어준 것이다(1271) 고려 전시과 제도에서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땀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따라서 전국의 공·사전 토지가 대상이고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수조권자의 중복을 막음) 태조 때에 신료들을 논공행상하여 역분전을 지급하였고(940),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때에 지급량을 줄이고(998, 개정 전시과,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전직+현직에게 지급),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1076, 경정 전시과, 무반 대우 향상)</p> <p>관리에게 보수로 주던 과전과 달리,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다.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였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장전을 두었다.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무신정변을 거치며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고, 몽골과의 전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원종 때에 관리에게 녹봉 대신 등급에 따라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나누어 주었다.(1271) 사전의 하나로, 소유자는 경작자에게서 전조</p>

		만 받았다. 고려 후기에 전시과 체제가 붕괴하자, 권세가들은 개간, 매매, 사패전(賜牌田 : 국가가 인정한 황무지에 대한 개간. 소유권 부여 명목으로 분급) 등의 합법적 방법뿐 아니라 탈점, 고리대 등의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민전을 비롯한 각종 토지를 겸병하여 갔으며, 이렇게 하여 집적된 대규모의 땅을 농장으로 경영하였다.
11	①	(가)는 시정 전시과이다. 시정전시과는 관품의 높고 낮음도 살펴보았으나, 인품이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였다. ① 시정 전시과는 공복의 4색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토지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선지분석> ② 문종 때 제정된 경정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시과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 지방에 한하여 지급된 토지 제도로는 과전법 등이 있다. ④ 역분전에 대한 설명이다.
12	③	③ 문종 때 실시한 경정 전시과는 일부 하급 관리에게 시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13	③	ㄱ.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ㄴ. 식읍은 고려시대까지 존속하였다. 식읍을 제한하였다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식읍을 폐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세부 주제 2 조선의 토지제도

문제	정답	해설
1	④	제시된 글에서 수신전과 활양전의 세습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1391년에 만들어진 과전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일대의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선지분석> ① 군인의 유가족에게 구분전이 지급된 것은 고려 시대의 제도이다. ② 전·현직의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것은 고려 개정 전시과이다. ③ 영정법은 조선 인조 때 실시한 것으로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킨 전세 제도의 변화를 말한다.
2	①	제시된 글에서 직전법을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조선 세조임을 알 수 있다. ①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오른 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였다. 이밖에도 6조직계제 실시와 종친등용으로 왕권을 강화하려하였다. <선지분석> ②, ④ 성종, ③ 세종에 대한 설명이다.
3	②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과전법, 1391).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활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

		<p>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1466, 세조 12)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1556, 명종 11) 그러나 수조권 토지의 소멸은 지주전호제의 확산을 불러와 자영농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수관급제, 1470)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p>
4	①	<p>관리의 과부에게 지급하는 것이 수신전, 관리의 고아에게 지급하는 것이 흠양전이다. 제시문을 보면,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p>
5	③	<p>직전법의 시행으로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일 심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성종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리들의 수조권 행사를 막고, 관청에서 수조권을 대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p>
6	②	<p>ㄱ. 18등급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다.  ㄴ. 원칙적으로 토지 국유제를 추구하였다. 단, 실제로는 사전이 존재하였다.  ㄷ. 전시과에만 해당(양계는 제외)하는 내용이다. 과전법은 경기도 지방으로 수조지 분급을 제한하였다.  ㄹ. 공음전에 대한 설명이다. 전시과에서만 공음전이 존재하였다.</p>

## 주제 26 무역

### 세부 주제 1 고대 ~ 고려의 무역

문제	정답	해설
1	⑤	<p>제시된 글에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이불병좌상, 수도인 상경이라는 내용으로 발해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p> <p>⑤ 발해는 8세기부터 신라와 상설교통로를 통해 무역을 전개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발해의 주요 수출품은 말로 솔빈부의 말이 특히 유명하였다. 한때는 고구려 유민 출신의 이정기와 당 사이에서 주요 무역품으로 거래되기도 하였다. ②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③ 발해의 학자들은 당의 빈공과에 응시해서 여러 명이 합격하기도 하였다. ④ 발해는 일본과 동해를 통하여 교역하였다.</p>
2	④	<p>고려는 송으로부터 왕실이나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서적, 약재 등을 주로 수입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고려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을 한 나라는 송나라이다. ② 고려는 여진과의 교역에서 은과 가죽 등을 수입하고, 곡식이나 농기구 등을 수출하였다. ③ 고려의 국제 무역항인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에는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무역을 전개하였다. ⑤ 청해진은 통일 신라 말기에 장보고가 운영하던 군진이었다.</p>
3	①	<p>발해의 주요 특산물에 대한 내용이다. 발해는 기후가 한랭하여 벼농사를 일부 지역에서만 행하였다.</p>
4	①	<p>장보고에 대한 학술대회이다. 장보고는 완동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p>
5	④	<p>남북국 시대의 무역을 보여주는 지도이다.</p> <p>④ 경강상인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집단이다.</p>
6	②	<p>송나라 상인, 활구 등을 통해 고려 시대의 무역을 보여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최대의 무역항은 개경의 입구인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이다.</p> <p>㉠ 남포, ㉡ 당항성, ㉢ 완도, ㉣ 울산항이다.</p>

### 세부 주제 2 조선의 무역

문제	정답	해설
1	②	<p>경강 상인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상인으로 주로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증강과 책문의 후사에서 대청무역을 전개한 것은 의주 만상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동래의 내상은 일본과의 교역을 담당하였다. ③ 1609년 광해군 때 맺어진 기유약조로 일본과의 국교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대일 무역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는 구리, 유황 그리고 대청무역에서 사용될 은 등이 있었다. ④ 청과의 교역에서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을 수입하였고,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을 수출하였다.</p>
2	④	<p>제시된 자료는 책문후시에 관한 내용이다. 책문후시는 조선 후기 사상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밀무역이다. ④ 공인은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등장</p>

		<p>한 상인으로 정부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던 상인을 말한다.</p> <p>&lt;선지분석&gt; ① 직전법은 1466년(세조 12년) 시행되어 임진왜란 이전인 1556년(명종 11년)에 폐지되었다. ② 계미자는 1403년(태종 3년)에 주조되었다. ③ 전민변정도감은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한 임시기관으로 1269년(원종 10년)에 처음 설치되어 1388년(우왕 14년)까지 시기에 설치되었다.</p>
3	④	<p>개성의 송상과 의주의 만상이 대외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p> <p>④ 조선 후기에는 상업자본의 거대화로 수공업자가 상인들에게 예속되는 자본주의적 상황이 빈번하였다.</p>
4	①	<p>(가)는 만상, (나)는 송상, (다)는 경강상인, (라)는 내상이다.</p> <p>ㄷ은 송상, ㄹ은 조선 전기의 무역에 대한 설명이다.</p>



## 주제 27 농업

### 세부 주제 1 고대 ~ 고려의 농업

문제	정답	해설
1	④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조선 후기에 시비법과 이앙법이 발달하여 광작이 가능해지고 광작에 참여한 농민들은 부농층이 되었다.
2	③	고려 시대 몽골침략 당시 강화도 천도 시기부터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선지분석> ①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 ② 조선 전기 시전을 감독하던 관청이다. ④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
3	④	돈을 사용하지 않고, 저포나 은병으로 교역한다는 내용을 볼 때, 고려시대임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불교 사원의 횡포가 심각하여, 농민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① 조선 전기, ②③ 고대의 상황이다.
4	②	제시문은 원 간섭기에 들어온 중국 화북 지방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고 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발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ㄴ, ㄹ은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5	③	ㄴ, 고려 시대에 퇴비기술(시비법)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이의 발전으로 휴경지가 완전히 소멸된 시대는 조선 전기이다.
6	④	사료는 조선 세종 때 발간된 농사직설의 서문이다. 조선 전기에 이르러 목화의 재배가 확대되어 백성의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① 조선 후기, ② 처음 도입된 시기는 고려, ③ 고대의 일이다.

### 세부 주제 2 조선의 농업

문제	정답	해설
1	①	조선 전기에는 발농사에 있어서 농종법이 유행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견종법이 유행하여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선지분석> ② 시비법은 고려 시대부터 발달되기 시작해서 조선 전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③ 모내기법은 고려 말에 남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어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④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 때 편찬된 농서이다.
2	③	㉠ 조선 전기에 남부 지방 일부에는 모내기법이 보급되어 시행되었으나 봄철의 가뭄으로 제한되었다. ㉡ 조선 저기 시비법의 발달로 윤작이 가능하였다. <선지분석> ㉢ 『농가집성』은 1655년 신속에 의해 저술되었다. ㉣ 조선 후기 쌀이 상품화 되면서 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3	④	<p>고려 말, 조선 초에 보급된 이양법이 수리 시설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양법의 실시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농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광작과 상품작물재배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쌀과 인삼, 목화, 고추, 과일 등의 상품작물들이 거래되어 상품화폐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④ 기존의 수취 방식인 타조제(打租制)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도조제(賭租制)로 변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p>
4	③	<p>제시된 글은 이익이 저술한 성호사설의 내용으로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양법)의 확대로 노동력이 절감되어 1인당 경작지가 증가되고 있는 내용이다. ③ 시비법의 발달로 매년 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 연작이 가능해진 것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모습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모내기법의 발달로 경작시기가 단축되자 벼와 보리를 재배하는 이모작이 확대되었다. ② 광작으로 생긴 생산물이나, 밭농사를 통한 상품작물의 재배로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수공업도 함께 발달하였다. ④ 정액지대로 소작농과 배분하는 도조법도 등장하였다.</p>
5	⑤	<p>제시된 글에서 이양법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고 있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내용으로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다. ⑤ 해동통보는 1102년 고려 시대 주조된 화폐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벼농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모내기법의 시행으로 노동력을 절감한 농민들은 광작을 시행하거나 상품작물을 재배하였다. ③ 조선 후기에는 소작 쟁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소작농들의 경작권이 보장되거나 소작료에 있어서 정액지대인 도조법이 등장하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④ 조선 후기 수공업은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상업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p>
6	①	<p>신해통공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p>
7	①	<p>상품작물의 재배가 성행하고, 인산 무역이 활성화 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④ 신라 지증왕 때의 일이다.</p>
8	①	<p>놀부는 부농, 흥부는 임노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농민층의 분화는 조선 후기에 확산되었다.</p> <p>① 과전법을 비롯한 수조권 지급제도는 16세기 명종 때 폐지되었다.</p>

## 주제 28 상업과 수공업, 광업

### 세부 주제 1 고려의 상업과 수공업

문제	정답	해설
1	②	고려 시대에는 주로 수도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전하였다. <선지분석> ①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발전하였다. ③ 고려 전기에 송과의 무역 규모가 가장 컸다. ④ 고려 후기에 사원경제가 발전하여 사원에서 베, 모시, 기와, 술, 소금 등이 생산되었다.
2	②	②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제 수공업이 개항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3	②	활구(은병)에 대한 설명이다. 활구는 고려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 말기에 목화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 ① 조선 후기, ③ 신라 지증왕, ④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4	④	고려 중기부터 큰 강가와 연해안의 저습지를 본격적으로 개간하기 시작하였다.(자료가 누락 되었습니다ㅠㅠ) ① 조선 전기, ② 고대, ③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 세부 주제 2 조선 전기의 상업과 수공업

문제	정답	해설
1	③	15세기 후반부터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장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농민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한 정부에서는 장시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나, 일부 장시는 정기 시장으로 정착해 갔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보부상(장돌뱅이)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한편, 정부는 조선 초기에 저화(고려 말~조선 초의 지폐), 조선통보(1423, 저화의 대안 화폐)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농민은 화폐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2	②	조선 전기에 목화의 재배가 확대되고,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확산되었다. ① 존재한 적이 없는 사실, ③④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

### 세부 주제 3 조선 후기의 상업과 수공업, 광업

문제	정답	해설
1	①	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인 건원종보(고려 성종), ㄷ은 우리나라 지형 본뜬 활구(=은병. 고려 숙종), ㄴ은 종이화폐인 저화(고려 공양왕), ㄹ은 상평통보(조선 인조)이다.
2	①	제시된 글에서 통공 발매의 효과로 상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겨울철 서울의 면포 가격이 등귀(물건값이 뛰어오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선 후기 정조 때 육의전을 제외한 다른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

		<p>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인정한 신해통공(1791)이 실시된 이후 임을 알 수 있다. ①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배가 왕래하는 포구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포구의 발달은 포구 주변에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보관·숙박·금융 등의 영업도 하는 객주나 여각이 등장하게 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②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포구로 고려의 국제 무역항이다. ③ 고려 숙종 때 제작된 은으로 제작된 화폐였지만 순도가 떨어지는 모조품이 많아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였다. ④ 고려 시대 개경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관영 상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관청에서 생산된 수공업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술을 파는 주점, 차를 파는 다점 등이 있었다.</p>
3	③	<p>제시된 글에 (가)의 난전 금지 행위는 육의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는 정조 때 금난전권이 폐지된 시전 상인임을 알 수 있다. ③ 시전 상인들은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서울에 진출하는 외국 상인들에 맞서 1898년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시전은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으로 천도한 1394년 개성의 상인들을 지금의 종로거리로 이주하게 하여 상점가를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②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의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는 고려 시대이다. ④ 공인에 대한 설명이다.</p>
4	②	<p>제시된 (가)는 정부가 종로에 서 독점 영업권을 주고 세금을 거둔 시전 상인이고 (나)는 서울과 지방의 관청에 등록되어 물품을 제조하던 관영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들이다. ② 16세기 중엽부터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지방장시가 발달하였고, 정조 때 금난전권이 폐지되면서 시전상인의 영향력이 감소되게 된다.</p> <p>&lt;선지분석&gt; ① 시전 상인은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대가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다. ③ 관영수공업의 장인들은 부역의 개념으로 물건을 제조하였다. ④ 중농역상의 정책에 따라 상공업은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었다.</p>
5	④	<p>제시문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조선 후기 광업에서는 상업 자본이 채굴과 제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금광의 개발도 활발해졌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경우도 성행하였다.(잡채) ④ 고려 후기에 전시과 체제가 붕괴하자, 권세가들은 개간, 매매, 사패전(賜牌田: 국가가 인정한 황무지에 대한 개간·소유권 부여 명목으로 분급) 등의 합법적 방법뿐 아니라 탈점, 고리대 등의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민전을 비롯한 각종 토지를 겸병하여 갔으며, 이렇게 하여 집적된 대규모의 땅을 농장으로 경영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조선 후기 농업에 있어서 밭농사에서는 밭의 이랑에 파종하는 농종법 대신, 밭의 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이 유행하였다. 이는 방한과 보습에 유리하여 겨울작물인 맥류에 선호되었다. ② 조선 후기 농민들은 시</p>

		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③ 소작 농민들에 대한 지대 방식에서는 정률제(타조법)로 수확량의 반을 내던 소작료도 일정 액수(정액제)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도조법)
6	③	원료와 자금을 상인에게 미리 받아서 수공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선대제라고 하는데, 이는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형태의 수공업 생산 방식이다. <선지분석> ① 조선 후기에 인구 증가 및 토지 이탈로 인한 농민층의 도시 유입으로 임노동자층이 크게 늘었고 이는 상품 화폐경 제의 진전으로 이어졌다. ② 포구에서의 상거래는 장시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컸다. ④ 의주의 증강에 증강개시(후시), 청의 영토인 책문에 책문개시와 후시가 열렸고 이를 중심으로 청과의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7	②	황해도 수안 금광에서 인부를 모집하는 벽보를 통해 민영광산이 성행한 조선 후기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ㄴ은 고려 후기 ~ 조선 초기, ㄹ은 조선 전기의 모습이다.
8	②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한 상업집단은 개성의 송상이다. ㄴ 유상, ㄹ 경강상인이다.
9	③	지도의 (가)는 시전상인이 있었던 종로, (나)는 난전이 활동했던 한양 도성의 입구, (다)는 경강상인의 본부가 있었던 마포(양화진)이다. ③ 송상은 개성을 본거지로 한 상업 집단이었다.
10	①	(가)는 경강상인 같은 선상, (나)는 임노동자, (다)는 포구 상인인 객주이다. ②③은 보부상, ④는 공인에 대한 설명이다.
11	①	조선 후기에 등장한 독점상인인 도고에 대한 설명이다. ① 조선 전기이다.
12	①	16세기에 이르러 서양 세력이 중국과의 무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교환 수단으로 부상한 은에 대한 설명이다. 중국은 대량으로 유입된 은을 중심으로 통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은을 조세를 내는 일조편법(명 후기), 지정은제(청) 등을 실시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중국의 막대한 은 수요를 활용하여 은광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① 조선 전기에는 정부가 광산의 개발을 통제하였다. 16세기 후반부터 중국에서의 은 수요가 폭증하자, 17세기에 이르러 민영광산의 개발(설점수세제)을 허용하게 되었다.

## 주제 29 신분제도

### 세부 주제 1 고대 ~ 고려의 신분제도

문제	정답	해설
1	③	고려의 중앙 관청의 실무를 담당한 서리들 중 말단서리는 잡류이고, 궁중실무를 담당한 관리는 남반(황반)이라 부른다.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하급 장교는 군반이라 부른다. <선지분석> 역리는 지방의 역을 담당하며, 향리는 지방의 행정관리이다.
2	②	천민은 대개 전쟁 포로, 범법 행위, 채무 등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선지분석> ① 신분은 개인의 능력보다 친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③ 고구려의 혼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와 서옥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결혼풍습이었다. ④ 신라의 골품제는 관등 승진의 상한 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3	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거나 죄를 짓거나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빈번하였던 삼국 시대에는 전쟁 노비가 많았으나, 통일 신라 이후로 정복 전쟁이 사라짐에 따라 전쟁 노비는 점차 소멸되어 갔다. <선지분석> ②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③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진씨, 해씨, 목씨, 사씨, 연씨, 협씨, 국씨, 백씨)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④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 체계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신라는 관등제를 골품제도와 결합하여 운영하였다. 즉, 개인이 승진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을 골품에 따라 정하고, 일정한 관직을 맡을 수 있는 관등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신라와 비슷하게 운영하였다.
4	②	6세기 초반인 502년 신라 지증왕이 순장 금지령을 내렸던 사실과, 신라 무덤에서 순장을 대신하여 흙인형을 매장하게 한 것은 모두 농업발전에 따른 노동력 확보 및 보호 정책임을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선지분석> ① 전쟁 노비가 소멸된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일이므로 맞지 않다. ③ 도교 사상과 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④ 신라 하대 시기에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지만 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5	②	평양과 평양의 처는 둘 다 사노비이자 외거 노비이다. 평양은 관직을 사서 면천하였으나, 평양의 처는 아직 노비 신분이기 때문에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 자녀가 천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 된다.
6	③	신라의 골품제를 정리한 표이다. 골품제는 삼국통일 이전까지 경위와 외위로 구분 되었다가, 통일 이후 경위로 통합되었다.

세부 주제 2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

문제	정답	해설
1	㉓	㉠ 법제상의 신분제는 양천제였고, 실제적으로 운영되었던 신분제는 반상제였다. ㉡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인 중인들은 15세기부터 형성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을 이루었다. ㉢ 상민들은 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선지분석> ㉤ 조선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신분 이동은 가능하였다. 법적으로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이 진출할 수 있었고, 양반도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중인이거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다.
2	㉡	말을 돌보는 직분이나 봉수군은 신량역천에 해당하는 신분이 맡았다. 신량역천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천시를 받았으나, 엄연히 양민으로 천민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않았다.
3	㉓	신량역천에 대한 내용이다, 백정도 한 때 양민화(신량역천)를 시도하였으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다시금 천민으로 신분이 내려가게 되었다. ① 노비, ② 시전상인, ④ 중인과 서열에 해당한다.

세부 주제 3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변화

문제	정답	해설
1	㉠	제시된 글에 의료직, 통역에 역을 대대로 하고, 중촌에 거주, 법전에는 없으나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으로 조선 시대 중인계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중촌은 전문 기술직들이 모여 살던 마을로 청계천과 종로일대를 말한다. 『상원과방』은 조선 시대 잡과의 하나인 역과 합격자 명부로,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중인층으로 성장해가는 가문을 볼 수 있다. ㄱ. 향리와 서열을 제외하고는 문과 응시에 제한이 없었다. ㄴ. 상공업의 발전으로 중인층이 성장하게 되자 중인층은 시사를 조직하여 중이하 하급계층의 한문학인 위향문학을 발전시켰다. <선지분석> ㄷ, ㄹ. 서열에 대한 설명이다.
2	㉣	역관에 대한 설명이다. 역관은 중인으로써 지역과 신분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고, 오경석과 같이 개화파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ㄱ. 문과 응시가 가능한 하였다. ㄷ. 서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3	㉣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 없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등의 내용을 볼 때 서열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서열은 수 차례에 걸친 신분상승운동을 전개하여 철종 때 청요직 진출을 이루게되었다. ① 신량역천 ② 서열은 중인과 비슷한 계층이나 중인은 아니다. ③ 문과 응시만 금지되었다.

## 주제 30 사회구조

### 세부 주제 1 고대 ~ 고려의 사회구조

문제	정답	해설
1	④	“역질에 걸렸다”라는 표현에서 재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해대비 임시기관인 구제도감을 추론 할 수 있다. 의창이나 제위보, 혜민국은 상시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2	④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남녀 간의 구분상속,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 태어난 순서로 호적에 올리기, 제사를 받드는 것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하는 것, 처가살이의 일반화(=남귀여가혼), 여성의 재가를 큰 문제 삼지 않는 것, 재가한 여성의 자제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림이 집권한 중기 이후부터는 남성 중심으로 변하여 시집살이의 일반화(=친영제), 남녀 차등 상속, 장자의 제사 전담 및 재산 상속 우대, 양자 제도의 일반화, 부계 위주의 족보 적극 편찬 등이 특징이다. ④ 고려 초에는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 풍습이 사라졌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히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
3	②	(가)는 팔관회이다. ② 팔관회는 중동(仲冬)인 음력 11월 15일(서경은 10월 15일)에 국가 행사로 치러진 도교와 불교 및 여러 토속 신앙이 어우러진 고려 최대의 종교 행사이다. <선지분석> ① 팔관회 행사에는 개경의 고관은 물론 각 지방을 대표하는 관리들이 의식에 참여하였으며, 송, 여진, 탐라 등의 사신과 상인들도 국왕을 알현하고 가져온 선물을 바쳤다. 특히 각국의 상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개경은 물론, 각지에서 온 귀족들을 대상으로 교역을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③ 팔관회 날에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신령님을 즐겁게 하는 축제를 벌이며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복을 빌었다. 국왕이 몸소 하늘과 산천, 바다의 용 등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음악, 무용 등의 축하 공연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④ 고려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천령 및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말하며 후대에도 마땅히 준행하라 하였다.
4	③	고려 시대에 농민들은 조세와 잡역 등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웠고, 불교 공동체 조직인 향도는 후기로 갈수록 신앙적 성격이 약화되어 마을의 공동체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선지분석> ㉠ 양자 제도가 보편화 된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 고려 정부는 장례와 제사를 유교식으로 치를 것을 권장하였지만, 민간에서는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5	①	고려 시대의 형법은 중국의 당률을 참조하되 고려의 현실에 맞는 71개조의 법률이 시행되었다. <선지분석> ② 고려와 조선 시대 모두 사법기구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사법권의 분리·독립은 2차 갑오개혁 때). ③ 고려 시대의 형법은 예외 규정으로 일정액의 동전을 납부하면 형벌을 면제해주는 속동(贖銅) 규정이 있었다. 즉, 실형주의가 원칙이고 배상주의가 예외적인 것이다. ④ 고려 시대의 형벌은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6	④	개경과 서경, 12목에 설치하였던 기관은 고려의 물가조절기관 이었던 상평창에 대한 내용이다. ① 동·서대비원, ② 혜민국, ③ 구제도감 혹은 구급도감에 대한 설명이다.
7	②	(가)는 고려, (나)는 조선의 법체계이다. ② 의정부는 조선의 최고정무 기관이고, 노비에 대한 소송은 장례원에서 처리하였다.
8	③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일으킨 반란을 보여주는 만화이다. 만적은 천민 신분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9	②	순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왕권의 강화와 노동력의 보전을 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 ① 6세기 ~ 7세기에 삼국간의 항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③ 불교가 전래되기 전의 일이다. ④ 별다른 연관이 없다.
10	③	“침향을 땅에 묻고”, “미륵보살”, “매향불사” 등의 내용을 통해 고려 시대 농민공동체인 향도임을 알 수 있다. 용화신앙은 미륵신앙을 말한다. ㄱ. 향도는 종교공동체로 시작하여 농민공동체로 변화한 조직이다. ㄴ. 향도는 농민과 향리가 스스로 만든 조직이다.

### 세부 주제 2 조선 전기의 사회구조

문제	정답	해설
1	②	전근대 법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범죄자의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2	③	제시된 보기에 여성의 대가를 족보에 기록하였다는 내용으로 재가가 허용되던 시기이며, 양자를 들이는 관습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통해 조선 전기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사회 모습이 유사하다. 남녀 간의 균분상속, 태어난 순서로 호적에 올리기, 제사를 받드는 것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 처가살이의 일반화(=남귀여가혼), 재가한 여성의 자제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것 등이다. ③ 동족 부락이 만들어져 족보 편찬이 성행한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선지분석> ①, ②, ④은 조선 전기의 모습이다.
3	①	조선은 8도의 군, 현 아래에 면, 리, 통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몇 개의

		<p>자연 촌락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여기에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게 한 오가작통제를 통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즉,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와 부세와 균역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통제책이었다.</p> <p>&lt;선지분석&gt; ㄷ. 재지사족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유향소였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ㄹ. 조선 후기에 부농층은 종래의 재지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 향촌 세력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여 갔다. 이 과정에서 사족(구향)과 부농층(신향)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였다.(향전)</p>
4	④	<p>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상기의 '안동 권씨 성화보'이다. 성화보는 1476년 간행된 안동 권씨 족보로 목판으로 찍어낸 3권의 책인데 중간본만 전해진다. 당시 중국 연호인 성화 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해서 성화보라 부르는데 아들은 물론 딸과 그 자녀(외손)들을 모두 신고 있어 아버지 쪽 성씨 자손과 구별하지 않았다. 성화보에 실린 안동 권씨는 380여명으로 다른 성씨도 8000여명 실려 있다(만성보: 萬姓譜). ④ 조선 전기까지는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윤희봉사).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세우기에 앞서 딸이 제사와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그 딸이 죽었을 경우에는 외손자가 상속받고 제사지내는 관행도 널리 퍼져 있었다(외손봉사).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부계, 적장자 위주의 상속과 제사가 관행이 되어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조선 후기에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기존의 남자가 여자 집에서 신혼을 맞이하는 '남귀여가혼'에서,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친영제) ② 지금처럼 사속(嗣續)을 중요시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름란 밑에 '무후(無後 또는 無後)'라고 기재하였고, 양자를 들인 사실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자녀는 출생 순서로 기록하였으며 양자를 들인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딸을 기재할 때 오늘날과 같이 여(女)자 밑에 바로 서(婿)라 쓰지 않고 여부(女夫)라 쓴 다음에 사위의 성명을 썼다. 오늘날의 족보 기재상의 문제점으로서 여 밑에 바로 사위의 이름을 써서 딸의 이름으로 오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딸을 천시하는 경향이 볼 수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또한, 딸이 재혼하였을 경우 후부(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p>
5	③	<p>향약은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삼강오륜의 유교 윤리를 가미한 자치 규약을 실현하자는 조직이었다. ③ 상여를 메는 상두꾼은 향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향도는 주로 상을 당하였을 때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활동을 하였던 농민 공동체 조직이었다.</p>

		<선지분석> ① 향약은 지방 사족이 지향하는 유교 윤리를 농민층에게 강요하여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강화하였다. ② 향약의 실천 강령인 4대 덕목(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휼)은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윤리에 유교윤리를 가미한 것이 일반적이다. ④ 향약은 향촌의 질서 유지, 치안 담당, 세금 징수 보조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후기에 지방 유력자들이 향약을 통해 주민들을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의 폐단도 적지 않았다.
6	③	그림의 사또는 집현적 학사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 이후 세조 이전의 역사적 상황이다. 그 당시에는 농민들이 교대로 군복무를 해야 했다. ① 향약은 16세기에 시작되었다. ② 외역전은 고려의 향리들에게 지급하던 토지이다. 조선은 향리들에게 별도의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④ 시전상인의 독점권은 18세기 정조 때 폐지되었다.
7	②	제시문은 향약의 4대덕목이다. 향약의 시행으로 지방 사족의 향촌 장악력이 강화되었다.

### 세부 주제 3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화

문제	정답	해설
1	④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가족제도의 형태는 대체로 남녀 간의 차별 없이 균등한 모습이었으나 사림이 집권하고 난 다음의 형태인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 남성중심으로 변화되어 간다. ㄱ. 양자는 조선 후기에 보편화 되었다. 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친영제가 확산되어 갔다. <선지분석> ㄴ. 출생한 순서대로 호적을 작성한 시기는 조선 전기까지이다. ㄷ. 『주자가례』에 규정된 4대 봉사(=고조부까지 4대의 제사를 지냄)는 후기로 가며 일반화 되어간다.
2	③	제시된 글에서 순조실록,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박종경, 비변사 등의 내용으로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③ 조선 후기에는 정조 때부터 추진한 수령의 권한 강화와 함께 신향과 구향의 대립으로 수령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령에 의한 농민의 수탈이 크게 증가하였다. <선지분석> ① 19세기 삼정의 문란 등 농촌 사회가 황폐해지자 정감록 등의 예언사상과 미륵사상, 무격신앙들이 크게 유행하였다. ② 19세기 농민들의 항거는 점차 과격해져서 1811년 홍경래의 난, 1962년 임술 농민 봉기 등의 농민반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④ 왕의 외척으로 세력을 형성한 소수의 가문이 비변사의 권한을 독점하며 권력을 장악하였기에 비변사는 국가운영의 핵심적인 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3	①	제시된 글 중에서 흰 수건을 두르고 일으킨 난, 진주라는 내용으로 1862년 진주농민봉기(백건당의 난)임을 알 수 있다. ① 진주 농민봉기는 세도 정치기 삼정의 문란으로 생활고를 겪던 농민들의 봉기로 진주농민 봉기 이후 안핵

		<p>사 박규수에 제안으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하여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②, ③, ④ 동학농민운동 시기 폐정개혁안의 내용이다.</p>
4	①	<p>정약용은 강진으로, 그의 형인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간 것은 기해박해(헌종, 1839)가 아니라 신유박해(순조, 1801) 때이다.</p> <p>&lt;선지분석&gt; ② 18세기 남인 실학자인 이익(서학변)과 안정복(천학문답)은 천주교는 불교처럼 세상을 현혹시키는 종교라며 비판하였다. ③ 윤지충 사건(진산 사건)이 발단이 되어 정조 때인 1791년에 신해박해가 발생한 것이다. ④ 1801년 순조 때 신유박해가 발생하자, 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이 조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해 사건의 전말과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장문의 글(1만 3천자)을 보내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는 임금과 나라에 반역되는 종교로 인식되어 그 탄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p>
5	②	<p>ㄴ.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비변사에 참여하는 2품 이상의 고위직들만이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였는데, 그 고위직들은 대부분 가문이 좋은 경화별열 및 외척 가문들이었다. 이들은 재야 세력인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경향간의 연계가 무너지면서, 건강한 공론정치의 구조가 붕괴되었다. ㄷ. 국초에 환곡은 의창에서 주관한 구휼 제도였으나 모곡(이자)을 징수하지 않아 원곡이 자주 소모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상평창에서 약간의 이자를 징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앙의 각 아문과 지방의 관청에서 환곡의 이자를 재정 운영 경비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세금으로 굳어져 버렸다.</p> <p>&lt;선지분석&gt;</p> <p>ㄱ.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의 5군영 체제는 숙종 때 완성되었으나, 1881년 군제개편으로 무위영과 장어영의 2영 체제로 개편되면서 사라졌다. 따라서 순조 때 혁파된 것은 훈련도감이 아니라 정조 때 설치한 장용영이다. ㄴ. 삼정이정청의 설치의 흥경래의 난이 아니라,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난 1862년이였다.</p>
6	①	<p>전국적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술농민봉기 때의 모습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임술농민봉기의 결과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으나, 곧 해체되고 말았다.</p>
7	③	<p>이 그림의 아버지는 만아들에게 재산을 대부분 물려주고 제사를 맡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적장자에게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조선 후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p> <p>③ 조선 전기에도 일부 지역에서 반촌과 민촌의 구분이 있었으나, 대부분 모여 살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반촌과 민촌의 구분이 보편화 되었다.</p>
8	④	<p>향촌자치기구인 향회(향청)이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전락해버렸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을 수령이 멋대로 향청에 등록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향촌에서 재지사족(지방 사족)의 힘이 약화되고 관권이 강화되고 있었던 조선 후기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p>

9	④	19세기 세도정치기의 상황이다. 안동 김씨는 시파이고, 시파는 대체로 천주교에 관대하였다. 천주교를 심하게 박해한 가문은 벽파의 풍양 조씨이다.
10	③	동학의 교리를 담은 동경대전의 내용 중 일부이다. 동학은 유교와 불교, 도교 그리고 전통신앙을 결합한 종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사의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제사를 거부한 종교는 천주교이다.
11	③	(가) 이승훈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세례교인이다. (나) 안정복은 천주교에 비판적인 인물이었다. (다) 김대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현종 때 박해로 순교하였다. (라) 안중근은 천주교를 수용한 개신유생 집안에서 성장한 천주교인이었다. 이기경은 천주교에 비판적인 정조 때의 문신이었고, 황사영은 신유박해 때 베이징의 주교에게 조선 침공을 부탁하려 했던 천주교인이다. 안창호는 평안도 출신의 개신교인이었고, 김건호는 메가 공무원의 강사이다.

## 주제 31 불교

### 세부 주제 1 고대의 불교

문제	정답	해설
1	②	<p>진골 귀족이면서 중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 양산 통도사를 건립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인물은 바로 자장법사이다. ② 국통 제도는 진흥왕 때 고구려에서 망명해온 혜량이라는 승려를 국통에 임명한 것이 국통제도의 시초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의상, ③ 원측, ④ 원효대사이다.</p>
2	④	<p>제시된 글은 문무왕(626년 ~ 681년, 재위 661년~681년)의 재위 시기의 의상(625년, 진평왕 47년 ~ 702년, 성덕왕 1년)에 대한 설명이다. 의상은 문무왕이 성곽을 쌓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의 정교(政敎)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글을 올려 공사를 중지시켰다. ④ 의상은 당에서 화엄종을 유학하고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저술하였으며, 부석사, 화엄사, 낙산사, 보현사, 미리사, 갑사, 화산사, 범어사, 옥천사, 등의 화엄십찰과 불영사, 삼막사, 흥련암 등을 창건하였다고 전한다.</p> <p>&lt;선지분석&gt; ① 진표, ② 원효, ③ 원측에 대한 설명이다.</p>
3	④	<p>신라에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때는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이므로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라고 해야 맞다.</p> <p>&lt;선지분석&gt; ① 신라는 고구려(372년)와 백제(384년)에 비해 불교 수용이 가장 늦었고(5세기 초중반), 이차돈의 순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 사상과 마찰 때문에 공인과정의 순탄하지 않았다. ② 삼국은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였던 4~5세기에 불교를 수용하였다. ③ 신라 불교는 왕실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호국 불교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p>
4	②	<p>황룡사 9층탑을 건의한 인물은 자장 승려이다. 자장은선덕여왕 때 대국통으로 임명되었고 계율을 주관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원광, ③ 의상, ④ 원효이다.</p>
5	③	<p>원광법사의 세속오계에 대한 서술이다. 원광은 6두품 출신의 승려로, 진평왕의 부탁으로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을 요청하는 ‘원광결사표’를 작성하였다.</p> <p>① 원효, ② 의상, ④ 혜초이다.</p>
6	③	<p>선종에 대한 설명으로, 선종과 관련한 대표적인 조형물로는 승려의 사리를 보관한 승탑이 있다.</p> <p>① 석가탑, ② 발해 석등, ④ 고구려 고분의 현무도(사신도)이다.</p>
7	④	<p>제시문에 나온 ‘화쟁국사’라는 칭호에서 원효를 추론 할 수 있다. 원효는 불교대중화를 위해 아미타신앙을 설파하였고, &lt;대승기신론소&gt;. &lt;금강삼매경론&gt; 등의 여러 저서를 남겼다.</p> <p>ㄴ. 원효는 6두품 출신이다. ㄷ. 자장에 대한 설명이다.</p>
8	④	<p>(가)는 자장, (나)는 혜초, (다)는 원측, (라)는 도선에 대한 내용이다.</p> <p>도선의 풍수지리설은 신라 중앙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p>

		하였다. ① 자장은 진골, ② 의상, ③ 선종에 대한 설명이다.
9	③	제시문은 불교를 정치적인 것에 활용하는 동아시아의 호국불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세부 주제 2 고려의 불교

문제	정답	해설
1	②	제시된 글의 대각국사문집이란 제목과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여 방대한 천태학의 교리를 축약한 제관법사의 뜻을 잇는다는 내용으로 대각국사 의천에 관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선지분석> ① 지눌, ③ 도선, ④ 의상, ⑤ 원효에 대한 내용이다.
2	④	제시된 글의 그는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라는 내용으로 고려 시대 보조국사 지눌임을 알 수 있다. ④ 고려 후기의 부패된 불교계를 비난하며 불교를 혁신하기 위한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선지분석> ① 지눌은 무신정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계종을 성립하였다. ② 지눌은 왕권과 결탁한 세속적인 불교를 배척하고, 선종을 바탕으로 불교 개혁을 주장하였다. ③ 신진 사대부들의 성장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상은 혜심의 유불일치설이다.
3	④	제시된 글의 (가)는 국청사를 창건하고, 불교 통합을 위해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고, 경전 읽기와 참선수행을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교관겸수)으로 의천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만들고 예불, 경전읽기 뿐 아니라 말은 바 임무에 대한 강조를 통해 수선결사를 조직한 지눌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⑦ 의천은 경전 읽기와 참선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⑧ 지눌은 정혜쌍수와 함께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지분석> ㉠ 신라 시대 원측, ㉡ 통일 신라 시대 혜초에 대한 설명이다.
4	①	제시된 글에서 묘종초(『관무량수경묘종초』)를 설법하기 좋아하고, 대중에게 참회를 권하였다는 내용, 결사라는 내용으로 천태종의 승려이지만 지눌의 결사 운동에 영향을 받아 강진 만덕산에 백련사를 지어 백련결사를 이끈 요세임을 알 수 있다. ① 요세는 1216년(고종 3년) 강진지역의 토호 최표, 최흥, 이인천 등의 지원을 받아 강진 만덕산으로 주거를 옮기고 백련사를 창건하여 백련결사를 이끌었다. <선지분석> ② 공민왕에게 도존이란 이름으로 구산선문을 통합하자고 주장한 것은 보우이다. ③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수양하자는 교관겸수를 주장한 승려는 의천이다. ④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는 돈오점수를 주장한 승려는 지눌이다.
5	①	고려 광종은 법안종 계통의 승려 혜거를 중심으로 선종 교단을 통합하게 하였고, 의통과 제관을 남중국인 오월에 파견하여 중국의 선진불교인 천태학을

		<p>배워 오도록 하였다. ① 광종은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처음 시작하였는데, 이 때 승과 제도도 같이 실시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② 요세는 고려 후기 최씨 무신집권기에 활동한 승려였다.</p> <p>③ 의천은 고려 중기에 활동했던 승려였다.</p> <p>④ 초조대장경은 거란 2차 침입 후, 11세기에 현종 때 조판이 시작되었다.</p>
6	③	<p>㉠ - 의천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장경을 간행하였다.</p> <p>㉡ - 보우는 원 간섭기에 불교계가 타락하자 정화운동을 위해 임제종을 들여와 전파하였다.</p> <p>㉢ - 요세는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사를 세우고 참회에 중점을 둔 법화 신앙을 주장하였다.</p> <p>㉣ - 지눌은 『목우자수심결』을 편찬하였고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p>
7	④	<p>지눌이 설파한 돈오점수에 대한 내용이다. 지눌은 무신정권의 후원과 본인의 노력으로 선교일치사상을 완성하였다.</p> <p>① 의천, ② 의상, ③ 요세이다.</p>
8	④	<p>유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지눌의 제자로 들어가 수선사를 계승한 인물은 혜심이다.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이후 성리학이 별 다른 저항 없이 들어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p> <p>① 요세, ②③ 의상이다.</p>
9	②	<p>송나라에 유학을 다녀왔고, 귀국 후 교장도감을 설치한 승려는 대각국사 의천이다. 의천은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여 화폐의 사용을 장려하였다.</p> <p>① 혜심, ③ 원효와 의상, ④ 의상이다.</p>
10	③	<p>(가)는 무신정권기에 활약한 요세, (나)는 고려 중기에 활약한 최충, (다)는 원 간섭기에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 (라)는 공민왕 때 활약한 보우이다.</p>

### 세부 주제 3 조선의 불교

문제	정답	해설
1	①	<p>제시된 글에서 왕의 외척끼리의 권력 다툼으로 사람세력의 위축, 윤원형을 비롯한 외척이 정국을 주도하는 내용으로 조선 명종 때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① 조선 시대 승려인 보우(普雨)에 대한 설명이다. 보우는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지원으로 승과를 부활하는 등 불교를 중흥시킨 인물이다.</p> <p>&lt;선지분석&gt; ②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의상에 대한 설명이다.</p> <p>④ 지눌에 대한 설명이다. ⑤ 고려 말기 보우(普愚)에 대한 설명이다.</p>
2	①	<p>이 답은 세조 때 건립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다. 세조는 불교 중흥책을 실시하여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교 경전을 간행하였다.</p>
3	③	<p>성종 때 이루어진 도첩제의 폐지는 승려의 출가를 자유롭게 해 준 것이 아니라, 승려가 되는 허가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p>



## 주제 32 유학, 교육

### 세부 주제 1 고대~고려의 유교, 교육

문제	정답	해설
1	①	통일 신라기 원성왕 때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였다(788). 이 제도는 골품 제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관직 상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하는 6두품의 지지와, 학문과 유학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2	②	제시된 글의 내용 중 최충이 후진들을 교육한 곳이라는 내용으로 ㉠은 문헌공도임을 알 수 있다. 가. 최충의 문헌공도는 9경과 3사를 중심으로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다. 최충은 과거의 시험관인 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선지분석> 나. 사학 12도의 성행으로 소홀해진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방책으로 양현고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르. 생원과 진사는 조선 시대의 명칭이고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자격을 준 곳은 성균관이다.
3	④	㉠은 고려 태조 시기(10세기), ㉡은 고려 성종 시기(982년), ㉢은 고려 중기(12세기), ㉣은 고려 후기 충렬왕 시기(13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이다.
4	④	제시문에 나온 <화랑세기>의 저자는 신라 중대의 학자인 김대문이다. 김대문은 <한산기>, <고승전> 등의 저서도 집필하였다. ① 설총, ② 고흥, ③ 원광이다.
5	①	(가)는 원광, (나)는 강수, (다)는 설총, (라)는 김헌창, (마)는 장보고, (바)는 최치원, (사)는 최언위, (아)는 최승로이다.
6	②	최치원이 우리 고유의 사상이라고 주장한 풍류도에 대한 내용이다. 최치원은 유학자이면서도 불교와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② 그럴싸한 말이지만, 최치원은 조선시대 문묘에 배향되었다.

### 세부 주제 2 조선 전기의 유학과 교육

문제	정답	해설
1	④	제시된 글의 내용 중 군주가 성학(聖學)을 이해하는 데 신하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그가 이이임을 알 수 있고 그의 저서는 『성학집요』임을 알 수 있다. ④ 동호문답은 이이가 1569년(선조 2년) 왕도정치에 대한 경륜을 문답체로 서술하여 선조 임금에게 올린 글로 임금과 사람의 도리, 폐해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는 11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선지분석> ① 이항의 저서이다. ② 송시열에 대한 설명이다. ③ 박세무의 저서이다.
2	③	(가)는 이(理)를 강조하고,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항임을 알 수 있고, (나)는 기(氣)를 강조하고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을 저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이임을 알 수 있다. ③ 이항의 사상은 그의 학통을 계승한 강항이 정유재란 시기에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게 되면

		<p>서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기호학파는 성혼과 이이의 문인들이 결합해 형성되었다. ② 이이는 현실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이이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노장사상에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서경덕과 조식이다.</p>
3	①	<p>향약은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의 양반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지위 기반을 삼고자 실시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② 1543년 이황이 중종의 명을 받아 『주자대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③ 이이는 주기론의 입장에서 관념적 도덕 세계를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현실 개혁적인 부분도 중요시하였다. ④ 이이는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왕도 정치의 구현과 현실 문제인 수미법을 주장하였고, 『성학집요』의 저술을 통해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p>
4	④	<p>오죽헌과 자운서원은 이이와 관련한 유적들이다. 이이는 주기론을 중심으로 주리론을 절충하여 ‘이통기국’을 주장하였다.</p> <p>① 이황, ② 정제두, ③ 윤희와 박세당이다.</p>
5	③	<p>ㄹ. ‘소학’ 동자라 불리우는 김굉필을 사사한 조광조(1482~1519)와 김안국(1478~1543)은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하여 향약과 함께 널리 보급하고자 하였다.(1517) ㄴ. 서경덕(1489~1546)은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충만하다고 보며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1544, 태허설)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역시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던 조식(1501~1572)은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다(義를 강조). 서경덕과 조식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학문 경향은 16세기 중반 이후 하나의 중요한 사상적 조류를 형성하였다. ㄷ. 학문적 욕구가 매우 강하여 정지운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호남의 신진 명유인 기대승(1527~1572)과 8년(1559~1566) 동안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벌였다. ㄱ. 이이는 동호문답(1569), 만언봉사(1574), 성학집요(1575) 등을 저술하여, 1565년 사림 집권 이후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수미법 주장)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사회경장론)</p>
6	④	<p>(가)는 서경덕, (나)는 이황이다. 이황의 성리학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p> <p>① 이이, 유성룡, ② 정제두 등, ③ 이이, 성혼 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p>
7	④	<p>경상도 출신의 유생으로 경과 의를 강조한 학자는 조식이다. 조식의 제자들이 복인을 형성하여 광해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p> <p>① 이황학파, ② 기대승, ③ 이이에 해당한다.</p>
8	④	<p>“사단은 이가 발함에”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공무원 한국사 수준에서 “이가 발(운동)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황이다.</p> <p>ㄴ,ㄹ은 이황, ㄱ,ㄷ은 이이의 주장이다.</p>

세부 주제 3 조선 후기의 유학과 교육

문제	정답	해설
1	②	인물성이론은 인성을 ‘명(중화)’, 물성을 ‘청(오랑캐)’이라 하였다. <선지분석> ① 충청노론(호론)은 ‘인물성이론’을 주장하였다. ③ 서울 노론(낙론)은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④ 낙론은 후에 북학파(중상주의 학파)에 영향을 주었다.
2	②	제시된 글의 주자의 해석에 의문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정통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통해 윤희, 박세당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도학원류속」은 윤희의 저서로 주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송시열 등에 의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사형당했다. ② 박세당은 논어·맹자·중용·대학·상서·시경을 주해한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하였는데, 주자의 주석을 벗어나 독자적인 해석을 가했다는 이유로 사문난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3	②	㉠은 위정척사 사상, ㉡은 북학(개화) 사상이다. 호락논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충청도 지역의 호론(湖論)과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서울·경기 지역의 낙론(洛論) 사이의 논쟁이다. 뒤에 호론은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었으며, 낙론은 북학(개화) 사상으로 연결되었다. (가)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양반 유생들은 대원군의 대외 정책인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지지하였으나, 대내 정책에는 비판적이였다. (라) 인물성동론인 낙론의 입장은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북학론으로 이어졌다. <선지분석> (나) 의병 항쟁의 사상적 바탕은 반외세를 강조하는 위정척사 사상이므로 인물성이론인 호론과 관련이 깊다. (다) 박규수, 오경석 등의 통상개화론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학론이므로 인물성동론인 낙론과 관련이 깊다.
4	①	제시문은 중상학파 박제가의 북학의 중 일부이다. 북학의에서 박제가는 적절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제가는 수레와 선박의 이용, 청의 문물 적극 수용(정기적) 등을 역설하였다. ① 지구자전설을 주장한 인물은 최초로는 김석문, 그 이후로 이익, 홍대용, 최한기 등이 주장하였다.
5	④	제시된 글에서 한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이익이다. ④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로 노비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게으름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선지분석> ① 안정복, ② 박제가, ③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다.
6	④	제시된 글은 정약용의 탕론으로 무도한 하(夏)의 걸왕(桀王)을 멸하고 은(殷)을 세운 탕왕(湯王)을 변호하면서,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정당성을 옹호한 논설이다. ④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거중기를 개발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왕의 행차 시 배다리를 설계하기도 하였다. <선지분석> ① 박제가, ② 이익, ③ 유형원에 대한 설명이다.

7	①	<p>제시된 글의 ㉠은 한전론을 중시하면서도 영농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장려, 농기구 개량 등의 시설과 농법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다. ①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에 다녀와 저술한 책이다.</p> <p>&lt;선지분석&gt; ② 『반계수록』은 국가 운영 및 개혁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책으로 유형원이 저술하였다. ③ 『성호사설』은 이익이 5가지 주제에 대한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저서다. ④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들을 밝힌 책이다. ⑤ 『의산문답』 홍대용이 저술한 과학사상서로 허자와 실용이라는 가상인물들의 담화 형식으로 저술하였다.</p>
8	③	<p>제시문은 18세기 영조 시기에 활동했던 중상학파 실학자 유수원이 저술한 『우서』의 한 대목이다. 그는 이 저서에서 양반 사족에게 주어진 지나친 특권으로 인해, 사람들이 농업과 상업과 수공업을 천한 일로 여겨 사회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그는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면 사농공상의 사민평등이 이루어져 직업평등과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사실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조선 후기 시대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③ 교정청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씨 정부 측이 설치한 자율적 개혁 기구로, 조선 후기 시대가 아니라 근대 시기의 사실이다.</p>
9	②	<p>조선 후기 중상학파 실학자 홍대용은 『임하경륜』에서 균전론(가호마다 2결씩 지급)과 병농일치의 군대조직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무려산(鑿巫閭山)에 숨어 사는 실용과 조선의 학자 허자의 대화를 빌어 지금까지 믿어온 고정관념을 비판하면서 과학의 원리를 설파하였던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②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지구자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고(외계 생물체의 존재도 언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유형원의 균전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박지원이 저술한 농업서적인 『과농소초』에 대한 설명이다. ④ 유수원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상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상인 서로간의 합자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를 주장하였다.</p>
10	①	<p>ㄱ은 이익의 &lt;성학집요&gt;, ㄴ은 성리학의 상대화를 추구한 윤희의 주장, ㄷ은 강화학파를 이끈 정제두의 주장이다.</p>
11	①	<p>송시열은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를 추구하여, 이를 통해 사회 모순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p> <p>(나) 김장생은 서인 예학의 대가였다. 남인 예학의 대가는 정구이다.  (다) 최한기는 19세기의 실학 사상가이다.  (라) 김대건 신부는 병오박해 때 순교하였다.</p>
12	④	<p>(가)는 홍대용의 &lt;의산문답&gt;, (나)는 박제가의 &lt;북학의&gt;, (다)는 박지원의 &lt;허생전&gt;, (라)는 유수원의 &lt;우서&gt;에 나온 내용이다.</p>

## 주제 33 도교, 풍수지리 등

### 세부 주제 1 도교

문제	정답	해설
1	④	<p>밑줄 친 ‘이 종교’는 도교이다. ㄴ. 고려 시대에 도교는 유교, 불교와 함께 성행하였다.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그리하여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ㄷ. 삼국에 전래된 도교는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으며, 백제 금동 대향로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ㄹ. 도교에는 불교적인 요소와 도참사상도 수용되어 일관된 체계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교단도 성립하지 못한 채 민간 신앙으로 전개되었다.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팔관회는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였다.</p> <p>&lt;선지분석&gt; ㄱ. 한자의 보급과 함께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 청소년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백제는 5경 박사와 의박사, 역박사 등을 두어 유교 경전과 기술학 등을 가르쳤다.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p>
2	③	복원궁은 고려 예종 때 만들어졌다.
3	③	이 시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군을 조롱하려고 만든 작품이다. 이 시의 내용에 도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있다.
4	③	<p>순서대로 산수무늬벽돌, 금동대향로, 현무도이다. 이 작품들은 고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다.</p> <p>③ 도교는 일정한 교단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지 못하였다.</p>

### 세부 주제 2 풍수지리, 국조신앙

문제	정답	해설
1	④	<p>괄호안의 사상은 풍수지리 사상이다. 신라 말기의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는데, 풍수지리설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지리적 학설이었다. ④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중기와 말기 시기에 유행하였던 남경(한양) 길지설을 수용하여 한양으로 천도하여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수선사 결사 운동은 고려 후기 지눌이 추진한 불교 개혁 운동이다. ②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에 발생한 만적의 난은 최초의 신분 해방</p>

		운동이었다. ③ 정조는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한 것이다.
2	④	이 글의 사상은 풍수지리이다. 풍수지리 사상은 초제와는 관련이 없다.
3	③	(가)는 남경(한양)길지설, (나)는 “대화세”, “금이 항복할 것입니다”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묘청과 정지상 등이 주장한 서경길지설이다. ㄱ. 김부식 등의 개경파 관료가 굳이 남경길지설을 주장할 이유는 없다. ㄴ. 남경길지설은 복진 정책이 퇴조할 때 유행하였다.

## 주제 34 예술

### 세부 주제 1 고분, 탑, 불상

문제	정답	해설
1	②	<p>의상이 건축한 주십포 양식의 사원은 영주 부석사이다. 부석가 무량수전에는 신라 양식을 계승한 부석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다.</p> <p>① 논산 관촉사, ③ 순천 송광사, ④ 청주 흥덕사, ⑤ 개성 영통사이다.</p>
2	①	<p>제시된 그림에 나타나 있는 무덤양식은 신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돌무지덧널무덤이다. 나무 덧널 위에 돌무지를 쌓고 그 위에 봉토를 쌓아서 규모가 크고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껍묻거리가 남아 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서봉총, 황남대총, 금관총, 천마총 등이 있다.</p> <p>&lt;선지분석&gt; ②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양의 영향을 받아 벽돌식 무덤이다. ③ 나무로 널방을 만들고 그 위에 돌무지를 쌓고 봉토를 쌓았다. ④ 벽화는 굴식 돌방무덤에 그려져 있다.</p>
3	③	<p>제시된 글의 (가)는 돌로 널방으로 짜고, 통로로 연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굴식 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목곽을 짜고 벽화가 없다는 특징으로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임을 알 수 있다. ③ 돌무지덧널무덤은 특정한 입구가 없기 때문에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껍묻거리(부장품)이 출토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천마총, 금관총 등은 돌무지덧널무덤을 대표하는 무덤이다. ② 돌무지덧널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④ 백제의 무령왕릉이 대표적이다.</p>
4	④	<p>제시된 글에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덤으로 피장자를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령왕릉임을 알 수 있다. ④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백제 특유의 무늬를 새긴 벽돌로 무덤을 제작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고구려의 강서대묘를 비롯한 후기 고분 양식과 백제의 능산리 고분군의 무덤에서 볼 수 있다. ② 삼국 통일 시기 굴식 돌방무덤의 영향을 받은 신라에서 제작되었던 무덤의 특징이다. ③ 고구려와 발해의 무덤에서 볼 수 있다. ⑤ 경주 천마총에 대한 설명이다.</p>
5	③	<p>제시된 사진은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현(集安縣)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장군총이다. ③ 장군총은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7층이나 되는 높이로 축조된 돌무지무덤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널방벽이 존재하는 무덤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이 중 사진도가 발견된 무덤으로는 무용총, 쌍영총, 대안리1호분, 고산리1호분, 강서대묘, 진파리1호분, 내리1호분 등이 있다. ② 묘지석은 무덤의 주인(피장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로 백제의 무령왕릉, 발해의 정혜·정효 공주 묘 등에서 발견되었다. ④ 호우명 그릇은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되었다.</p>
6	①	<p>(가)는 통일 전 삼국 시대 때인 7세기 초반에 건립된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나)는 통일 신라 중대 시기인 8세기에 건립된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이다. ① 참선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선종 불교는 신라 하대</p>

		<p>에 유행하였으므로 시기가 다르다.</p> <p>&lt;선지분석&gt; ② 미륵사지 석탑은 중앙에 거대한 목탑과 동·서쪽에 석탑을 둔 특이한 형태(삼원식 배치)를 띠고 있는데 무왕이 추진한 백제의 중흥을 반영하고 있다. ③ 석가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④ 석굴암과 인공 석굴 사원인 불국사는 신라 중대 751년 경덕왕 때 건립이 시작되었으므로, 불국사 경내에 건립된 석가탑도 대략 이 시기에 착공되었던 것이다.</p>
7	④	<p>강서대묘는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으로 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돌무지무덤은 고구려의 장군총 등이 있다.</p>
8	②	<p>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관촉사 은진미륵)은 고려 초기 지방 문화의 발달을 상징하는 거대 불상으로, 몸체에 비해 머리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등 균형감과 비례감이 전혀 맞지 않는다.</p> <p>&lt;선지분석&gt; ①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크게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으로 나뉜다. 주심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자리잡은 반면, 다포 양식은 기둥 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양식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건물로는 성불사 응진전, 석왕사 응진전 등이 있다. ③ 서예에서는 고려 전기에는 구양순체와 왕희지체가 주류를 이룬 반면, 후기에는 조맹부의 송설체가 유행하였다. ④ 고려 후기의 불화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등이 많이 그려졌다.</p>
9	①	<p>(가)는 사신도, (나)는 천마도이다.</p> <p>① (가)는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p>
10	②	<p>탑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다는 언급을 통해 석가탑(불국사 3층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석가탑은 ②번 그림이다.</p> <p>① 익산 미륵사지 석탑, ③ 평창 월정사 8각 9층탑, ④ 불국사 다보탑, ⑤ 양양 진전사지 3층탑이다.</p>
11	①	<p>(가)는 굴식 돌방무덤, (나)는 벽돌무덤, (다)는 돌무지 덧널무덤이다.</p> <p>① 국내성을 도읍으로 하는 시기의 후반기에 굴식돌방무덤이 등장하였다.</p>
12	④	<p>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다. 병과 정의 발표가 굴식 돌방무덤에 대한 설명이다.</p> <p>같은 벽돌무덤, 을은 돌무지덧널무덤이다.</p>
13	②	<p>왼편의 그림은 고구려의 장군총, 오른편의 그림은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 있는 백제의 무덤이다. 둘 다 돌무지무덤이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세력이 같은 뿌리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p> <p>① 평양성 시기에는 굴식 돌방무덤이 제작되었다.</p> <p>③ 삼국통일 이후부터는 신라도 굴식 돌방무덤을 제작하였다.</p> <p>④ 그런 사실이 없다.</p>



14	③	(가)는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나)는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무덤, (다)는 발해의 정효공주 무덤이다.
15	①	그림은 무령왕릉이다.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다. 백제의 대표적인 고분군으로는 서울 석촌동 고분군,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 있다.
16	③	(가)는 분황사지 모전탑, (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다)는 부여 정림사지 5층탑이다. ③ 정림사지 5층석탑은 백제의 석탑이다.
17	②	(가)는 감은사지 3층탑, (나)는 불국사 석가탑, (다)는 양양 진전사지 3층탑, (라)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다. 석가탑의 탑신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다. ① 신문왕 때 건축, ③ 신라 하대의 탑, ④ 선종 관련 탑이다.
18	①	(가)는 고구려의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 (나)는 백제의 서산마애삼존불, (다)는 신라의 경주 배동 마애여래삼존상, (라)는 백제와 신라가 각각 만든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19	②	(가) 고려 초기에 조성된 개성 불일사 5층탑, (나)는 고려 중기 만들어진 평창 월정사 8각9층탑, (다)는 원갑섭기에 축조된 경천사지 10층탑이다.
20	③	(가)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광주 춘궁리(하남 하사창동) 철불, (나)는 고려 전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다)는 고려 지방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논산 곤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다.

세부 주제 2 회화, 서예, 음악, 공연예술

문제	정답	해설
1	①	진경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이러한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1676~1759)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정선은 대표적인 인왕제색도(1751)와 금강전도(1734)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선지분석> ② 도화서 출신 단원 김홍도(1745~?)는 기본적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어진(영·정조), 의궤, 정조의 화성행차와 같은 궁중기록화, 진경산수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③ 김홍도에 버금가는 풍속화가인 도화서 출신 혜원 신윤복(1758~?)은 주로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과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④ 19세기에는 ‘묵죽도’, ‘묵란도’, ‘세한도’ 등으로 문인화를 지향한 추사 김정희(1786~1856), ‘호취도’, ‘홍백매도’, ‘군마도’ 등을 그려 강렬한 필법과 채색법으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장승업(1843~1897) 등이 활약하였다.

2	④	<p>위향(이향)이란 중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좁은 골목길을 의미하는 용어로, 위향문학이란 조선 후기 중인들의 문학 활동을 의미한다.</p> <p>④ 조선 후기에 광대나 기생들이 판소리,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산조는 느린 장단으로부터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의 민속 음악으로 장구 반주가 따르며 무속 음악과 시나위에 기교가 확대되어 19세기경에 탄생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15세기)에 주로 유행하였다. ②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의 건축 양식은 고려 전기에 유행하였다. ③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는 모두 세종 때 편찬된 의서들이므로 조선 전기에 해당된다.</p>
3	④	<p>왼편 그림은 신윤복의 단오풍정, 오른편 그림은 김홍도의 서당도이다. 둘 다 18세기에 유행한 풍속화이다.</p> <p>④ 조선 전기인 세종 때의 일이다.</p>
4	④	<p>(가)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나)는 정선의 인왕제색도이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15세기의 작품으로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의 미술에 영향을 주었고, 정선의 그림들은 우리나라의 자연을 묘사하는 진경산수화이다.</p> <p>ㄱ. 안견은 도화서의 화원이다. ㄴ. 민화에 대한 설명이다.</p>
5	②	<p>안견의 몽유도원도이다. 몽유도원도와 같은 시기인 15세기에 만들어진 그림으로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가 있다.</p>
6	④	<p>제시문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탈춤의 대사이다.</p> <p>④ 지방사족(구향)이 부농(신향)과의 투쟁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따수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방사족의 힘이 부농층을 능가하였다.</p>
7	①	<p>창덕궁과 창경궁은 경복궁의 동쪽에 있어서 동궐도, 신사임당의 그림은 초충도, 이상좌의 그림은 송하보월도이다. 고사관수는 강희안의 그림, 금강전도는 정선의 그림이다.</p>
8	②	<p>고려 후기에 관음보살도가 많이 그려졌다. 예성강도를 그린 화가는 이영, 경기체가와 가전체문학이 유행한 시기는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제작이 성행했던 시기는 무신정권기이다.</p>
9	④	<p>18세기를 대표하는 서예가가 동국진체의 이광사이다.</p> <p>① 한호는 16세기, ② 최우는 고려, ③ 김정희는 19세기에 활동하였다.</p>
10	②	<p>(가)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나)는 신윤복의 단오풍정, (다)는 강세황의 영통골입구, (라)는 김홍도의 무동, (마)는 김정희의 추사체, (바)는 김정희의 세한도이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정조에게 민생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그림이다.</p>
11	①	<p>강희안의 영통골입구는 원근법과 명암법을 도입한 그림이다.</p>
12	④	<p>김정희는 금석과안록을 저술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p>
13	①	<p>(가)에 들어갈 막부는 무로마치막부이다. 무로마치막부는 14세기 ~ 15세기에 있었던 정권이다. 15세기에 조선과 일본은 3포에서 무역을 하였고, 조선의 미술이 무로마치막부에 영향을 끼쳤다.</p> <p>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ㄹ은 에도막부 때의 일이다.</p>

세부 주제 3 건축, 공예

문제	정답	해설
1	④	<p>㉠은 주심포, ㉡은 다포이다. 주심포 양식은 고려 중기(13세기경)에 남송으로부터 전래된 양식으로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가 목조 건물 기둥 위에만 있는 양식이다. 13세기 이후에 지은 주심포식 건물들은 일부 남아 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들은 균형 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맞배 지붕)은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팔작 지붕)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백제계 전통, 맞배 지붕)은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외관과 잘 다듬은 각 부재의 배치가 만들어 내는 경건한 내부 공간으로 유명하다. 다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건물 양식이다. 고려 후기에는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맞배 지붕)은 고려 시대 다포식 건물로 유명하다. 웅장한 지붕이나 건물을 화려하게 꾸밀 때 쓰였다.</p>
2	②	<p>(가) - 월정사 8각 9층 석탑(국보 48호)은 통일 신라 때의 4각 3층 석탑을 넘어서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다각다층탑이 고려 전기에 유행하는데 그 전형을 보여 준다.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8각탑이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은 고려 후기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1308년으로 건립 연대가 확실하여 한국 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 - 김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62호, 1635)은 팔작지붕 다포 양식의 조선 후기 건축물이다. 규모가 큰 3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라) -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 탑으로 충북 보은에 소재한다.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1층 주심포, 2층 이상은 다포),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17세기(1605)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lt;선지분석&gt; (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다. (다) 금산사 미륵전은 17세기 양반 지주의 후원으로 건립되었다.</p>
3	④	<p>조선 전기 궁중이나 관청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대신에 백자나 분청사기를 널리 사용하였다.  ① 개정 전시과는 998년 목종 때 개정된 토지 제도로 관료들의 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던 토지이다.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는 940년 태조 때 지급된 역분전이다. ② 조선 시대의 건축은 성리학적 통치 이념의 영향으로 이전 고려 시기보다 작고 검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③ 고려 시대의 공예품은 귀족적인 성향이 강하여 조선 시대의 예술품보다 실용성은 부족하였다.</p>

4	②	<p>순백색의 바탕흙(태토) 위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 고온으로 구워 만든 자기인 순백자는 16세기에는 사대부층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순백자는 청자보다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서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이었다. ② 순백자는 16세기에 많이 만들어졌다.</p> <p>&lt;선지분석&gt; ① 순청자로 고려 초기인 10~11세기에 주로 만들어졌다. ③ 상감 청자로 12~13세기에 많이 만들어졌다. ④ 청화 백자로 17세기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다.</p>
5	④	<p>조선 후기에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하여, 양반의 취미생활인 시의 세계에 도전하였다.</p> <p>④ 악학궤범은 조선 전기 성종 때 만들어진 책이다.</p>
6	②	<p>㉠은 주심포양식, ㉡은 다포양식이다. 맞배지붕으로 만들어진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최고(最古)의 건물이다.</p> <p>①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작지이다.</p> <p>③ 수덕사 대웅전은 맞배지붕이지만, 주심포양식이다.</p> <p>④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다.</p>
7	②	<p>팔작지붕, 주심포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다.</p>
8	③	<p>(가)는 분청사기, (나)는 순백자이다. 순백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잘 구현하는 도자기이다.</p> <p>① 분청사기는 15세기, ② 분청사기는 왕실과 상류층이 사용한 도자기, ④ 백자는 조선 중기인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p>
9	①	<p>왼편의 건물은 보은 법주사 팔상전, 오른편의 건물은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다. 두 건물은 다층 건물로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17세기를 대표하는 사원 건축이다.</p>

## 주제 35 문학, 문화교류

### 세부 주제 1 고대 ~ 고려의 문학

문제	정답	해설
1	㉓	<p>㉑ 임춘은 『국순전』에서 술을 의인화하여 사회 혼란 및 관리 부패 등의 현실을 풍자하였다. ㉒ 이인로의 『파한집』은 세상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림에 은둔하며 온전한 한가로움을 얻음을 강조하여 ‘파한’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시·기사 등과 더불어 신라의 옛 풍속 및 서경과 개경의 풍물·궁궐·사찰 등이 소개되어 있다.</p> <p>&lt;선지분석&gt; ㉑, ㉒. 이규보의 『백운소설』과 이제현의 『역옹패설』은 민간에 구전되고 있는 이야기를 고쳐 산문 형식으로 정리한 패관문학이다. ㉓ 최자의 『보한집』은 이인로가 서술한 『파한집』을 보충하는 입장에서 저술한 것으로 시론이나 시평 외에도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p>
2	㉔	이 작품은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이다. 고려가요는 민요풍의 작품으로 오늘날의 대중가요 같은 역할을 하였다.
3	㉒	<p>고려가요이다.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결혼이 흔히 있었다.</p> <p>① 남포등은 개화기, ③ 삼국시대, ④ 을사늑약은 1905년 때의 일이다.</p>
4	㉑	공무도하가는 고조선 시대의 작품이다.

### 세부 주제 2 조선의 문학

문제	정답	해설
1	㉑	<p>『필원잡기』는 1487년 서거정이 저술한 수필집이고, 『용재총화』는 1525년 성현이 저술한 필기잡록류의 저서이다.</p> <p>&lt;선지분석&gt; ㉑ 조선 후기 도시 상인층의 지원으로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산대놀이가 발달하였다. ㉒ 진경산수화는 실경 산수화 전통에 18세기에 이르러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남종화법을 가미하여 형성되었다. ㉓ 조선 후기 이전보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중인층을 중심으로 문예 활동을 위한 시사가 조직되었다.</p>
2	㉒	<p>왼편은 몽유도원도, 오른편은 고사관수도이다. 두 작품 모두 15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다.</p> <p>㉒ 정철의 관동별곡은 16세기의 작품이다.</p>
3	㉑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동문선>의 서문이다. 서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인 <동국통감>도 편찬하였다.

세부 주제 3 고대 문화의 해외 전파

문제	정답	해설
1	①	㉠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왕인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하였다. ㉡ 6세기 후반 고구려 담징은 일본에 종이와 먹의 제조 방식을 전해주었다. <선지분석> ㉢ 호류사(지) 금당 벽화를 제작한 것은 고구려의 담징이다. ㉣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조선 술과 축제술은 신라의 문화 전파 내용이다. ㉤ 6세기 백제 성왕 때 노리사 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여 일본에 최초로 불교를 전하하였다. 쇼토쿠 태자를 교육시킨 인물은 고구려의 혜자이다.
2	②	㉠ 호류사 금당벽화는 담징이 그렸다. ㉡ 다카마쓰 고분 벽화는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와 양식이 비슷하다. ㉢ 불교를 일본에 처음 전파한 인물은 백제의 노리사치계이다. ㉣ 왕인은 근초고왕 때 일본에 유교와 한자를 전파하였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은 고구려의 승려 혜자이다.
3	③	(가)는 왕인, (나)는 단양이, (다)는 노리사치계이다.

## 주제 36 역사서, 각종 저술

### 세부 주제 1 고대 ~ 고려의 역사서

문제	정답	해설
1	②	동명왕(=주몽)에 대한 내용을 저술한 사람과 책은 무신정권시기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이 내용은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내용이다. 동명왕을 천제의 손자로 인식하고 영웅으로 드높였으며, 고구려 계승 의식이 곁들여져 있으며, 고려의 문화적 우위성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는 작품이다. ② 신라의 계승 의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이다.
2	③	ㄷ은 고려 현종, ㄹ은 고려 인종, ㄱ은 고려 무신정권기, ㄴ은 고려 충렬왕 때 편찬되었다.
3	④	ㄷ. 1034년 고려 현종 때 황주량이 임금의 명을 받아 태조부터 목종 때까지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ㄹ.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저술하였다. ㄱ. 1215년 고려 고종 때 승려인 각훈이 왕명을 받아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의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편찬하였다. ㄴ. 1281년 고려 충렬왕 때 보각국사 일연이 3국의 유사를 모아 편찬하였다.
4	②	제시된 자료는 충렬왕 때 편찬된 일연의 『삼국유사』의 일부이다. <선지분석> ① 각훈의 『해동고승전』, ③ 안정복의 『동사강목』, ④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다.
5	④	제시문의 사료에서 ‘기이(紀異)로써 이 책의 앞 머리를 삼은 까닭’이란 표현에서 기이, 흥법, 효선편 등으로 구성된 일연의 『삼국유사』임을 파악해야 한다. ④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여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고, 최초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다. <선지분석> ①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의 강조는 성리학적 사관의 특징으로 이 제현의 『사략』이 대표적이다. ② 유교적 합리주의와 도덕주의를 강조한 기전체의 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이다. ③ 고구려 계승 의식을 기반으로 고구려의 전통을 5언시로 노래한 서사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6	②	단군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운문(시)으로 표현한 역사서는 이승휴의 제왕운기이다. 제왕운기는 원 간섭기에 민족적 자주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역사 서사시이다. ① 해동고승전, ③ 삼국사기, ④ 삼국유사이다.
7	①	기이편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있다. 삼국유사는 우리날 최초로 단군 이야기를 저술한 역사서이다. 삼국유사는 원 간섭기에 만들어진 책이다.
8	③	(다) 신집 5권을 저술한 사람은 이문진이다. (가)는 고흥, (나)는 거칠부, (라)는 김대문이다.

세부 주제 2 조선 전기의 역사서, 다양한 저술

문제	정답	해설
1	①	<p>세조 때 왕명으로 편찬에 착수하여 만든 편년체 역사서라는 내용으로 ‘이책’은 1485년 성종 때 편찬된 『동국통감』임을 알 수 있다.</p> <p>&lt;선지분석&gt; ② 1403년 조선 태종 때 편찬된 편년체 사서로 강목의 형식에 따라 서술되었다. ③ 1778년 영조 때 안정복이 편찬한 편년체 통사로 강목의 형식에 따라 서술되었다. ④ 조선 후기 한치윤이 저술한 기천체 통사로 중국과 일본의 사서 550여종의 사서를 인용하여 저술하였다. ⑤ 1452년 문종 때 김종서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고려 시대의 역사서이다.</p>
2	①	<p>세조 때부터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통사 편찬 노력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사는 『동국통감』이다. 따라서 제시문은 서거정 등이 성종의 명으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동국통감 서문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p> <p>&lt;선지분석&gt; ② 문종 때 고려사를 기전체로 정리한 고려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휘의 동사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④ 조선 후기 한치윤이 저술한 해동역사에 대한 설명이다.</p>
3	②	<p>제시된 글에서 ㉠은 효자, 충신, 열녀 중 본받을 만한 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주자소에서 인쇄하여 널리 전하게 하였다는 말로 세종 때 편찬된 『삼강행실도』임을 알 수 있다. ② 『삼강행실도는』 1434년(세종 16년) 직제학 설순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삼강(군신·부자·부부)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의 행실을 모아 그림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 출판한 책으로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p> <p>&lt;선지분석&gt; ① 『이륜행실도』는 1518년(중종 13년) 조신이 왕명에 의하여 붕우와 장유의 윤리를 강조한 책이다. ③ 『국조오례의』는 1474년(성종 5년) 신숙주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정리한 책이다. ④ 『상정고금예문』은 고려 인종 때 최윤의 등이 1147년부터 1162년 까지 공포된 법령들과 도덕규범들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p>
4	①	<p>제시된 자료의 ‘세조’, ‘만대성법’이라는 내용으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p> <p>&lt;선지분석&gt; ② 『국조오례의』는 1474년 성종 때 신숙주 등에 의하여 편찬된 궁중의 예법서이다. ③ 『국조보감』은 세종 때 편찬을 시작하여 1909년(융희 2년)에 완간된 조선 역대 국왕의 치적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수록한 편년체의 역사서이다. 최초의 『국조보감』은 1457년 세조 때 태조·태종·세종·문종 4조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④ 1434년 세종 때 설순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윤리서로 성리학적 유교윤리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p>
5	④	<p>밑줄 친 ‘이 지도’는 태종이 김사형, 이무, 이회 등을 시켜 만든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필사본은 일본 류코쿠 대학에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p>



		<p>는 가장 오래 된 것이다. ④ 영조 때에 정상기(1678~1752)는 100리척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lt;동국지도&gt;를 제작하였다.(1740)</p> <p>&lt;선지분석&gt; ① 아프리카, 유럽은 매우 빈약하게 그려져 있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나 대양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②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중국이 지도의 중앙에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③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은 원나라 이택민의 세계지도인 성교광피도와 승려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중국에서 들여와 이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다.</p>
6	④	<p>국조오례의이다. 이 책은 성종 때 만들어졌다. 성종 때는 다양한 편찬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동국여지승람도 성종 때 편찬되었다.</p> <p>① 영조, ② 태조, ③ 세종 때 편찬되었다.</p>
7	②	<p>세종 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이다.</p> <p>② 상정고금예문은 무신집권기인 1234년에 제작되었다.</p>
8	①	<p>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다.</p> <p>② 16세기 박상, ③ 조선 후기 안정복, ④ 조선 후기 이공익의 저서이다.</p>
9	①	<p>&lt;고려사&gt;와 &lt;고려사절요&gt;는 문종 때 편찬된 역사서이다. &lt;고려사&gt;는 기전체, &lt;고려사절요&gt;는 편년체 사서이다. 농사직설은 경험이 많은 농민 노농들의 경험을 토대로 세종 때 만들어진 농서이다.</p> <p>ㄷ은 삼강행실도, ㄹ은 고려 때 만들어진 향약구급방이다.</p>
10	④	<p>동국여지승람은 성종 대 만들어진 지리서이다.</p> <p>①, ②, ③은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p>

### 세부 주제 3 조선 후기 역사서, 다양한 저술

문제	정답	해설
1	③	<p>『해동역사』는 조선 후기 한치윤이 단군 조선에서 고려까지의 통사를 기전체 방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기연』은 1689년 허목의 시문집으로 내용 중 「논정폐소」에서는 둔전제를 중지할 것을 상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p> <p>&lt;선지분석&gt; ① 『언문지』는 1824년 유희가 저술한 한글과 한자음의 관계를 연구한 저서로 한자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로서의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고금석림』은 1789년 이의봉이 저술한 어휘집으로 에서 중국어를 비롯하여 흉노·토번·돌궐·거란·여진·청·일본·안남 등 여러 언어의 어휘를 모아 해설한 책이다. ④ 『동사』는 1803년 이종휘가 지은 기전체의 역사서로 고조선과 삼한, 그리고 부여·고구려 계통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으며, 발해를 고구려 유민에 의해 성립된 국가로 설명하였다.</p>
2	③	<p>제시된 글에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를 서술하고,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는 내용, 치밀한 고증을 통해 서술되었다는 내용으로 안정복의 『동사강목』임을 알 수 있다.</p> <p>&lt;선지분석&gt; ① 458년 조선 세조 때 왕명을 받은 서거정 등이 집필하기 시</p>

		<p>작하여 1485년 성종 때 편찬된 역사서로 신라 초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 방식으로 편찬하였다. ② 조선 후기 한치윤이 저술한 기전체 역사서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의 우리나라 관계 기사를 발췌하여 저술하였다. ④ 1776년 영조 때 이금익이 편찬한 역사서로 조선 태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의 중요 사건을 기사본말체의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p>
3	③	<p>(다) - 고려 중기 인종 때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 김부식 등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 기전체의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p> <p>(라) - 고려 후기 원 간섭기에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저술된 대표적인 사서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이다.</p> <p>(나) - 조선 전기에 왕조 건국에 참여한 주체 세력들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조선 왕조가 그 이전의 왕조들을 계승한 국가임을 드러내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여러 역사서들을 편찬하였다. 문종 때 편찬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그 대표적인 사서이다.</p> <p>(가) - 조선 후기에 실학이 발달하면서 실증적이면서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익이다.</p>
4	④	<p>『동국문헌비고』는 영조 때 홍봉한 등이 왕명으로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를 여지(輿地)·예(禮)·병(兵)·형(刑)·학교(學校) 등 13고(考)로 분류해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각종 제도의 연혁과 내용을 계통적으로 묶어서 보기 쉽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이수광의 『지봉유설(1614, 광해군)』은 조선 후기 백과사전류 및 실학의 선구적 저서로 유명하다. 천문·지리·제국·관직·문장·기예·식물 등 25개의 부(部)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들의 풍습(천주교의 교리 소개)과 문물 및 일식·월식 등의 천문 지리 등도 서술하였다. ② 이익의 『성호사설(1740, 영조)』은 천지·만물·인사·경문·시문 등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분야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조선 사회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이 저술한 『오주연문장전산고』는 1,417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주제들로 구성하고, 모든 항목을 변증설이라는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서술하였다.</p>
5	③	<p>그림은 김정희의 추사체이다. 김정희는 금석학을 연구하여 &lt;금석과안록&gt;을 저술하였다.</p> <p>① 박지원, ② 이광사, ④ 이종휘(동사)와 유득공(발해고)에 대한 설명이다.</p>
6	②	<p>규장각 검서관이고, 돌아와서 백과사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 이덕무임을 알 수 있다. 이덕무는 백과사전인 &lt;청장관전서&gt;를 저술하였다.</p> <p>① 김정희, ③ 서유구, ④ 박제가이다.</p>
7	②	<p>② 조선 시대의 어떤 역사서도 유교적 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책은 없다. 따라서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조선시대의 역사서는 없다고 보된다.</p> <p>① 이미 고려 중기에, 기자에 대한 존숭(尊崇)이 확립되었다. 단군에 대한 계승의식은 고려 후기에 출현하였다.</p>

8	②	(가)는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나)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한 유득공의 <발해고>, (다)는 이종휘의 <동사>, (라)는 한치윤의 <해동역사>이다. ① 이수광, ③ 오경석, ④ 이제마에 대한 설명이다.
9	①	조선 후기에는 요역이 사라지고, 국가적 사업의 공사장에 동원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② 16세기, ③ 15세기의 일이다. ④ 조선 후기에도 인구 5만을 넘는 도시는 서울 밖에 없었다. 같은 시기의 중국과 일본에 비해 도시의 발전은 미약하였다.

## 주제 37 과학과 기술

### 세부 주제 1 자연과학

문제	정답	해설
1	④	<p>제시된 글에서 선명력과 수시력등 여러 역법을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역서를 편찬하게 한 것으로 밀줄 친 ‘이 역서’는 세종 때 편찬된 칠정산임을 알 수 있다. ④ 1429년 세종은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중국의 농서와 조선의 농사 경험 등을 망라하여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고려 시대부터 밭농사에서 윤작법이 시행되었다. ② 이앙법은 고려 말기 보급되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반화 되었다. ③ 삼국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신라 지증왕 때 우경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p>
2	③	<p>제시된 글에 원의 수시력을 참고해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서란 내용으로 조선 세종 때 간행된 『칠정산』임을 알 수 있다. ㉠ 세종 때에는 이전의 태종 때의 계미자(1403년)와 세종 때의 갑인자(1434년)에서 사용되던 밀랍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인쇄 능률을 올렸다. ㉡ 1443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1446년 석가의 일대기를 찬술한 『석보상절』을 간행하였다.</p> <p>&lt;선지분석&gt; ㉢ 『임원경제지』는 1824년 서유구가 저술한 농촌 생활 백과사전이다. ㉣ 『향약구급방』은 13세기 고려 고종 때 편찬된 의학서이다.</p>
3	④	<p>태조 때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내용이다. 태조는 정도전과 함께 요동정벌을 계획하였다.</p> <p>① 세조, ② 태종, ③ 성종이다.</p>

### 세부 주제 2 공학, 기술학, 농학

문제	정답	해설
1	④	<p>&lt;무구정광대다라니경&gt;은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p>
2	③	<p>『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청주 용두사는 고려 말기 폐사되어 그 자리에 감영이 설치되었고, 현재는 962년 고려 광종 때 세워진 철 당간지주만 남아있다.</p> <p>&lt;선지분석&gt; ① 금속활자는 활자를 따로 주조하여 배열하는 방식으로 인쇄하였기에 여러 종류의 책을 쉽게 찍을 수 있었다. ② 현전하지는 않지만 1234년 처음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다. ④ 1392년 고려 공양왕은 서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서적점을 서적원으로 고치고 활자의 주조와 인쇄를 맡게 했다. ⑤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1445년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성경을 만들었고,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에 간행되었다.</p>
3	②	<p>인지의와 규형은 조선 세조 때 제작된 토지측량 기구로서, 세조 때 정책과 양성지 등이 동국지도를 제작할 때 활용되었다.</p>

		<p>&lt;선지분석&gt; ① 고려 초기에는 당의 선명력을 후기에는 원의 수시력을 수용하였다. ③ 고려 후기 우왕 때 최무선은 원나라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였고 이 결과 화통도감을 설치하게 된다. ④ 고려 시대에 의학교육 및 의과를 담당하였던 기구는 태의감이었다.</p>
4	③	<p>『과농소초』는 1798년 농서를 구하는 정조의 요청에 따라 면천군수(충남 당진)였던 박지원이 저술한 책으로 중년이후 황해도 금천군 연암협(燕巖峽)에 은거하면서 농학을 연구한 내용과 1780년 수행원으로 청에 다녀오면서 봤던 중국의 농업현황의 내용과 신숙의 『농가집성』과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를 바탕으로 중국의 농서 서광계의 『농정전서』를 참고해 우리 농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저술한 책이다.</p> <p>&lt;선지분석&gt; ① 『산림경제』는 조선 숙종 때 실학자 홍만선이 복거, 섭생, 종수, 양화, 목양, 구급, 벽충법 등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소백과사전적인 책이다. ② 『색경』은 1676년 박세당의 저술로 지방의 농경법을 연구해 꾸민 농법기술서로 농업에 대한 총론적 풀이와 각종 개별작물·과일·화훼·가축·포유류·조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④ 『농가집성』은 1655년 효종의 명령을 받아 신숙이 편찬한 것으로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 외에 『구황촬요』까지 합편으로 들어가 있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종합 농업서적이다.</p>
5	④	<p>제시문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서유구(1754~1845)이다. 서유구가 저술한 『임원경제지』(1824)는 농업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로서, 전국 주요 도시에 국가 시범농장인 둔전을 설치할 것, 혁신적 농법과 경영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재정을 보충할 것, 부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능한 자를 지방관으로 발탁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p> <p>&lt;선지분석&gt; ① 『색경』(1676)은 17세기에 박세당이 지은 농서로서 곡물 재배법 이외에 채소, 과수, 화초 재배법, 목축, 양잠기술을 소개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② 『산림경제』(1715)는 홍만선의 저서로서, 농업, 임업, 축산, 양잠, 식품가공, 의학 등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소백과사전적인 책이다. 한국 최초의 자연과학 및 기술에 관한 교본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③ 『과농소초』(1798)는 박지원이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유음(勸農政求農書綸音)을 받들어 찬진한 농서이다. 수리 조항의 설정과 토지 소유 문제를 우리나라 농서로서 처음으로 다루었으며, 농구를 독립된 항목으로 처음 서술하고 조선 고유의 농구가 갖는 기능과 장점을 기술하여 우리의 농구를 보급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영과 기술적 측면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생산력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과농소초』에 전제 개혁론을 담은 한민명전의(토지 소유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를 첨가하였다.</p>
6	①	<p>청주 흥덕사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는 직지심체요절(우왕, 1377)이다. 같은 시기에 최무선이 화포를 제작하였다.</p> <p>② 고려 문종, ③ 12세기 후반, ④ 고려 초기의 일이다.</p>

7	④	제시문은 세종 때, 우리나라의 하늘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인 칠정산에 대한 내용이다. ㄷ. 세종 때 개발된 갑인자에 대한 설명이다. ㄹ. 세종 때 편찬된 책이다. ㄱ. 인조 때 허임이 저술한 의서이다. 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정상기의 동국지도이다.
8	④	<감저보>는 고구마 재배법을 다룬 책이다. 감자가 19세기에 도입된 이후에 '감저(감자)'의 뜻이 변화되었다.
9	③	과농소초는 박지원이 저술한 농서이다.

### 세부 주제 3 의학

문제	정답	해설
1	①	양부일구(仰釜日晷)란 가마솥 또는 대접 모양의 그릇이 위를 향해 있는 모양을 한 해시계라는 뜻으로 세종 16년(1434)에 중국 원나라에서 제작된 해시계를 참조로 하여 이천·장영실 등이 제작한 것이다. ① 세종 때 중국의 의서를 수집하여 총정리한 의학 백과사전으로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선지분석> ② 조선 후기 영조 때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③ 상감청자는 고려 시대인 12~13세기에 주로 제작되었다. ④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때 홍봉한이 왕명으로 편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었다.
2	④	ㄷ. 『향약구급방』은 고려 13세기에 편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다. ㄹ. 『향약집성방』은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의서이다. ㄱ. 『의방유취』는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의학 백과사전으로, 『향약집성방』이 편찬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ㄴ.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한 의서이다.
3	④	19세기 후반 고종 때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이제마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여 그 체질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강조하였다. <선지분석> ① 『동의보감』은 17세기 초반 광해군 때 허준이 저술한 의서로,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으로 구성되었다. ② 『방약합편』은 19세기 후반 고종 때 황도연의 저서를 아들인 황필수가 증보하여 편찬한 것으로, 한의학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③ 『마과회통』은 18세기 후반 정조 때 정약용이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정리한 의서였다.(제너의 종두법을 소개)
4	①	세종 때의 상황이다. 세종 때 편찬된 의서인 <향약채취월령>,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등을 순서대로 기억해야 한다. 순서와 관계없이 세종 때 편찬된 책을 좀 더 기억한다면, <태산요록>, <무월록> 등이 있다. ② 17세기 허임, ③ 정약용, ④ 고려 무신정권기에 편찬된 의서이다.

### 주제 38 유네스코

문제	정답	해설
1	②	강강술래는 2009년, 아리랑은 2012년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선지분석> ① 영산재는 세계무형유산,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이다. ③ 훈민정음은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이다. ④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만 지정되었다.
2	④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15년이다. 이 문제는 그 이전인 2014년에 출제된 문제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새롭게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이나 기록유산이 있는지 항상 뉴스에 귀를 쫓겨야 한다^^
3	③	정부와 서울시가 한양 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등재되지는 못하였다.